자기를 바로 봅시다

금주의 법구
오른쪽 어깨에 아버지를 업고
왼쪽 어깨에 어머니를 업고
천년을 봉양해도 자식은
이전히 부모의 은혜에
보답할 수 없다.
-불설부모은난보경-

현대불교

佛事 전념 30年
불교미술전시관
사찰불사의 모든 것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2)733-4800 http://www.Buddha.co.kr
신흥사 청동대불

다음전화 02-737-8881 구독문의 02-737-0090 www.buddhanews.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4년(서기 2000년) 9월 13일 수요일 (주간) 제 286 호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조계종은 지난 98년 인터넷·PC 통신업체인 데이콤과 '불교정보화 협력 협정'을 체결해 달마넷 포털 사이트를 만들었다. 그러나 10여 만계의 '달마넷 팩'을 보급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했지만 '달마넷-천리안' 회원은 2,000 여 명이 불과한 실정이다. 그간 조계

인터넷시대 박차라도 타자

사이버 불국토 만들자

종은 부족한 정보화 예산과 가람지기 후속관 개발, 시스템 교체 등의 이유로 새로운 콘텐츠 개발은 엄두도 못내고 종단 전산화의 상징인 달마넷의 현상유지에 만족해야 할 형편이었다.

사실 조계종의 정보화 사업은 다른 종교에 비해 뒤떨어진 것이 아니었다. 98년에는 정보화사업의 공로를 인정받아 정보통신부로부터 표창을 받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마넷을 중심으로 한 종단 정보화 사업이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요인에서 비롯됐다.

하나는 불자, 특히 스님과 사찰종무원들의 정보화에 대한 인식부족이고 다른 하나는 정보화 사업에 대한 종단차원의 지원 부족이다.

정보화 인식 부족

사이버 포교 낙후

조계종의 경우 사찰 종무행정프로그램인 '가람지기'를 500여개 배포하며, 14차에 걸쳐 500여명을 대상으로 전산교육을 실시했지만 교육인원 미달로 취소되는 경우까지 있었다. 분담금 인상 등의 이유로 각 교구본사에서 정보화사업을 꺼린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종단 차원의 지원부족도 시급히 개선돼야 할 문제다. 조계종을 비롯한 주요 종단의 전산관련 요원은 2~3명에 불과하며, 예산도 유지·보수비용에 불과해 콘텐츠 개발과 업그레이드 등 개발비용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같은 사부대중의 정보화에 대한 인식부재와 종단 차원의 지원 부족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교정보 부족이라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각 종단이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는 조계종을 비롯해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총지종 정도. 그러나 아직 사이버 포교매체로서 내실 있는 홈페이지를 갖췄다고 보기는 힘들다.

사이버 종무행정서비스, 불교 데이터베이스 제공, 신행상담, 종단 및 주요사찰 소개 및 행사안내, 불자공동체 코너 등을 갖춘 전산통합정보망을 구축해야 종무행정 전산화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제3의 포교 매체로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교계 복지시설 관리 허술하다

공금횡령 부실운영 등 속앓이

종단차원 '시설등록법' 제정
교구본사별 법인설립 감사

복지시설 관리시스템 강화

조계사 신협과 조계종 총무원의 공금횡령 및 유용사건에 이어 복지법인 승가원에서도 공금유용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관련기사 23면> 특히 승가원 공금유용사건은 교계 복지시설들에서 노출된 각종 횡령사건 및 운영상 문제점과 같은 맥락이라는 점에서 복지시설들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제도와 체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7일 중앙승가대 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밝혀진 승가원 상임이사 보각스님의 공금유용사건은 승가원이 출범한 이래 5년만에 처음 실시한 감사에서 밝혀졌다. 더욱이 이번에 감사를 실시한 중앙승가대와 승가원 간에 감사권을 놓고 이견을 보일 정도로 관리체계가 없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 최근에는 불교계가 위탁운영하는 서울 모 어린이집에서 운영상 문제가 발생해 재위탁에 들어갔는가 하면, 지방의 한 복지법인은 복지시설을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아 경영부실로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스님이 운영하는 지방의 한 복지시설은 투명하지 않은 운영으로 불자들로부터 의혹을 사고 있다. 이들 경우도 역시 관리부실이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밖에 소쩍새마을을 비롯해 실버타운 보리수마을, 치자마을, 자양복지관, 부산 공창복지관 공금횡령 및 유용사건 등 95년부터 지난해까지 교계 복지시설들에서 발생한 각종 사건들도 사전에 철저한 관리와 감사만 이뤄졌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다.

불교계가 운영하고 있는 복지시설 200여곳 중 조계종 복지재단의 관리를 받고 있는 곳이 70여곳에 불과해 개인이 설립한 법인이나 시설을 통제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도 큰 문제다. 게다가 이들 70여곳도 실질적인 관리는 불가능한 상태여서 사실상 각 시설들은 언제 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불씨를 안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교계 복지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종단에서 사회복지시설·단체 등록법을 만들거나 종법에 명시돼 있는 사회복지원법을 강화하고 이 법을 뒷받침할 만한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들은 또 "지금 하지 않으면 불교 복지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단체 등록법이란 불교의 이름을 걸고 운영하는 모든 시설들이 종단에 의무적으로 등록해 활동하도록 하는 제도. 전문가들이 가장 바람직한 제도로 꼽는 것은 종단차원에서 복지재단보다 더 강력한 통제기구를 두는 중앙집중식보다는 교구본사별로 복지법인을 설립하고 각 복지시설들이 활동지역의 해당 교구본사에 등록해 통제를 받는 체계다. 이 경우 문제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지도감사를 통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미인가 시설을 인가 시설로 전환

☞2면으로 계속

10월 16~20일 종교대표 방북

분단 후 처음으로 남북종교대표회담이 열린다.

문화관광부는 7일 불교 등 7대 종교에 대한 종교대표 방북 보고를 통해 방북 일정은 10월 16~20일이며, 이 기간 중 북한의 조선종교인협의회와 남북종교대표회담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종교인협의회는 조선불교도연맹, 조선기독교도연맹, 조선천주교인협회, 천도교 중앙지도위원회, 조선유교연맹 등이 속해 있다. 회장은 북한 적십자회 회장도 맡고 있는 장재언이다.

종교대표 방북단은 불교 4, 개신교 4, 천주교 2, 원불교 유교 천도교 민족종교 각 1명 등 14명과 실무지원팀 4명 등 20여 명으로 구성된다. 불교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인곡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성조 대정사가 불교대표로 방북한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불교TV 50억 증자

위성방송 컨소시엄도 참여

부산지사 재설치

불교TV(사장 이수덕)는 6일 마포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35회 이사회를 열고 11월 15일 신주 발행을 통해 50억원을 유상증자하기로 결의했다. 또 98년 1월 경영난으로 폐쇄된 부산지사를 이번 달부터 다시 재설치키로 했다. <관련 기사 3면>

불교TV 회장 성우스님 등 11명의 이사가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이수덕사장은 "위성방송 컨소시엄에 참여키 위해 한국통신과 5일 정식계약 조인을 마친 상태"라며 "현재도 3~4개의 지역 유선방송을 통해 위성방송을 내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위성방송은 정부 방송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지난 8월 위성방송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한국통신과 데이콤 등 참여업체와 정부간 지분율에 이견을 보임에 따라 무기한 미뤄졌다. 방송위원회는 11월 위성방송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시험방송을 실시한다는 계획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위성방송이 실시될 경우 채널은 100개에서 200개에 이르며, 공공채널과 종교채널은 의무전송채널로 전송된다.

종단협의회는 8일 임시이사회에서 성대식 한국언론인협회장으로부터 위성방송 정책의 추진과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불교위성TV 설립과 추진에 대해 토의할 예정이었으나, 간담회 개최 절차상의 문제를 삼아 무산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조계종 등 주요종단 이사들은 "불교TV의 경영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방송환경의 변화를 지켜보자"는 신중론을 폈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추석 연휴로 다음주 신문 쉽니다



자비의 송편 추석을 앞둔 지난 8일 서울 미아동 자비의 집에서 80여명의 봉사회원과 어린이들이 함께 송편을 만들고 있다. 이날 정성껏 만든 송편은 관내 저소득층 가정 300세대에게 전달됐다. 사진=고영배 기자

문화재 관람료 최고 30% 인상

12월 1일부터 시행

12월 1일부터 문화재관람료가 최고 30% 인상된다.

조계종 관람료위원회(위원장 지명) 및 관람료사찰 주지스님들은 5일 연석회의를 갖고 북한 문화재 사찰복원기금 마련과 물가, 인건비, 관리비용 등이 상승함에 따라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12월 1일부터 최고 30%까지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일부 관람료사찰의 경우는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인상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조계종 총무원의 한 관계자는 "3년 동안 관람료를 인상하지 않아 문화재 보존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중앙승가대 이전을 위한 교육특별분담금 징수를 200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관람료 수입의 5%를 납부하는 교육특별분담금을 96년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돼 오고 있다.

한편 국립공원관리공단은 7월 1일부터 공원입장료를 1000원에서 1300원으로 30% 인상한 바 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日刊 인터넷 현대불교
Buddhanews.com

사이버 기자 모집합니다

불교계 최초 일간 인터넷신문 '붓다뉴스'가 사이버기자를 모집합니다. 성별 직업 나이에 관계없이 불교정보화를 이끌면서 신행 포교 종단 문화 복지 환경 국제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과 아이디어가 있는 불자면 누구나 지원가능합니다.

◆지원방법: 붓다뉴스 홈페이지(www.buddhanews.com) 지원서에 인적사항 및 샘플기사를 기입
◆모집기간: 2000년 8월 30일~9월 30일
◆발표: 2000년 10월초 '붓다뉴스'
◆특전: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됩니다.
◆문의: 현대불교신문사 (02)722-4162, rcpark@buddhapia.com

목조각에 혼이 깃든 작품만을 공급하는
성 불 조 각 원

전통 불교 목공예
전문인 성불 조각원은
모든 작품들을 옛 전통 기법으로
재연해 만듭니다.
또한 목조각에 혼이 깃든 작품,
최고의 작품만을 최저의 가격으로
모든 불사현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오직 불심으로 일구어진
불자기업 성불조각원이 인사드립니다.
성불 하십시오

※모든 불사현장에 쓰여진 모든 작품들은 주문제작이 가능합니다.

■문의 033)263-1102
H·P 011)289-1442



사찰문
■옛전통 기법을 재현하여 조각한 통조각 작품

목불상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경상



나한



16나한 500나한

사천왕



최고의 작품만을 최저의 가격으로 공급하는 불자기업 성불조각원

"인도 4대성지 한국사찰 재정난-포교위축 심각"

주지스님 4명 귀국 한자리 모여

"국내 불교계가 인도 성지에 세워진 한국 사찰들을 외면하고 있어, 세계 불자들의 성지인 이곳에서 한국불교는 여전히 낯선 이방인에 불과하다."

인도내 부처님 4대 성지에서 수 년째 사찰을 운영해 온 4명의 주지 스님들이 일시 귀국, 1일 충남 당진 니르바나사에 모여 '인도 성지 주지 회의'를 열고 이같은 의견을 제시해 주목된다.

이번 회의에 참가한 월우(고려사·보드가야), 도웅(녹야원·바라나시), 성관(대한사·구시나가라), 대인(금강정사·스라바스티) 스님들은 한결같이 "종단을 비롯한 국내 불교계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들에 따르면 한국 불교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수행과 문화를 현지에 알리기 위해 해외로 눈을 돌렸지만, 현재 인도 소재 한국 사찰 대부분이 심각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어, 한국불교를 알린다는 본래 취지조차 무색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도 정부는 매년 4대 성지 소재 외국 사찰을 방문, '성역화 사업'을 위한 재정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나, 한국 사찰은 이러한 요청에 전혀 응하지 못하고 있다. 4대 성지에는 각각 5~15개의 외국 사찰이 있는데, 한국 사찰과 같은 경우를 찾아보기는 힘들다는 것.

현지인을 상대로 한 한국불교의 포교 역시 어렵기는 마찬가지. 녹야원 주지 도웅스님은 "현지 사람들에게 한국불교를 포교하기 위해서는 우선 의료나 복지처럼 사회활동을 토대로 다가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내와는 달리 인도 성지 소재 한국 사찰의 대부분이 '정기적'인 보시보다는 한국인 순례자 1명당 2~3달러에 불과한 '일시적'인 보시에 의존하고 있어, 재정난에서 벗어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사찰 유지에도 버거운 탓에 한국 불교를 알리는 사회 활동을 벌일 여력도 없고, 그래서 인도에 있으면서도 인도와의 관계는 '남'과 같은 모습으로 고립되고 있다는 것이 이들 주지들의 한결같은 자탄. 스님들은 "한국 불교계의 지원과 이를 토대로 인도 현지인 포교 사업에 적극 뛰어들어야, 한국 사찰이 인도 성지에 있어야 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조계종의 경우 해외 포교에 매년 6백여 만원을 책정해 놓고 있으나, 영문 소식지 발간 및 배포 정도에 사용될 뿐. 스님들은 "인도 성지 한국 사찰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세우지 않는다면 대부분 고사할 게 확실시된다"고 위기감을 토로했다.

부처님의 4대 성지가 본격적으로 알려진지 2백여 년이 지난 지금, 인도성지는 일본·미국·스리랑카·호주·독일 등 세계 각국 불교인들의 순례지이자 자국의 불교와 문화를 알리는 포교의 장이 되고 있다.

오종욱 기자



◇충남 당진 니르바나사에서 '인도성지 한국사찰'의 활성화를 논의하고 있는 주지스님들. 사진 왼쪽부터 월우·대인·성관·도웅스님.



◇달라이 라마 방한준비위원회는 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동일빌딩 6층에서 사무실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달라이라마 11월16일 방한예정

준비위 6일 개소식…강연등 6박7일 일정 확정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가 11월16일 방한한다. 이에 따라 달라이 라마 방한준비위원회는 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동일빌딩 6층에서 사무실 개소식을 갖고, 달라이 라마 방한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개소식에서 달라이 라마 방한준비위는 "19일 오후6시 종로 연강홀에서 준비위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19일 열리는 발족식은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과 강원룡목사의 격려사, 여야 3당 대표 및 고은 시인의 축사, 법장 상임대표와 자틀린포체의 인사말, 혜암 조계종 종정의 영상 축하메시지, 달라이 라마의 답례 메시지, 경과보고 및 방한프로그램 발표, 달라이 라마 방한을 촉구하는 '평화인 선언', 로탄 남링의 티베트음악 특별공연, 국내 실내악 및 성악 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방한준비위는 또 오는 11월 16~22일 6박7일간의 달라이 라마 방한 일정은 세 차례의 대중강연회와 두 차례의 학술강연회, 혜암 조계종종정, 김수환추기경, 강원룡목사 등 종교지도자와의 만남, 기자회견 등으로 이뤄지며, 이달중에 날짜 및 장소가 최종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대중강연회는 서울(방한준비위 주관), 광주(광주·전남지역 4개 교구본사와 광주KCRP), 부산(부산불교연합회)에서 열리며, 학술강연회는 티베트대장경 증정식 및 동국대 명예박사학위수여식과 "평화와 관용" 주제 서울대 학술심포지움이 예정되어 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한국불교 영문소개서 발간

조계종 포교원, 아셈 등 국제행사때 보급

외국인들이 한국불교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영문판 종합포교책자 〈What is Korean Buddhism?〉이 8일 발간됐다. 이번에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련)이 발간한 한국불교 영문책자는 가을 아셈회의, 2001년 한국방문의 해, 2002년 월드컵등의 행사에 참여하는 외국사절 및 관광객들에게 한국불교를 폭넓게 알리는 자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총 6장 224쪽으로 구성돼 있는 영문 소개서에는 1장 한국불교의 역사, 2장 한국불교의 특징, 3장 스님의 수도생활, 4장 사찰을 찾아서, 5장 조계종의 주요사찰, 6장 성전의 가르침이 올 컬러로 제작됐다.

이 책자는 1차로 해외 각국의 사찰과 주한외국대사관 및 문화원, 공공기관 관련부처, 전국주요도서관, 관람료사찰등을 중심으로 배포된다.

김원우 기자

현 대 만 평 박구원



함께 노력하면…

조계종 18일 임시종회 종헌개정안 안다룰듯

조계종 총무분과위원회(위원장 영담)는 6일 의장단-상임분과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18일부터 열리는 147회 임시중앙종회에 상정할 안건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장단과 상임분과위원장들은 △종무보고 △각 상임분과위원회 보고 △각종 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보고 △조계사신협 사건 △종정감사 특위 구성 △2544년 중앙종무기관 추가경정예산 승인 △각종 결의문(지리산댐 건설 및 각화사 인근 개발 반대 등) 채택 △기타 안건 등을 논의키로 했다.

한편 총무원은 추경예산안 10억여원을 편성해 중앙종회에 승인을 요청했으며, 종회 재정분과위원회는 17일 추경예산안을 심의해 본회의에 넘기기로 했다.

이에 앞서 종헌 개정 및 종법제·개정 특별위원회(종헌특위, 위원장 정휴)는 4일 종회사무처 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임시종회에 종헌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5월 실시한 '종헌 개정 및 사면 실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학인포함 대책위 구성 김포학사 문제 해결"

정대스님, 승가대이사회서

중앙승가대는 지난 6일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제54차 이사회를 열고 부실공사로 논란을 빚고 있는 김포학사 문제를 중앙승가대 학인들과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해결키로 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정대스님은 "종회가 끝나는 이달 하순경 김포학사 입주 문제 등과 관련해 중앙승가대 학생들과 함께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학생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사회는 총무원장, 교육원장, 총무부장, 교육부장, 중앙승가대 총장, 중앙승가대 총동문회장 등 6인을 당연직 이사로 하는 내용을 승가학원 운영내규에 명시키로 결의했다.

한명우 기자

"학교 단군상 종교자유 침해 아니다"

이한동총리 공식표명

이한동 국무총리가 "국·공립학교 단군상 건립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7일 밝혔다. 이로써 단군상 건립에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공식입장이 확인됐다.

이한동 총리는 "단군을 우리민족의 시조로 인정하고 있다"며 "국·공립학교에서 교육자료로 단군상을 건립한 것인 만큼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이총리의 공식발언은 "국·공립학교의 단군상 건립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가?"라는 김원웅의원(한나라당)이 질의에 따른 것이다.

이번 김의원의 질의는 10월 3일 개천절을 맞아 국·공립학교 및 공공시설내 단군상을 설립 입장, 단군을 국조로 인정하는지 여부, 단군영정 공인여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김원우 기자

☞1면 '복지시설' 서 계속

하는 등 여러가지 장점이 있다. 또한 지역 관계자들끼리 연합해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정서에 민첩하게 기능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가톨릭의 경우 각 교구별로 사회복지회를 두고 여기에 등록한 시설이라야만 활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종단 지도부 스님들의 안일한 복지마인드가 바뀌어야 한다는 선행조건이 뒤따른다.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종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지만 복지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종회의원들도 상당수 있는데다, 이들 스님이 이유없이 통제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한 요원한 문제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94년 9월 공포된 종헌종법 제21장 제117조와 118조에는 불교사회복지원을 두고 각종 기관과 단체의 조직,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에 관련한 논의는 전혀 없었던 것이 이를 반증한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이호걸 과장은 "현대의 복지가 도와주는 것에서 도움이 필요없도록 만들어주는 예방개념을 도입하고 있듯이 교계 복지시설들에 대한 관리도 사고가 터지고 난 후 수습하기보다는 사전에 이를 막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하며, 그런 의미에서 법제도 마련을 위한 스님들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북장애인복지관 조석영 부장은 "법제도와 체계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나 무조건 등록을 강요하는 식이 돼서는 안된다"며 "종사자 교육과 정보제공, 프로그램에 대한 일정부분 예산지원 등이 함께 이뤄진다면 복지시설들이 이 제도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예비스님 222명 탄생

조계종 19기 행자교육원

2백22명의 예비승려가 탄생했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일면)은 7일 직지사 만덕전에서 19기 행자교육원 회향식을 갖고 예비승려 2백22명(사미 1백13, 사미니 1백9)을 배출했다.

일면스님은 회향사를 통해 "출가란 기존의 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지향하는 것"이라며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해 진실한 수행자적 풍모를 지키고 새로운 시대를 이끌기 위해 끊임없이 정진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수료생들은 발원문을 통해 "세세생생 부처님 제자가 되어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고 남부럽지 않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원하옵니다"라고 부처님전에 간절히 서원했다.

김원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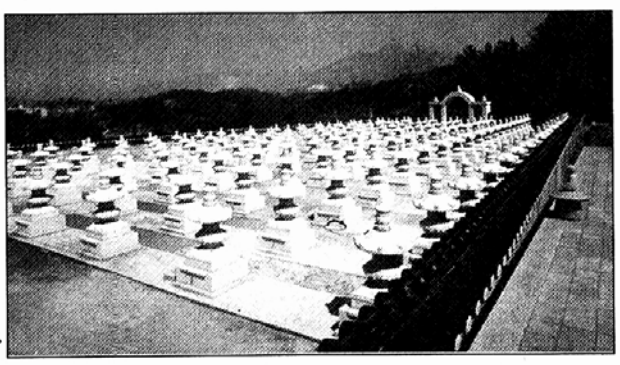
갈월사 영탑(靈塔)

영탑허가번호
양평군 제2000-3호

후손들을 편하게 하고 근본 이체에 순응하며
자신의 육신에 대한 애착을 놓아 버리기 위해 생전에 자신의 영탑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자신과 후손들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입니다.

탑공원 설립의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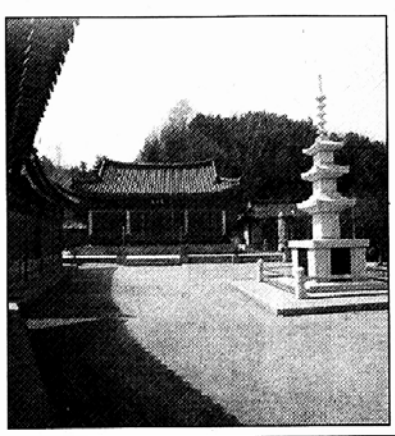
돌아가신 조상님들의 혼백을 자손과 모두 한마음안에 평안히 영생케하고자 하는 원리를 담고 갈월사영탑은 1999년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3리 갈월사 경내에 주지 홍인스님께서 조성하신 가족영탑 입니다.
묘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 매장제도를 개선할수 있는 최상의 모델로 향후 우리나라 장례문화에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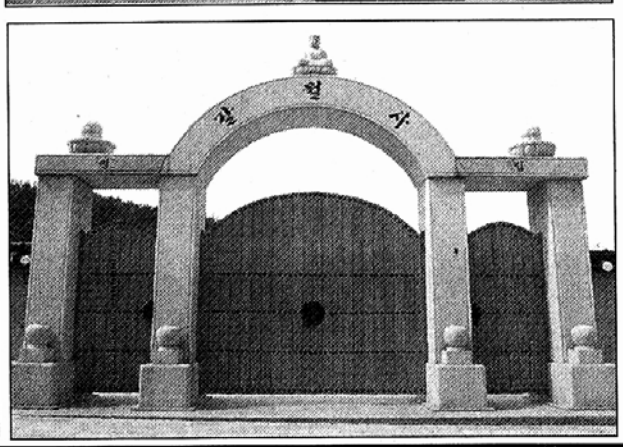
조성된 영탑▶

참다운 효도

물질이 원소로 구성된 이 몸은 본래 영원한 참 생명이 잠시 입고 벗어 버리는 옷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이 다하면 썩어 들어가 결국 지수화풍사대로 화하여 소멸하고 마는 이 육신을 모시는 것은 참으로 허망하며 한낱 애착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조상의 참 생명을 인도하고 모시는 것이 참다운 효도이며 공덕임을 알아야 합니다.



갈월사 경내▶



◀정문

갈월사 영탑 조성지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직접땅에서 출토된 미륵부처님의 도량에 사방이 우거진 웅장한 숲속에 평화롭게 안치될 영탑은
영탑1기에 16구의 영가를 안치해 5대까지 지속적으로 반복 사용할 수 있으며
영탑을 이용 하시는 모든 회원과 불자님에게는 영가를 모셔오는 **시다림의 초제부터 7.7제와 49제까지의 모든 제례행사**를
무료로 주관해드리는 특전을 드립니다.

영탑의 특징

- 탑 하나만 세우면 **가족 대대로 영구적**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기존 묘지는 조상에 소홀하고 제사 지내기에 불편하나 탑안에 조상을 모두 모시기 때문에 소홀함이 없이 정성껏 모실 수 있습니다.
- 갈월사에서 **직접1년에 4회 합동천도제**를 올립니다.
- **내 조상과 똑같은 마음**으로 정성껏 관리합니다.
- **사통팔달한 교통망과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쉽게 오실수 있습니다.

탑은 영구히 사용합니다

영탑에는 조상분들을 화장하여 위패를 모시게 됩니다.
탑에는 3대까지 모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4대를 모실때는 1대를 꺼내어 소(燒 - 절에서 처리)하고 2대부터 4대를 모십니다.
다음은 2대를 소하고 3대로부터 5대를 모시게 됩니다. 3대가 지나면 조상들은 이미 몸을 받기때문에 안모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문 의: 031)774-7374, 771-9577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3리 **갈 월 사**
▶홈페이지: http://galwolsa.bz.co.kr

· 모시고 싶은곳, 자주자주 찾아뵙고 싶은곳 - 영원한 쉼터입니다. · 가신분을 위한 경건하고 엄숙한 안식의 공간이 펼쳐집니다. · 모시는 분을위한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의 공간이 펼쳐집니다.

목어

인간교육 부재시대

교육은 한 인간을 반듯하게 만드는 필수적인 과정이다. 자기 자신을 향상시켜 나가면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바람직하게 성장시키는데 교육만큼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 우리 나라 각 가정의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쏟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일 것이다.

따라서 가정은 물론 어느 집단이나 나라 역시 참교육을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치르고 있느냐에 따라 그 구성원과 구성집단의 오늘과 내일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육은 어제오늘 지적된 바는 아니지만 지식교육에만 너무 편중되어 있다. 시험과 진학을 위한 교육만이 오늘날 우리 국민교육의 전부라해도 지나치지 않다.

사람교육의 부재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셈이다. 돈을 위해서라면 식품에 치명적인 불순물을 넣는 일도 서슴지 않는 생명경시의 풍조에서부터, 나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질서와 비리를 식은 죽 먹듯 저지르는 사회를 우리는 아무런 참회 없이 지금까지 만들어 왔다.

예로부터 동양에서는 인간 됨됨이를 무엇보다 중시했다. 동양의 유·불·선 삼교가 모두 사람 인(人)변을 먼저 세워놓고 가르침을 열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제도적인 법적 제재를 마련하기 이전에,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개탄과 원망을 내뱉기 이전에 자기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생활체육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국민생활교육이 지금 요구되고 있다.

요즘처럼 너나 할 것 없이 검소한 생활보다는 과소비를 오히려 부러워하고, 예의나 도리보다도 완력이나 술수를 써서라도 이익을 얻고자 하는 풍토에서 선진국은 꿈이다.

선진국은 반드시 선진국민만이 만들기 때문이다.

현재 일부 매스컴 등을 중심으로 생활캠페인을 벌이고 있긴 하지만 지극히 미흡한 실정이다. 가정과 학교, 정부 등 각 분야에서 보다 폭넓고 적극적인 국민생활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월드컵이 다가오고 외국인이 찾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나라의 진정한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가장 급한 것은 바로 이것이라고 나는 주장하고 싶다.

도수(정업도량 회주 · 본지 논설위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논 설 고 문 : 고 은
인 쇄 인 : 김규석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구독료 :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급한 불 껐다"…경영 활로 모색

불교TV 50억 증자 '왜 하나'

악성부채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불교TV가 유상 증자를 통한 재원 확보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서 경영 정상화에 대한 새로운 단초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불교TV는 6일 마포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이사회를 열고 11월 15일 신주 발행을 통해 50억원을 유상 증자키로 결의해 마지막 악성 부채로 남아 있는 21억원의 직원 퇴직금을 해결하는데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불교TV가 이번에 유상 증자를 하게 된 것은 지난 6월 이후 성우 회장스님과 이수덕 사장, 총지화 통리원장 등 4명의 이사들이 출연한 23억5천만원으로 금융권 악성부채를 해결해 현재는 현금동원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는게 교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실제로 불교TV는 6월말 금호전기 빌딩 임대료 9억5천만원중 6억5천만원을 현찰로 상환하고 3억원을 광고료로 대체해 부채가 해결 된 상태다. 또 7월에는 하나은행 부채 11억2천3백만원 중 7억원을 현찰로 갚고 남은 4억2천3백만원을 광고료로 대체했다. 이어 8월에는 경영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동원파이낸스의 악성부채 20억5천만원을 현찰로 8억7천만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8억여원의 부채를 1년내에 청산하는 조건으로 4억1천만원을 탕감 받는 등 악성 부채 해결에 박차를 가해왔다.

하지만 지난 5월부터 25명의 퇴직자들이 임금 미지급 명목으로 압류해 놓은 50수신료가 8억2천만원에 달해 이것이 계속 누적될 경우 현재 총 수입중 수신료 의존도 50%를 넘는 불교TV가 또다시 재정난에 봉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출연금 미납 이사 실권주 배당 계획

이에 불교TV는 50억원의 증자 액중 이사들로부터 6월 이후 현재까지 출연한 24억여원을 뺀 나머지 26억원 가량을 출연금 미납이사들 중심으로 실권주를 배당해 자금 확보를 한다는 전략이다. 만일 현재 총 20명의 이사중 출연금 미납 이사 13명이 모두 돈을 내준다면 22억원 정도가 돼 퇴직자 임금 문제 해결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이사회에서 결의한 신주 발행 내용을 살펴보면, 신주의 발행가액은 5천원으로 현재 소유주식 1주당 1주의 비율로 배정받게 된다. 예를 들어 기존에 100주를 갖고 있는 주주라면 80% 주식감자로 인해 현재는 20주만 소유한 상태가 된다. 이 주주에게는 20주가 배당되는데 본인이 포기를 하면 실권주로 처리돼 불교TV 이사들이 매각하게 된다. 또 80% 감자된 주식이 1주가 안될 경우 단주로 처리돼 청약이 끝난뒤 현금으로 다시 되돌려 받게 된다.



◇6일 마포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열린 불교TV 이사회에서 참석한 11명의 이사들이 이사회 회의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교계의 일각에서는 "소액주주들에 대한 보호 장치없이 일방적으로 감자를 단행한 것은 경영난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려는 속셈이 아니냐"는 지적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수덕 사장은 "현재 악성 부채 등으로 불교TV의 경영 상태가 어려워 불가피하게 감자를 할 수 밖에 없었다"며 "3년동안 60억원 이상의 흑자를 내면 주식 상장을 할 수 있어 최선을 다해 경영을 정상화 시켜 아픔을 함께한 주주들의 은혜에 보상하겠다"고 말해 그동안 소액주주들의 항의가 빗발쳤음을 시사했다.

이런 상황으로 미뤄볼 때 주주들이 신주 청약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어서 자금 확보를 위해서는 출연금 미납 이사들의 실권주 매각이 절실한 상태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김기재 의원 사퇴서 제출

민주당 연등회 '당혹'

새회장 김근태·조성준 의원 물망

민주당 불자의원들의 모임인 연등회 회장 김기재의원이 돌연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함에 따라 연등회 회장 재추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정각회장까지 맡겠다며 의욕을 보였던 김의원이 사퇴서를 제출하자 연등회 사무국은 당황하는 표정. 이상곤 사무국장은 "당에서 사표 반려를 독려하고 있지만 본인의 사퇴 의사가 매우 강한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나 "김의원의 사퇴가 확정된다고 해도 연등회의 활동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연등회원인 김근태 최고위원이 8월 30일 열린 조계종 중앙신도회 서울지역 신도회 창립법회에 참석하고 축사까지 한 것으로 미뤄 다음 연등회장은 김근태의원이 맡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연등회는 4일 김근태의원이 서울지역 신도회 창립법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며 "최고위원에 당선된 후 지역행사를 뒤로 미루고 서울지역 신도회 창립 축하인사를 하러 왔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연등회 사무국은 "김 최고위원이 연등회 회원으로서 불교행사에 참석한 것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은 말아달라고 밝혔다.

김기재의원이 사퇴를 번복하지 않을 경우 간사를 맡으며 사실상 연등회를 이끈 재선의 조성준의원이 회장을 맡을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조 의원의 지역구인 성남중원 지역이 워낙 개신교세가 강한 곳이어서 '결심'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김기재의원의 사표 수리 여부는 김대중대통령이 미국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계에서는 한나라당 불자회, 자민련 불자회가 16대 국회가 개원됐는데도 활동을 재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연등회까지 제역할을 못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apia.com)

2000년 기획

禪과 21세기

청정심으로 읽으면 누구나 감응

㉖선시 읽기(5)

달은 둥글어도 보름을 넘지 못하고 / 해는 정오가 되면 기울기 시작하네. / 뜰 앞에 잣나무는 / 홀로 사시상청 푸르네. 〈초당영백〉

庭前柏樹儼成行
朝暮霸森影轉廊
欲問西來祖師意
北山靈鷲送凄凉

뜰앞의 잣나무는 의젓이 늘어서서 / 하루 종일 우뚝한 그림자가 회랑을 도네. / 서쪽에서 조사가 온 뜻을 물으려 하니 / 북숭산(北崇山) 신령한 바람이 서늘한 기운을 보내오네. 〈신광사〉

두 시 고두 달마대사가 선불교를 전하러 오는 '조사여래의'의 화두를 멋지게 시화한 작품이다. '초당영백'은 전형적인 화두시로 선사가 시의 형식을 빌어서 선지(禪旨)의 내용을 담아낸 인시우선(引詩寓禪)이고, '신광사'는 시인의 편에서 선적 사유의 깊이를 시로 유인한 원선입시(援禪入詩)의 명품이다.

서산대사는 '뜰 앞의 잣나무는 홀로 사시상청 푸르네' 하고 결구하였는데, 남곤은 '뜰 앞의 잣나무가 의젓이 늘어서서 하루 종일 우뚝한 그림자가 회랑을 도네'라고 읊어 정백(庭柏)의 무궁하고 영원한 세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남곤은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을 신령한 바람이 서늘한 기운을 보내오네'라고 하여 조사가 온 뜻이 중생의 열뇌(熱惱)를 식혀주는 신령한 바람 즉, 선풍(禪風)임을 상징하고 있다. 참으로 종교적인 목적을 떠나 시 자체로서도 성공한 시로 선적인 함축성을 내포한 자연스러운 선기시(禪機詩) 중의 일품이다.

격외언어를 통해 깨달음의 경계를 나타낸 시를 한 수 살펴보자.



김형중
명성여고 교법사
문학박사

研來無影樹
燒盡水中澤
可笑騎牛者
騎牛更覓牛

그림자 없는 나무를 베어다 / 물 속의 거품을 모두 태워 버렸네. / 우습다 소를 탄 사람이/소의 등에서 다시 소를 찾는구나.

서산대사가 제자인 소요 태능(逍遙太能)선사와 법장대사에게 준 '법장대사(法藏大師)'란 작품이다.

이 시에서 '그림자 없는 나무[無影樹]는 혜능의 자성계에 나오는 '보리본무수(菩提本無樹)에서 유래한 전용선구이다. 깨달음의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으나 형틀[亦無臺]이 없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형상이 없는 마음이나 깨달음의 세계를 논리를 떠난 격외언어이다. 화중생련(火中生蓮)이나 고목방화(枯木放花)도 마찬가지이다. 서산대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지를 그림자가 없는 나무인 '무영수(無影樹)'나 무근수(無根樹)', 화개철수(花開鐵樹) 등으로 표현했다. '물 속의 거품을 모두 태워버렸네'는 마음 속의 번뇌망상과 사량분별이 붉은 화로 속의 한 점의 눈송이처럼 [紅爐一點雪] 말끔히 사라졌다는 뜻이다.

'소를 탄 사람이 소 등에서 다시 소를 찾는다'는 뜻은 자신이 부처임을 모르고 부처를 마음 밖에서 찾는 어리석은 자를 상징한다. 확암(廓庵)선사의 '십우도(十牛圖)'를 원용한 것이다. '십우도송'은 선시에 큰 영향을 주었고, 선시를 기우게(騎牛偈)라고 부르게 하였다.

운문적인 선시의 형식은 사람을 크게 감응시키고 마음을 격발시켜서 심성을 정화하고 교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선시의 체(體)는 순전히 맑고 한가함과 자신의 깨달음의 경지[妙悟]를 솔직하고 천진 그대로 꾸밈없이 단도직입적으로 읊는 것이다. 따라서 선시를 읽는 자들의 마음 또한 이와 같아야만 할 것이다.

참사람 열린교육 2000 동국백년

참 의료의 새빛 동국이 밝힌다!

경주한방병원 9월6일 개원!



자비실천 동·서양의학의 참조화!

부처님의 자비인술이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9월 6일 확장이전 개원한 경주한방병원에 이어 2002년 개원하는 동국대학교 의과대학·한의과대학 부속 일산병원(불교종합병원)!
이제 병들어 고통받는 이들의 아픔을 더 많이 더 빨리 치유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중심병원! 동서양의학이 조화된 병원!
첨단시설과 최상진료인프라가 구축된 병원!
-새천년 동국의료원이 제시하는 참의료의 새모델을 통해 자비광명의 인술이 온세상에 퍼져가기를 기원합니다.

진료과목
■ 한 방 : 내과, 부인과, 소아과, 침구과, 신경정신과, 안·이비인후과, 피부과
■ 양 방 : 가정의학과(내과, 소아과 진료가능), 재활의학과(대형물리치료실 운영)
■ 특수진료센터 : 중풍센터, 척추관절센터, 산후조리센터

〈병원위치〉 경북 경주시 용강동 357번지

업그레이드 존!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 SINCE 1906
http://www.dongguk.edu

의과대학·한의과대학 부속일산병원(불교종합병원)

2002년 개원!



인간중심 최첨단병원의 새모델!

〈병원건립기금동참안내〉 TEL 02)2260-3300
〈병원위치〉 고양시 일산구 식사동 814번지

건설개요
■ 대지면적 : 29,373㎡(8885.3평)
■ 건물규모 : 지하2층, 지상12층, 옥탑2층
■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병 상 수 : 800병상(양방 600, 한방 200, 증축 200예정)
■ 건축면적 : 10,055.18㎡(3,041.69평)
■ 연 면 적 : 91,276.65㎡(27,611.06평)
■ 지하면적 : 35,536.51㎡(10,749.75평)
■ 지상면적 : 55,740.14㎡(16,861.32평)
■ 승 강 기 : 총18대, 에스컬레이터 : 12대
■ 주차대수 : 총 601대(지상 301대, 지하300대)

동국대학교 의료원 산하병원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T. (054) 748-9300
동국대학교 포항병원 T. (054) 273-8111
동국대학교 분당한방병원 T. (031) 710-3700
동국대학교 강남한방병원 T. (02) 3416-9700
동국대학교 LA동국로얄한방병원 T. (213) 487-0110
동국대학교 경주한방병원 T. (054) 770-1200
동국대학교 일산병원(불교종합병원) T. (031) 969-6031



◇원동수(사진 오른쪽)씨와 송인갑씨가 임무교대를 하고 있다. 유재명씨는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근무하기에 사진에서 빠졌다. .

"24시간 순찰…성상안전 문제 없다"

동국대 불상 지킴이 원동수·송인갑·유재명 씨

동국대 건학 이념을 담고 있는 석가모니청동입상(이하 성상) 앞. 오후 2시. 본관을 나선 푸른 제복의 50대 초로의 사람이 불상 옆 비치 파라솔 쪽으로 걸어가고 있다. 파라솔 아래에서 똑같은 제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기록하고 있다.

"별일 없죠. 학생들이 많네요." "이상 없습니다. 이것 받아요." 근무일지를 주고받으며 인수인계를 하고 있는 두 사람은 '불상 지킴이' 원동수(54) 씨와 송인갑(56) 씨.

동국대 훼불 사건 이후, 이 곳에서는 오후 2시와 10시 그리고 오전 7시 하루 세 차례 이러한 모습이 반복된다. 더 이상의 성상 훼불을 막겠다면서 지난해 6월 초 동국대는 성상 기단부에 경보시스템을 설치한 것 외에도 원씨와 송 씨 그리고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불상을 지키는 유재명(54) 씨 등 3명의 '불상 지킴이'를 고용한 것이다.

"이른 새벽 남산에 올랐다가 이곳을 참배하고 가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정성스럽게 성상 주변을 청소하고 예불을 올리는 모습을 2개월 내내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두 사람은 성상의 안전을 걱정하는 이사장스님과 총장 그리고 교수들이 빈번하게 성상을 찾는 탓에 더 마음을 졸여야 했다고 토로한다. 유난히 무더웠던 7~8월 24시간 내내 열기와 모기 등과 싸워야 했다. 그러나 2개월 동안 성상을 지키며 인내의 시간의 보낸 지금, 그들은 '평상심'의 경계에 다가서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 몸에 그런 못된 짓을 했다는 게 가슴 아프다"는 송씨는 "가까이에서 학생들이 불상을 대하는 태도를 보니까 모두 착하고 순진한 데 어떻게 그들이 불상을 훼손할 수 있겠냐"며 학생들을 감쌌다. 석가모니 불상에는 그때의 상처가 희미하게 남아 있지만, 훼불에 대한 경각심 뿐 아니라 일반인들이 불교 종립학교를 이해할 수 있는 값진 계기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성상지킴이들은 "다시는 훼불과 같은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오증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백혈병 오승우씨 치료비 없어 막막

도·와·주·세·요



학원영어강사를 하던 청년불자가 갑작스런 백혈병으로 투병중이나 치료비를 댈 길이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지난 7월초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오승우씨(29)는 최근 서울 중앙병원에서 2차 항암치료를 받고 골수기증자까지 나타나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 하지만 골수 수혜비 800여만원과 치료비 및 수술비 2천여만원은 현재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22만원의 지하 단칸방에서 살고 있는 오씨 형편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다.

18년 전 부모가 이혼, 편모슬하에서 자랐지만 밝고 명랑한 성격에 신행활동을 열심히 해온 오씨는 병상에서도 경전을 머리맡에 두고 오히려 어머니를 위로하고 있어 보는 이들을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도움주실분은 우체국 053-01-243778(예금주 생명나눔)을 이용하면 된다. 한명우 기자

일주문

김민석의원 예방 받고 환담



정대 조계종 총무원장은 6일 인사차 총무원을 방문한 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만나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이웃돕기 성금 3백만원 기탁



혜덕 서초불교사암연합회장스님(일승종 총무원장)은 추석을 앞둔 지난 5일 서초구청을 방문, 불우이웃돕기 성금 3백만원을 전달했다.

강남포교원 개원 18돌 법회



성열 강남포교원 주지는 3일 설법전에서 개원 18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합창단 등의 기념 예술제도 함께 열렸다.

제주대서 불교철학 강의



수암 제주불교총연합회장(태고종 제주종무원장)은 2학기부터 제주대학교 철학과에서 불교철학을 강의하고 있다.

청주불방 사장 직무대행에



진구 영동 금성사 주지는 3월 31일 청주불교방송국에서 개최된 청주불교 방송운영위원회에서 현 사장인 도공 스님에 이어 사장 직무대행 겸 본부장에 선출됐다.

삼보축구단 초대단장에

혜운 제주 북청사 주지는 8월 22일 선흘 잔디구장에서 종파를 초월한 제주도내 스님들의 스포츠 모임인 '삼보축구단' 창단식을 갖고 초대 단장에 취임했다.

삼화불교대 장학금 전달



혜인 삼화불교대학 학장스님은 8월28일 장학금 전달식 및 제2학기 개강법회를 봉행했다. 제1학기 장학생는 성적우수장학생 16명을 비롯, 진흥회장학생, 동국대불교대학원 동창회장학생 등 모두 32명이다.

정토불교대학 수강생 모집

지장 부산정토회 원장스님은 18일~12월12일 매주 월·화요일 오전 11시와 오후 8시 정토법당에서 정토불교대학을 진행한다. (051)557-2746.

부산 룸비니 포교원장 취임



법신 네팔 룸비니 대성석가사 주지는 18일 부산 룸비니 포교원 원장으로 취임하고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 (051)746-6093

구인사 박물관 자문위원에



황수영 전 동국대 총장은 8월 24일 정영호 한국교원대 명예교수, 장충식 동국대 교수와 함께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에 건립될 성보박물관 건립추진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시 낭송회 개최



고은 시인(본지 논설고문)은 29일 오후 4시 서울 교보빌딩 10층 대강당에서 퓰리처상을 수상한 미국 시인 게리 스나이더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게리 스나이더와 고은이 함께 하는 시낭송회'를 개최한다. (02)2263-1941

한옥문화원 개원



신영훈 목수(한옥문화원장)는 최근 서울 서초동에 '한옥문화원''을 개원하고, 2000년 가을학기 한옥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02)562-0303

환경문제 탐색 세미나



신동춘 '자연과 인간의 미래를 연구하는 모임(자미연)' 회장(한양대 명예교수)은 세계평화교수협의회와 공동으로 7일 서울 참가정 문화센터에서 '국내외 환경문제 탐색'을 주제로 자미연 제11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복지시설 상락원 위문



박준영 청와대 불자회장은 추석을 맞아 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어려운 이웃을 격려하기 위해 청와대 공보수석실 직원 14명과 4일 장애아동요양시설 상락원을 방문,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고산큰스님 초청대법회



진병길 신라문화원 원장은 26일 오후 7시 서라벌문화회관에서 고산 큰스님(쌍계사 조실) 초청대법회를 개최한다.

부음 김상현 동국대 교수의 모친 조애련 여사가 7일 오후 6시 15분 95세 나이로 별세했다. 9월 9일 경남 합천군 야로면 라대리에 안장했다.

"지역조직과 연계 신도혁신 이룰 터"

서울지역 신도회 정인악 초대회장



"순수한 신행활동을 통해 조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일 조계종 서울지역신도회 창립총회에서 초대회장에 선출된 정인악씨(67세·주식회사 남양사 회장)는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서울신도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매달 고승초청 정기법회와 정기적인 신도수련회 등의 연합행사를 개최해 기초신도단체의 가입을 확대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회장은 "신도들의 역할증대를 위해서는 지역조직들과의 굳건한 연계가 필요하다"며 "첫 지역 신도조직인 서울신도회를 활성화시켜 부산 대구 광주 대전등 여타 지역 신도조직의 결성에 표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를위해 정회장은 "불교적 조직운영방식인 대중공의에 의해 의사를 결정하고, 신도 신행혁신을 통한 사회적 회향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인악회장은 현재 재가연대 자문위원과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고침 285호 UN NGO활동 인터뷰 기사에서 류인화를 '류은화'로 바로 잡습니다.



천태종 승려 수계산림 법회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은 8월 26일 총본산 구인사 설법보전에서 불기 2544년 경진년 승려수계 산림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종정 도용스님, 총무원장 운덕스님 등 종단스님 5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김광천 행자 등 14명이 연비를 받고 종정스님으로부터 십선계와 장삼, 가사를 수여받았다.



동국대 경주한방병원 이전 개원

동국대 경주한방병원(원장 이태균)은 6일 동국학원 이사장 녹원 스님, 송석구 동국대 총장, 이원식 경주시장 등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전 개원 법회를 봉행했다. 경주시 용감동(舊) 구암재단 경주병원 자리에 들어선 경주한방병원은 총 72억원 가량 소요된 보수 공사로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에 최첨단 의료장비를 갖춘 종합병원으로 거듭났다.



사형폐지 부산불교운동본부 창립

사형제폐지 부산불교운동본부(회장 지원)는 1일 문수불교문화원 법당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사형제폐지 서울불교운동본부 진관스님, 부산불교인권위원회 상임이사, 감로사 주지 혜총스님을 비롯 사부대중 150여명이 동참해 사형제 폐지에 뜻을 모았다. 운동본부는 10월 중순 세미나 개최, 서명운동, 국회 청원서 제출 구체적인 활동을 계획중이다.



석불선양회 제천 미륵불 공양

한국석불선양회는 3일 충북 제천으로 9월 석불 친견 순례법회를 다녀왔다. 회원 51명은 봉양읍 명암리에 보호 전각도 없이 방치된 석조 미륵존불을 찾아 함께 어우러져 사는 밝은 사회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발원했다. 이날 선양회는 비가 와도 향을 피우고 촛불을 밝힐 수 있도록 알루미늄과 유리로 특수 제작한 공양대를 설치했다. 이귀인 명예기자

제5기 불심호스피스·간병봉사자 신입생 모집

불교보건복지대학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돌보기 위하여 불심 호스피스 및 간병봉사 전문과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식 및 간병에 대한 교육과 실습을 통하여 가족의 건강관리는 물론 이웃의 고통을 덜어주고 사회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교 육 내 용

- 마음, 만 생명의 근원(마음개발)
- 사회복지와 보건복지
- 말기환자간호 및 통증관리
- 물리치료 및 재활요법
- 호스피스 역사와 철학
- 임종간호와 영적간호
- 음악과 건강
- 경락 이론 및 맛사지
- 심신이완요법(발반사요법)- 3회
- 법문 : 무각스님 (2회), 지현스님
- 인간의 이해 및 봉사자의 자세
- 산모간호와 애기 돌보기
- 기초간호 실습
- 만성질환과 간호
- 생을 초원한 동반자
- 건강증진법
- 건강과 질병(노인간호)
- 한의학 이론과 한방간호
- 병원견학 및 실습
- 거동이 불편한 환자간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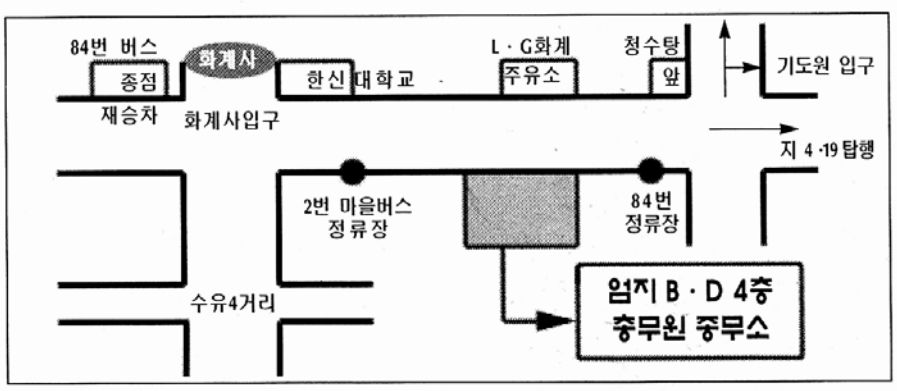
불교복지보건대학

명예회장 성호스님(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회장)
학 장 혜도스님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1163-5 대아빌딩 4층

문의 및 접수
051) 462-5670

총무원 이전 공고

- 주 소 : 우 142-075 서울 강북구 수유5동 440-27 엄지B/D 4층
- 단체명 :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총무원**을 아래 장소로 이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 전화 : 02)998-8161~2
- 팩스 : 02)998-8384



◆화계사 입구 한신대 앞 우회전 첫번째 정류장 하차
◆미아 전철역 하차 - 84번 버스 승차 - 종점에서 재승차 2정류장 청수탕앞에서 하차
◆수유전철역에서 하차 3번출구 - 2번 마을버스 승차 - 화계사 입구 한신대 앞 우회전 첫번째 정류장 하차

※일붕선원내 총무원은 임의 단체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불기 2544년(2000)년 9월 일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법통수호 대책 위원회 위원장 무 공
종정권한 대행겸 총무원장 청 송

사내통신망 새 신행공간 '뿌리'

한전 반야회 등 게시판·홈페이지 운영
불교소식·경전·수행기 올려 신심 키워

한극 전력 본사에 근무하는 이순형(52·원자력건설처 부장)씨는 아침 출근과 함께 컴퓨터를 켜고 빠른 연결로 설정해 놓은 사내통신망 불교동호회인 반야회를 클릭한다. 전국에 흩어진 반야회원들이 오늘은 어떤 글을 올렸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인터넷 서핑도중 발견한 부처님 말씀을 게시판에 올리기 위해서다.

도시철도공사에 근무하는 한범수(52·대공원역무관리소 소장)씨도 하루에 몇 번씩 사내통신망 불교법우회 게시판을 찾는다. 법우회에 대한 최근 소식도 알고 싶고 며칠전에 올린 서산대사의 선시를 몇 명이나 읽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다.

최근 바쁜 업무로 시간을 내기 힘든 직장직능 불자들에게 사내통신망 동호회나 인터넷홈페이지가 새로운 신행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사이버 공간의 동호회를 통해 불자들이 모여 직장내 불자회를 만드는 등 off-line상의 법회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한국전력 반야회(회장 김영창)는 지난 98년 3월 사내통신망 파워넷에 동호회 등록을 하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전력인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의사소통공간을 마련했다. 처음에는 본사에 근무하는 몇몇 불자들이 반야회를 알리기 위해 사내통신망 동호회 활동을 시작했으나 지금은 전국 300여명의 전력인 불자들이 반야회 소식은 물론 불교를 알기 위해 매일 이곳을 방문한다. 사내통신망 반야회는 법회안내 알림방, 불교공부방, 자료방, 대화방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금은 파워넷에 등록된 15개 동호회 가운데 가장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홍기성 한전 본사 반야회 총무는 "동호회에 동참하는 불자들이 연합회 구성의 필요성을 동감해 올해 초파일날 한전 본사, 인천화력, 한일병원, 영광원자력 등 14개지역 한전 반야회로 구성된 전국전력인불자연합회를 결성했다"며 "지금도 보령화력, 부산전력, 평택화력 등 6개 지역 반야회가 창립이 동호회 게시판에서 논의되고 있어 사내통신망이 직장내 불자회 창립 및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도시철도공사 내 불자들은 96년 가을 사내통신망에 법우회라는 불교동우회를 만들고 게시판을 통해 반야심경, 금강경 해설 등 경전이야기부터 개인적인 신앙기까지 올리기 시작했다. 자신들이 불자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불자임을 밝혔고 97년에는 도시철도공사 법우회(회장 이정완)를 정식 창립하기에 이르렀다. 게시판은 지금도 불자뿐만 아니라 6천 도시철도공사 직원들에게 불교를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불교신행회(회장 이영휘)도 회원들이 바쁜 업무로 시간을 내기 힘들어 정기법회를 대신해 올 3월 게시판을 개설하고 복지부에선 처음으로 사내통신망 동호회를 등록했다. 게시판에는 공지사항, 수행기, 신행담, 짧지만 일상을 되돌아볼 수 있는 법담 등이 올려져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신심을 키우고 있다. 또한 봉은사에서 무료 의료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선재마을의료회(회장 강경구)도 인터넷에 홈페이지(www.seonjae.com)를 개설하고 자신들의 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방과학연구소 성불회 등이 직장직능 불자회들이 사내통신망을 통해 직장내 불교를 알리고 있고 한국세무사불자회 등 다수 불자회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 회원상호간의 친목은 물론 부처님 말씀을 대외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불교신행회 총무 강인준씨는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직장인들은 업무시간에 쫓겨 정기적으로 법회에 참석하기가 쉽지 않다"며 "사내통신망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는 바쁜 직장불자들에게 불자회 소식과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들을 수 있는 사이버 법당이므로 앞으로 다른 직장직능 불자회에서도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doobi@buddhapia.com)

◇한국전력 사내통신망 파워넷의 불교동호회 반야회의 홈페이지 초기화면. 법회안내, 불교공부방, 자료방, 대화방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일터에서 쓰는 마음의 편지



김 윤 하
〈수협중앙회 연수원 교수〉

지난 6월 초 점심을 먹고는 회사 근처의 아우내 장터(충남 천안)구경을 갔었다. 아우내는 시골이라 5일장이 열린다. 이런 저런 시장구경을 하다 어느 가게 진열장에 놓인 수박묘종을 발견했다. 어렸을 적 텃밭에 채소심던 생각이 나서 3천원을 주고 수박이랑 토마토 묘종을 사와서 숙소앞 정원 구석에 심었다. 동료직원들과 함께 삽으로 구덩이를 파고 퇴비비료도 넣고 물도 뿌려주었다. 한아름 되는 수박 덩어리랑 주먹만한 토마토가 주렁주렁 달릴 모습을 상상하면서.

비가 며칠 안오면 새벽에 일어나 물도 주고, 토마토 줄기에는 지주대도 세웠다. 그런데 얼마간은 잘 자라는가 싶더니 비가 오니 꽃피고 손톱만큼 달렸던 수박줄기가 녹아 없어져 버렸다. 또한 토마토도 더이상 자라지 않고 열매가 계란만 한게 다섯개 달리고는 끝이었다. 다른 동료가 그 땅에 그렇게 해서 농사가 되겠냐고 할 때 퇴비도 많이 넣고 물도 수시로 주면 금년 여름에는 수박이랑 토마토 파티를 멋있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큰소리쳤던 나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누군가가 잘 크느냐고 물을 때는 대답도 못하고 화제를 돌리곤 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의욕만 앞섰던 것이다.



나는 직장내 불자회를 만들고 법회를 보는 것 또한 지금까지 이런 짓 해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불자회를 한다고 나서고 있는 나 자신이 부처님 진리도 제대로 모르면서 불교를 가르쳐 준다고 초심자들에게 이런 실수를 하지나 않았는지 반성해 본다. 심을 수 없는 척박한 땅에 의욕만 앞세워 퇴비 조금 넣고는 비료도 뿌려주지 않고 물이나 주고있지 않았나 되돌아 보게된다. 물을 주니 땅은 더 굳어지고, 비가 오고 날이 뜨거우니 식물인들 견딜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라도 씨를 뿌리지 않았으면 지금의 불자회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위안을 삼는다.

불법이 다른 데 있지 않다. 법신불은 우주에 충만하다고 늘상 들었지만 그동안 마음에 탁 와 닿지는 않았다.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는 인연법을 수박과 토마토 묘종은 나에게 가르쳐 주었다. 부처님 말씀이 수박과 토마토 줄기에 있었던 것을 모르고 그렇게도 부산히 특별한 데서 찾으려 했던 것이다.

불법을 전함은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다. 나 자신부터 청정하게 하면, 그 가족은 자연스레 불자가 되고, 그 가족이 부처님 법대로 여여하게 생활할 때 주위 사람들에게 불법의 향기가 자연스레 퍼진다. 부처님이 성도 이후 처음으로 5비구를 교화할 때 설법한 내용이 사실이와 다르

"상사·동료 부처로 보자"

지 않다. 나 자신이 청정하려면 참회하고 정진해야 한다. 신·구·의 삼업이 맑아지고, 탐·진·치 삼독심이 없어지면 청정해지는 것이다.

불법을 바로 알고 청정한 삶을 살자. 목련은 화사하다고 뽐내지만 향기가 없어 벌과 나비들이 찾아들지 않으며, 피고 난 후에 떨어진 꽃잎모습들을 보면 언제 화사했냐 싶을 정도로 추하다. 들녘 한켠에 보잘것없이 피어있는 들풀은 은은한 향기를 내어 그 향기 좇아 벌과 나비들이 찾아 들고 꽃이 지면 씨를 맺고, 떨어진 꽃잎은 흔적도 없이 깨끗한 모습을 보여준다.

불법을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온 우주법계가 다 법신불로 충만해 있다. 작은 풀 하나, 굴러가는 돌멩이에도 부처님 말씀이 스며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상사는 물론 동료들까지 모두 불성을 가진 부처님이다. 그들이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부처님의 말씀일수 있고 그들의 행동 하나 하나가 나에게 모범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다 보니 부처님들이 모여있는 직장, 그곳에서의 생활은 활기찰 것이다.

"세무상담·인도 성지순례 추진"

세무사불자회 새 회장 정구정씨



"그동안 고충이 없지는 않았지만 회원들의 많은 성원과 동참으로 불자회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세무사불자회가 회원들의 수행과 친목의 도량이 될 수 있도록 창립당시의 초발심으로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8월 25일 서울 봉은사에서 열린 한국세무사불자회 정기총회에서 제 3대 회장으로 선임된 정구정(47)씨는 "법회에 나오면 얻어가는 것이 있고 재미가 있어야 한다"며 "홀수달은 큰스님법문, 짝수달은 성지순례로 월례법회를 봉행하고 법회시 회원 상호간의 세무정보공유는 물론 세정당국의 관계자를 초빙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해 친목과 신심을 키워나갈 계획"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정회장이 이렇게 당당하게 포부를 밝히는 데는 이유가 있다. 96년 불자회 창립위원장으로 세무사 불자회 창립을 주도했고 지금까지 매달 정기법회에 빠짐없이 참석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불자회의 활성화를 위해 회원들의 애경사에 적극 동참하고 연말에는 인도 8대성지 순례 등을 계획하고 있다. 또 세무사불자회 홈페이지를 구축해 일반시민은 물론 불자기업인들에게 무료상담도 실시할 예정이다.

"불자들끼리 서로 돕지 않으면 안됩니다. 무료세무상담을 통해 부처님 말씀도 널리 알리고 불자들에게 자신이 불자임에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김두식 기자

경기도청불자회 정기법회

경기도청 불자회(회장 이근홍)는 14일 오후 7시 수원 봉녕사에서 정기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에서는 봉녕사 승가대학장 묘엄스님이 설법할 예정이다. (031)249-2001 이근홍

병원불자련 봉사준비모임

전국병원불자연합회(회장 김주효)는 15일 롯데월드 민속관에서 의료봉사 준비모임을 가진다. 이날 모임에는 국립의료원, 경희의료원 등 서울시내 5개 병원 불자회 임원들이 모여 10월 1일 강원도 홍천으로 떠나는 의료봉사에 대한 세부사항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02)958-8113 권혁운

춘천정신병원 불자회 창립

불자의사와 간호사, 일반 종사자로 구성된 국립춘천정신병원 불자회가 16일 오후 2시 병원 강당에서 창립기념법회를 봉행한다. 일산 정혜사 회주 현문 스님이 법문할 이날 창립 법회에는 장동원 병원장을 비롯해 지역사회 인사, 전국병원불자연합회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033)260-3301 이동수

철도청불교협 임원연수

철도청불교협의회(이하 철불협 회장 박창식)는 9월 23~24일 김천 직지사에서 임원연수를 가진다. 철불협은 이번 임원연수에서 전국철도청불자연합회 창립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철불협은 현재 구로, 성북승무사무소, 수색, 용산, 부산, 대전, 제천, 영주, 광주, 청량리 기관차승무사무소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016-352-8320 박창식

MBC불교硏 실상사 순례

MBC불교연구회(회장 장영호)는 21일 여의도불교회관에서 대각사 부주지 언일스님을 모시고 정기법회를 봉행한다. 또한 23일에는 실상사로 성지순례를 떠난다. (02)789-2216 장영호

우리 모임에선

클릭! 새 홈페이지

■내 번뇌의 끝은 어딜꼬?(http://cafe.daum.net/chulga)-9월 6일 개설. 한번이라도 출가를 생각해본 적이 있는 이들의 번뇌 나눔터.

■천수(http://cafe.daum.net/chunsoo)-8월 30일 개설. '선과 종교수행'을 함께 하는 사람들의 의견 나눔의 장.

■부처님사랑(http://cafe. daum.net/BSOL)-9월 4일 개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토의 하는 모임.

■서일불교학생회(http://cafe.daum.net/suillove)-8월 30일 개설. 서일대 불교학생회 동아리방.

■상구보리(http://cafe.daum.net/sanggubori)-9월 4일 개설. 보리심의 명예회원들의 친목모임.

■바르미(http://cafe.daum. net/barumee)-9월 1일 개설. 참선 및 생활불교의 실천적 장으로서 관심 있는 모든 이들에게 개방되어 있다.

*홈페이지를 개설한 불자님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02)722-4162 jygang@buddhapia.com

天然 토종 오가피의 신비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氏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事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줌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延年 不老 仙經藥也(연년 불로 선경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행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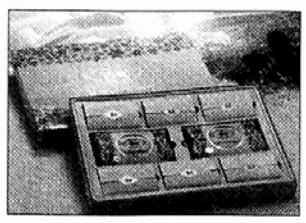
■용네널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현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요.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상담 : (02)447-0047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계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체험사례

생리통·기미 33세된 가정주부입니다. 저의 경우는 약15년동안 허리진통으로 늘 고생해왔고 특히 그 진통으로 인해 저녁엔 깊은 잠이 들지 못하고 깨어있어야만 했습니다. 정형외과, 산부인과, 지압·교정등 치료방법을 해보았지만 진통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우연히 향비를 알게 되었고 향비를 착용한 5일째부터 신기하게도 단 한번의 진통없이 아침까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향비의 착용이라는 것은 생각않고 피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며칠을 두고 관찰해 보니 향비사용으로 저는 생리통이 심하고 색은 아주 검고 양이 패드에 묻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향비를 사용한 그달에 생리의 결과는 놀랍게도 생리통이 없어졌으며 색도 아주 맑고 게끗해 짜증이 나지 않았고 물론 허리의 진통도 감소되었고 양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좋은 향비를 개발해 널리 보급한 고려물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포시 금정동 장 영 희)

※ 전국 대리점 모집중 ※

고려물산·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해당되는 증상에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얼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사 설

관람료 인상 최선인가

조계종이 사찰 문화재관람료를 최고 30%까지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명분은 북한사찰 복원기금 마련, 물가와 인건비 및 관리비용 상승요인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얼핏 생각하기에는 북한사찰의 복원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 물가 상승 요인 등을 반영한다는 것도 당연한 일일 듯 하다.

그러나 다시한번 생각하면 근본적인 곳에 문제가 있다. 우선은 조상의 유산으로 살림을 꾸려가는 체제를 언제까지 계속할 것이냐는 것이다. 새로운 신도를 확보해 그들의 정성이 깃든 시주가 아닌, 손쉽게 조상의 유산을 통해 들어오는 수입으로 사찰과 종단이 운영되는 체제는 결국 적극적인 포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 이런 수입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러한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종단과 사찰의 운영구조는 취약성을 안게 될 것이다.

왜 적극적인 발상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문화재 관람을 위해 찾아오는 국민들에 대한 치밀하고도 조직적인 안내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적극적인 포교를 통해 신도 수를 늘려가는 것이 진정한 불교 중흥의 길이 아니겠는가. 방만하고도 무질서한 사찰 관람의 행태는 귀한 포교의 자원을 헛되이 낭비할 뿐 아니라, 사찰 수행환경을 깨뜨리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사찰을 관광지화함으로써 수행도량의 위신마저도 돌보지 않으며, 관람료를 내고 들어온 사람들에게 문화재 안내 팜플렛 하나 변변히 제공하지 않으면서 관람료만 인상한다면 불자들이나 국민들로부터도 공감을 얻기보다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지 않을지 돌아볼 일이다. 이같은 가운데 참여연대와 이 문제에 관한 소송까지도 걸려 있어 관람료 인상조치가 얼마나 국민들과 불자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불교 문화재는 불교만의 것이 아니다. 온 국민의 것이다. 불교계가 이를 보존하여 전하고 있는 것은 불교의 긍지요 미래불교를 위한 큰 자산이다. 이런 귀한 자산을 통해 당장의 현실적 이익을 얻는데 급급하여 국민적인 저항감을 불러 일으킨다면, 거꾸로 미래 불교의 든든한 바탕이 될 수 있는 많은 신도들을 잃는 큰 손실을 안게 될 것이다. 차제에 종단과 관람료 사찰은 문화재 안내 시스템 개발과 정비 등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조계종단이 문화재 관람료 인상에 신중할 것을 요구하며 이번 기회에 1년에 2천만명이 넘게 찾아오는 사찰관광객들에게 불교를 알리고 불교정신을 심는, 보다 효과적이고 내실있는 포교정책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바이다.

문화재 관리 더 강화

종종 신문 사회면에 올라 우리를 안타깝게 만드는 것이 소중한 문화재의 도난 소식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문화재 도난의 대부분이 불교문화재임을 말할 것도 없고, 그 가운데서도 아직까지 지정을 받지 못한 비지정문화재가 94.8%에 이른다고 한다. 이런 심각한 현실에 비추어 늦은감은 있으니 비지정문화재도 법률적으로 보호하려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니 다행한 일이다. 주로 국가 지정문화재 주변 500m 이내를 보호하는 세부적인 기준과 발굴유물의 국가귀속 체계의 정비 그리고 도난의 근절을 위해 비지정문화재도 지정문화재와 마찬가지로 문화재 사범에게 처벌을 강화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다.

아무리 좋은 법이 있어도 법을 운용하는 사람이나 일반 시민들이 지키지 않으면 휴지조각에 불과할 것이다. 호시탐탐 문화재를 노리는 도둑들에게 철저한 운용으로 경고가 되어야 한다. 열 사람이 도둑 하나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속담을 교훈삼아 우리 국민 모두가 문화재를 아끼는 마음이 발로해야만 문화재를 지킬 수가 있다.

많은 사찰에서 불교문화재를 소장하고 있지만 대개의 경우 보존에 소홀한 느낌이다. 좀더 예산과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명실상부한 문화재지킴이가 되었으면 한다. 소홀한 관리는 도둑의 눈길을 끌어드리는 것과 같다는 것을 깊이 인식했으면 한다. 법이 있으니깐 이젠 안심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 일반 국민에겐 문화유산이지만 불자들에겐 바로 신앙의 대상이란 것을 인식하고 철저한 보존과 관리가 필요하다. 차제에 당해 사찰은 물론 종단차원에서 적절한 예산을 책정 투입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거나 초빙하여 문화재보호법이 잘 운용되도록 만들었으면 한다.

그러나 법만으로 문화재를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통찰하고 우리 손으로 먼저 일구어 가야 한다. 문화재는 그 가치가 돈으로만 환산되는 것이 아니다. 세월과 함께 그 민족이 지니는 자긍심과도 관계가 있다. 우리 민족의 값어치를 부가적으로 높여주는 아주 값진 역할을 한다. 우리 모두가 문화재의 수호자가 되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관광문화 만들자"

'21세기 관광문화 만들기 시민토론회'



◇지속가능개발네트워크한국본부(KSDN)가 7일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 홀에서 개최한 '21세기 지속가능한 관광문화 만들기 시민대토론회' 장면.

생태계와 문화유산을 보전하면서 관광산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수백만평의 대규모 대중관광지를 개발하기 위해 지가가 낮은 산지를 개발하면서 산림생태계가 대규모로 훼손되는 가슴아픈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경주 등 전통도시들은 역사경관을 보전하기 보다는 개발논리에 의해 조금씩 그 원형을 잃어가고 있다. 사찰과 고승 유적지 등 불교유적을 중심으로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벨트 개발도 전통사찰의 수행환경을 위협하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어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이런 모순을 허결하기 위해 지속가능개발네트워크한국본부(KSDN)가 지난 7일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 홀에서 개최한 '21세기 지속가능한 관광문화 만들기 시민대토론회'는 자연과 문화환경의 총체적인 가치를 반영하는 바람직한 관광문화 정립을 모색한 자리로 주목을 끌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지자체가 세수확보 차원에서 무분별한 관광개발을 추진하면서 사찰과의 환경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관광사찰의 바람직한 친환경적 포교방안을 가늠할 수 있는 자리여서 관심을 모았다.

"역사도시보전법 제정"

오민근〈서울대 조경학과 박사과정〉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역사경관은 지방재정확보 수입원으로 전락했다. 개별 문화재 위주의 관련 법규로는 역사도시 보전에 대한 정책적 한계를 노출할 수 밖에 없다.

향토문화유적지의 보전과 역사경관을 고려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역사경관보전 개념이 문화재 위주에서 문화재를 포함한 주변경관으로 확대·전환 돼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역사경관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법적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가칭)'역사도시보전법'을 특별법으로 제정, 역사도시의 경관보전과 관광자원 보전이 가능토록 하고, 지자체의 역사적 경관 특성에 따른 조례가 제정 가능하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문화재보호법상의 보상규정을 강화하고, 역사경관주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실효성이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문화재청의 '부' 승격을 통한 역사경관보전관련 업무의 전담도 필요하다. 문화관광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 흩어져 있는 역사경관 보전관련 업무를 문화재청에서 담당하여, 개발압력에 적극 대처하게끔 해야 한다.

"녹색 여가문화 필요"

김재일〈두레생태기행 대표〉

경주의 역사유적은 다시 1000년 뒤에도 존재할 것이지만, 설악산 국립공원의 모습은 지금의 경관을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생명존중, 생태이해, 민족정서를 뼈대로 하는 생태주의 환경운동 또는 생태기행은 인간중심의 환경운동과 소비향락적 여행풍토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계속 모색되어야 한다.

생태기행이 자주 열리는 이유는 자연과 유리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에게 자연과 단절된 교감의 끈을 복원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제2의 대안교육 방법으로 자연과의 교감을 통한 인성 및 감성교육에 실효가 있다. 또 그 지역의 문화는 자연생태의 결과물이라는 인식아래 지역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도 된다.

그러나 생태기행을 지속가능한 환경해법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생명 존중, 자연에 대한 경외심, 현지인들에 대한 예의 등 '자연에 대한 예의(지침)'와 함께 보다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활성화돼야 한다.

"지역 전통문화 활성"

유상오〈주택공사 도시기획단 부장〉

삶과 문화를 새로운 시대상과 지역상, 환경친화적인 특성과 조화시켜 새로운 유형의 커뮤니티를 구축해야 한다.

새로운 유형의 지역상은 지역전통문화를 보전하면서 미래문화를 창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요 역사문화자원의 복원 및 재현, 보전, 유지, 창조 등이 적극 검토돼야 하며 역사문화와 대안문화의 공유부문을 적극 개발, 인터넷을 통한 지역사회거점 형성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역사경관의 발굴과 보전이 중요하며 가까운 숲이나 자연자원을 보호해 지역특성을 발휘하게 해야 한다.

또 주민 스스로 문화를 개발·조직할 수 있는 행정 지원도 필요하다. 지역별로 문화전문가를 양성하여 최대한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지역공동체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요구된다.

"경제보다 문화가치로"

한범수〈경기대 관광학부 교수〉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자연과 문화를 체험하는 것이 관광의 주된 속성이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주고 문화의 교류를 촉진해 주는 것이 관광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관광의 가치를 경제적인 가치에서 문화적인 가치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때다. 길가에 산재해 있는 돌 하나, 풀 한 포기에도 이 땅에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역사)가 담겨 있음을 인식하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관광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룰 수 있고, 현재의 세대는 물론 미래의 세대가 영구히 그 가치를 간직할 수 있도록 '관광의제 21'이 문화환경의 실천덕목이 되어야 한다.

정리=김재경 기자

■ '지속가능 개발'이란

1980년 세계자연보전연맹(ICUN), 유엔환경프로그램(UNEP), 세계야생생물기금(WWF)이 공동으로 제시한 세계보전전략에서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란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1983년 발족된 '세계환경 및 개발위원회'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자원개발, 투자방향, 기술적·제도적 변화의 방향이 조화를 유지하며 인간의 욕구와 열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현재와 미래의 잠재력을 강화하려는 변화의 과정"으로 정의했다.

목탁소리

종교지도자들의 약속

오 종 욱 〈취재2부 기자〉

"중국 종교 지도자 중에 어릴적 친구가 있었지만, 반갑게 다가갈 수 없었다. 그런 행동이 친구를 곤경에 빠뜨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8월29일 유엔 종교지도자 평화회의장에 달라이 라마의 메시지를 가지고 온 리풍 린포체의 이 말만으로도 티베트와 중국간의 첨예한 갈등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또 유엔 사상 처음 열린 '유엔 종교지도자 평화회의'가 평화라는 궁극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데 국제 정치의 역학 관계가 얼마나 미묘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가도 잘 보여준다.

이날 리풍 린포체 등 달라이 라마 대표단 일행이 메시지를 낭독하자, 중국 종교지도자들은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해프닝'을 연출했다. 달라이 라마가 세계와 티베트인들에겐 종교 지도자지만, 중국 대표단에게는 한낱 '정치적 망명자'이기 때문이다.

이 해프닝으로 두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지도자 모임이 더욱 필요하다"는 적극적인 이해성 의견과 "종교지도자들은 긴장을 해소시키지 못했다"는 제목으로 평화회의 기사를 보도한 로이터통신과 같은 비난성 견해다. 티베트와 중국 종교지도자간에 예상되었던 충돌을 사전에 조율하지 못할 정도로 '무기력'한 평화회의를 향한 비난이다.

이해와 비난, 이것은 서로 상반된 것 같지만, 유엔 사상 첫 종교지도자평화회의라는 점을 감안하면 모두 맞는 말이다. 따라서 종교지도자들이 이번 회의에서 선택한 '평화 선언문', 즉 "세계 종교계는 민족·종교로 인해 발생한 분규에 적극 개입, 해소시키겠다"는 약속을 어떻게 실천하는가에 따라, 로이터통신과 같은 냉소적인 비난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이 8월 31일 평화회의 폐막식 연설에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념이 아니라 그것을 실현하는 실천력이다"며, 1천여 종교지도자들에게 당부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불교계도 이번 회의 참가를 계기로 국가와 국가간의 갈등과 분규를 해결하고 세계평화를 이룩하는데 앞장서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스님께서 직접 만든 명가의 명향

釋氏香方 五分香 · 生氣香

석씨향방은 순수한 향약재료로만 만듭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최고의 공양인 오분향과
어떠한 장소와 행사에도 쓰이며, 특히 건강을 지켜주는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五分香 …

- 효능: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열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 용도
  - 불보살께 예불 기도할 때(향공양을 올려놓고 오분향례를 한다)
  - 제사 지낼 때(천신 · 지신 · 조상)
  - 불결한 장소를 깨끗이하고 싶을 때(악취가 나는 곳)
  - 공포를 느낄 때(사기 · 요마 · 귀신 · 도깨비 등)
  - 조상의 명복을 빌때(상갓집, 영안실)



生氣香 …

- 효능
  -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집중이 잘 되며, - 마음이 안정되고
  - 수면이 순조롭고 피로하지 않습니다. -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 ※ 당뇨 · 중풍 · 폐 · 간 · 심장을 다스리는 대표적인 한약재를 첨가하여 더욱 향의 질을 높이고 향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 용도 - 공부할 때, 집안에 악취가 날 때, 건강을 원할 때



※ 목욕 재개향
· 관불의식, 관욕에 사용
· 어떠한 의식 전후에 목욕함
· 상가집, 영안실 왕래후에 목욕하면 상문살이 침범하지 않는다.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hyangbang.com

▶ 계좌번호: 국민은행 059-24-0341-970
농 협 071-02-257470 예 금 주: 김정순

▶ 전화주문도 가능
▶ 대리점 및 주부 판매사원 모집

☎ 02)3446-8148, 659-8148 공급자: 석씨향방

두통, 신경통, 관절염, 위장병, 고혈압, 수족냉증, 사십견…

기적처럼 낫는다!



'자기의 병 자기가 고치는' 기적의 대체의학

심천 사혈요법

죽은 피(어혈)만 빼주면 모든 병이 물러간다!

인체의 각 장기와 세포들에게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병원균이 들어오면 싸워 물리치는 '피'가 건강하기만 하면 우리 몸은 늙을 이유도, 아플 이유도 없다. 그러나 신장이나 간기능이 떨어지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중금속이 누적되면 생기는 어혈(죽은 피) 때문에 사람은 병들게 되는 것이다.

'심천 사혈요법'은 바로 이 어혈을 직접적으로 빼내어 병의 근본원인을 제거하는, 안전하고도 가장 확실한 자연요법이다.

각종 만성병, 난치병까지도 낫게 하는 '심천 사혈요법'의 그 놀라운 효과를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탈모 변비 근육통 무좀 갈기 요실금 생리통 간질 안과 질환
피부과 질환 혈심증 당뇨병 우울증 간염 지방간 통풍 저혈압

심천 박남희 선생
15년 전 입신수양하면서 인체에 대한 탐구 끝에 심천사혈요법을 창안했으며, 10여년 간의 임상경험을 통해 그 놀라운 치료 효과를 인정받고 있다

심천 박남희 지음 | 값 8,000원 | ※지금 서점에 있습니다

정신세계사 733-3135 www.mindvision.org

청주의 가을 문화 테마 직지심체요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의 정신을 오늘에 이어나가, 새로운 문화 창조의 기반으로 자리매김 하려는 행사가 잇달아 열린다.

직지디지털연구소가 추진하는 '산사에서 열리는 직지체험축제'와 청주시에서 주관하는 '청주인쇄출판박람회'가 바로 그것이다. 이 두 행사 모두 직지를 21세기의 새로운 문화상품으로 인식하고,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16일~10월 3일까지 열리는 '산사에서 열리는 직지체험축제'는 직지신문발행, 직지문화상품 개발 등 직지관련 문화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직지디지털연구소가 청주 대한불교수도원(직지선원)과 공동으로 준비한 행사다. 세계적 기록유산인 직지에 대한 시민들의 정확한 이해와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 일반 시민과 불교의 입장에서 다차원적으로 해석하고 준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직지디지털연구소는 이번 체험축제에서 직지캐릭터를 개발해 첫선을 보인다. 직지심체요절의 편저자인 백운화상, 금속활자 제작을 주도한 석찬과 달담, 금속활자 제작비용을 제공한 묘덕 스님, 직지 홍보알리미 디지털직지 지지, 아날로그직지 아지, 직지책을 캐릭터로 만든 책지, 흥덕사 복원을 꿈꾸는 흥덕사 고인쇄박물관, 철당간 등 20여종에 달한다. 직지디지털연구소는 이들 캐릭터를 바탕으로 10여종의 직지발명노트, 직지캐릭터노트, 직지관찰노트 등의 개발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행사기간동안 직지체험 도량으로 운영되는 대한불교수도원 경내에서는 직지 관련 서적과 인물자료가 전시되며, 직지 관련 인물 스케치 행사도 매일 선보인다. 특히 이번 체험축제에서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4시, 일요일 11시~12시 직지시민선원을 운영해 〈직지심체요절〉에 담긴 선사상을 이해하고, 실제 참선수행법도 익힐 수 있도록 했다. 축제기간 중인 21일 오전 10시에는 직지찾기와 흥덕사 복원을 기원하는 법회가 열릴 예정이며, 30일 토요일 오후 3시에는 직지사경법회도 봉행하는 등 지역 불교계와 불교단체도 적극 참여한다. (0502-0114-119)

청주인쇄출판박람회(www.cippexpo.com)는 문자문화의 지난 천년을 돌아보고, 새 천년의 문자문화를 일궈나가자는 의도에서 22일~10월 22일 청주예술의 전당 일원에서 열린다.

16일~10월3일 직지체험 축제
매주 토·일 직지시민선원 운영
21일 직지찾기·흥덕사 복원 기원

22일~10월22일 인쇄출판박람회
인쇄·출판·정보통신 총망라
직지제작 과정 소개 등 다채



'직지와 고인쇄' '문자 그리고 인쇄출판' '전자출판과 정보통신' '디지털 그리고 미래' 등 4개의 테마를 통해 세계최고의 금속활자본을 찍어낸 고장으로서 인쇄와 출판 그리고 정보통신 등을 총망라한 지식정보의 가치와 비전 제시를 한다는 계획이다.

청주고인쇄박물관에 개설되는 고인쇄마을에서는 직지의 제작과정 및 흥덕사지 유물전, 동·서양의 고인쇄문화 비교전, 금속활자 및 목판의 인쇄과정, 금속활자본 직지 재현과정을 소개한다. 또 인쇄체험마을에서는 대형 그래픽 패널과 활자모양의 입체사진등을 통한 국내외 인쇄역사년표 비교로 세계 인쇄의 역사를 살필 수 있게 하는 한편 한지와 현대종이, 먹과 잉크, 금속활자술 등 직지 탄생의 배경이 된 제지술 제묵술 제금술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제시된다.

〈직지〉 하권의 마지막장을 펴즐로 구성한 직지퍼즐 인쇄, 목판본과 금속활자본 구분법 익히기 등도 운영된다. 금속활자, 직지탁본, 한지, 붓, 벼루 등 한국의 전통인쇄출판 관련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연장도 마련했으며,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직지에 대한 이해를 넓혀줄 인형극 '직지야 어디 있니'도 선보인다. 이밖에 알파벳의 기초가 된 페니키아 문자에서 히브리 아랍문자 등 쉽게 보기 힘든 희귀문자와 한글소리 문자의 원리, 훈민정음 이후 다양하게 변화해 온 한글꼴 등도 전시된다.(043-220-6851)

또한 청주인쇄출판박람회와 때를 같이해 22일~2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는 〈직지심체요절〉의 제작동기와 시대적 상황을 한국적 오페라로 형상화한 창작오페라 '직지'가 공연되는 등 직지를 테마로 한 문화행사들이 올 가을을 장식하게 된다.

오페라 직지는 중국 원나라의 속국이 된 고려민중의 합창 '청산별곡'을 시작으로 〈직지심체요절〉을 만들 때 울려퍼지는 합창 '청주의 하늘은 맑은데' 등 한국적 정서와 회한이 담긴 아리아와 장엄하고도 화려한 불교의식 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은자 기자(ejlee@buddhapia.com)



21개 범종소리 들으니 그윽…맑고 깨끗…숙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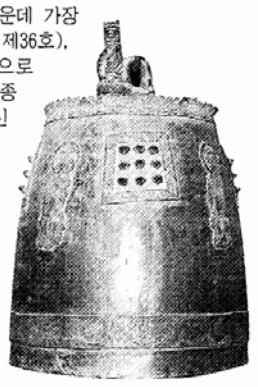
60년대 채록음반 복각 '신라범종'

산사의 어둠을 밝히는 범종소리를 들어보셨나요?

전국 유명 사찰의 다양한 범종소리를 생생하게 담은 CD 앨범 〈신라범종(新羅梵鐘)〉(신나라뮤직)이 나왔다. 직접 산사를 찾지 않고서는 들을 수 없는 오래된 범종의 소리를 한 장의 CD에 담은 이 앨범은 불자들에게는 신심을 증장시키고, 일반인에게는 우리 범종의 아름다운 소리를 감상할 수 있게 해 준다.

이 〈신라범종〉은 서양사학자였던 故 조규동박사(전 서울대 및 중앙대 교수)가 60년대부터 전국을 돌아다니며 채록한 범종소리들을 한데 담은 것으로 신라시대의 3종과 고려의 6종, 조선시대 범종 11종 등 모두 21개 종의 소리를 실었다. 지난 1966년 조박사는 이 종소리들을 EP음반(LP판보다 작은 사이즈)으로 오아시스레코드사에서 발매했으나, 오랜동안 잊혀져왔다. 이것을 지난 96년 범허스님이 발굴해 내 79개 범종소리를 복각해 냈는데, 이번 앨범은 이 복각된 범종소리 가운데 일부분이다.

지금은 실제로 들을 수 없는 것으로 현존하는 범종 가운데 가장 오래된 상원사종(국보 제36호), 에밀레종이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한 성덕대왕신종(국보 제29호), 옛 보신각종(보물 제2호)을 비롯 국보 보물급 범종들의 아름다운 울림을 감상할 수 있다.



이 앨범에는 성우의 해설을 담은 한국어판 CD와 영어판 CD를 함께 담고 있으며, 106쪽 분량의 음반 해설서도 곁들여 한국 범종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과 각 종의 제작경위, 조형미, 음향미에 대해 밝히고 있다. (02)921-0390

이은자 기자

인도철학 배우며 문화기행

EBS '세상보기' 금요강좌

최근 몇년 동안 우리 사회에 인도 바람이 거세다.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도 열풍은 마찬가지다.

과연 인도의 사상이 어떤 것이길래 전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걸까? 이거룡 인도철학 박사가 그 궁금증을 해결해 준다.

인도 델리대학에서 10여년 동안 인도 철학을 연구해 온 그는 지난달 31일부터 EBS-TV 프로그램인 '세상보기'(매주 목요일 저녁 7시 20분~저녁 8시)에 출연해 인도에서 살며 그들과 직접 생활해 온 경험담을 진솔하게 털어놓고 있다.

그는 첫 강의에서 "인도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나라다. 하지만 인도를 다녀온 일부 여행자들이 단순히 겉만 보고 가난하다고 판단하는 등 편견에 갇혀있다. 그것을 벗겨 버리고 싶었다"고 출연 동기를 밝혔다. 이 프로그램에서 이박사는 체념과 초월의 무소유 철학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인도인들을 보며 우리 삶의 뿌리를 다시한번 되돌아 봐야 할 것이라고 충고한다.

손복희PD는 "여름 휴가를 다녀오지 못한 이들에게 명승지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가의 안내로 일반인들이 평소 쉽게 다가설 수 없는 문화여행을 안방에서 즐기게 하고 싶었다"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이거룡 박사가 EBS-TV '세상보기'에 출연해 인도인들의 철학사상과 종교관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21일 방영될 '종교없는 종교, 힌두교'에서는 아침에 눈뜰 때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모든 일과를 신에게 의지하며 종교가 곧 삶인 인도인의 종교관이 소개된다. 또 28일에는 조각 예술의 백미라 일컫는 인도의 '카주라호 사원'과 '코나락 사원'의 벽화와 조각품을 통해 인도 예술에 녹아있는 철학적 의미를 살펴보는 '성(聖)에 이르는 예술 철학'이 방송된다.

김주일 기자(jkim@buddhapia.com)



◇봉화골 칠불암 서면여래좌상.

변명환 사진전 '침묵의 소리'

사진가 변명환씨가 경주 남산을 카메라에 담은 '침묵의 소리' 사진전을 20일~26일 대구 고보갤러리에서 갖는다.

서라벌대학 사진영상과 부교수인 변씨는 이번 전시에서 '오산골 마애불 원경' '봉화골 칠불암 전경' '미륵골 마애여래좌상' '부처골 감실여래좌상' 등 독특한 시각에서 촬영한 남산의 부처님들을 40여점의 작품을 통해 선보인다. 흑백필름에 담긴 남산의 부처와 전경들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으로 표현되었다.

변교수는 전시에 앞서 지난 4일 경주남산사진집 〈바위에 새긴 부처의 세계〉 출판 기념식도 가졌다. 또한 경주 신라문화원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전시(www.silla.or.kr)도 열고 있다. (053)427-5190

문·화·단·신

부산 삼광사 천태합창제

목소리를 모아 부처님을 찬탄하고, 법계를 장엄하는 제3회 천태합창제가 26일 부산 삼광사 지관전에서 열린다.

천태종 전국 42개 불교합창단이 참가해 실력을 겨룰 이번 합창제에는 천태범패보존회 스님들이 특별출연해 범패를 선보일 예정이며, 삼광사 육법공양팀의 육법공양시연과 삼광사관현악단의 불교 관현악곡도 연주된다. (02)576-6401

황남채 판화전 '달빛을 찾아'

판화가 황남채씨의 '달빛을 찾아' 판화전이 15일~10월 7일 미국 시카고 선련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미국, 캐나타, 멕시코 등지에서 한국불교문화를 전파해 온 선련사 국제불교운동본부의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황씨는 산과 강, 나무와 바위, 구름과 하늘을 소재로 참선과 명상, 평화와 행복의 메시지를 담은 작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영화 '최승희' 일본서 개봉

무용가 최승희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다룬 영화 '전설의 무희 최승희'가 지난달 19일 일본 도쿄 이와나미홀에서 개봉돼, 이달 하순까지 상영된다.

이 영화는 일본의 여성 영화 감독 후지하라 도모코씨가 99년 2월부터 1년여에 걸쳐 만든 다큐멘터리다. 영화는 한국 무용가 김매자씨가 일본 국립 근대미술관과 도쿄화랑 등에서 최승희를 모델로 한 그림을 찾는 것으로 시작돼, 무용가 최승희의 독특한 춤세계를 그림과 사진, 당시의 자료 등을 통해 조명한다.

깨달은 여성, 사하조(Sahajo)의 '사랑의 경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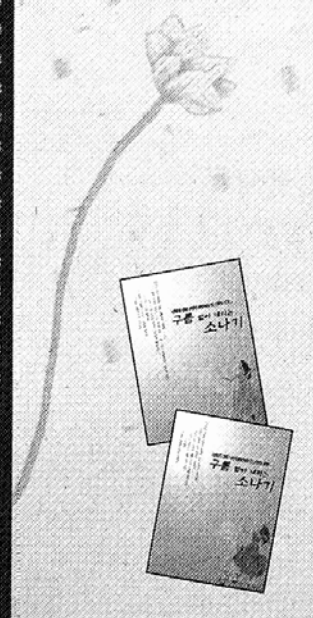
구름 없이 내리는 소나기

신은 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지만,
저의 스승님은 탄생과 죽음의 윤회로부터 저를 벗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신은 저를 욕망과 질병 속에 빠뜨렸지만,
저의 스승님은 저를 제자로 입문시켜서 이 모든 것들로부터 제가 빠져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신은 제게서 그 자신을 숨겼지만,
저의 스승님은 제게 그분을 비추어 볼 등불을 주셨습니다.

저는 저의 스승님, 차란다스의 발 아래
제 자신을, 몸과 마음과 영혼을 바칩니다. - 사랑의 경전 중에서 -



1·2권(신국판 변형)
각 권 7,500원

▶ 깨달은 여성에 대한, 오쇼의 최초 강의로 국내에 처음으로 번역 출간되었다.

이 책은 깨달음으로 가는 여성의 길에 대한, 여성이면서 구도자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사하조와 오쇼, 두 깨달은 존재의 통찰을 담고 있어, 두 배로 풍요롭고 감동적이다. 또한 남성들에게는, 여성을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여성성'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책이다.

* 사하조(Sahajo)에 대해: 18세기 인도 라자스탄(Rajasthan) 지방에 살았던 신비로운 여성으로, 스승 차란다스(Charandas)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헌신으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아름다운 사랑의 시를 지었다고 한다.



신인간을 위한 멀티미디어 쇼핑몰
www.goldenflower.co.kr



* 전화 가입 및 주문도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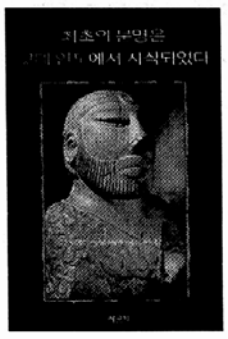
사이트 오픈 기념 특전

① 신비감이 감도는 '신성무(神性舞)' 명상 음악 테잎(5,000원) 무료 증정.
② 무료로, 인도 '오쇼 명상 휴양지(12박 13일)'를 다녀올 수 있는 추첨 기회 부여.
* 대상 - 투어 경비 전액 지원(140만원 상당)
1등 - 투어 경비 50% 지원(70만원 상당) 외 경품 다수
* 추첨일: 10월 16일 * 투어 일정 : 12월 6일(수) - 12월 16일(월)
③ 투어 참가시, 투어 비용 10만원 할인

행사 기간: 10월 15일까지

- 자세한 내용은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

황금꽃 홈 페이지 ; www.goldenflower.co.kr / 전화 : 02)711-4227,8 / 팩스 : 02)711-4229



고고학적 증거
문헌 내세워
인도문명 연대기
'업그레이드'

종교역사 학자-산스크리트어 학자-베다 전문가 주장

"최초문명은 고대인도서 시작"

제목부터 독자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책이 나왔다.

종교역사학자 게오르그 포이어스타인, 산스크리트어학자 수바쉬 칵, 베다 전문가 데이비드 프롤리가 공동으로 쓴 〈최초의 문명은 고대 인도에서 시작되었다〉(사군자)는 고대 인도가 최초의 문명 발상지임을 증명해 나간다. 만약 그들의 주장이 옳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수메르가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는 사실을 뒤엎는 것이다. 우선 세 명의 글쓴이들은 고고학적 증거와 문헌들을 토대로 인도문명의 연대기를 수천년 끌어올린다. 기원전 1900년경 인더스강 유역을 초토화시킨 홍수로 초기 인도문명의 대부분이 땅속에 묻혔다는 것이다. 지질학적 증거들을 살펴보면 이 시기에 대규모 지각변동으로 강줄기가 바뀌어 버렸고, 삶의 기반을 박탈당한 사람들이 북인도 동부 갠지스강 유역으로 이동하면서 역사의 단절이 일어났다는 것이 그 근거다.

최근 발견된 파키스탄 지역의 머가르 유적이 히라파 유적이나 모헨조다로보다 훨씬 앞선 기원전 6500년쯤에 건립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곳에는 아리안 족이 기원전 2000년대에 인도를 침입하면서 가져왔다는 소와 양, 염소, 물소까지도 이미 사육한 것은 물론 기원전 5000년대에 기름이나 솜을 얻기 위해 목화를 재배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는 이곳에서 윤이 나는 산화철 도자기도 발견됐다고 한다.

또한 기원전 6000년경의 천체 모습을 담고 있는 문헌들을 통해 최초의 문명이 인도였음을 주장한다. 기원전 2000년에서 기원전 7000년 이전에 저술된 것으로 추정되는 리그베다의 경우 기원전 6000~7000년의 쌍둥이자리 시대에 해당하는 별자리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책에 소개된 이야기 하나. 베다에서 중요한 숫자로 나타나는 108은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를 태양의 직경으로 나눈 값이라는 것, 힌두인들이 사용하는 염주알이 108개로 되어 있는 이유는 염주를 한바퀴 돌리는 것은 땅에서 하늘로의 상징적인 여행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또한 중요한 숫자인 339는 이 숫자에 원주율을 곱한 값이다. 이는 제단을 설계하기 위한 실제적 용도에서 수학과 천문학이 발달했음을 증명하는 대목이다. 이처럼 이 책은 베다에 숨겨져 있는 수학적인 암호와 천문학적인 암호를 밝혀내고 있다. 이를 통해 글쓴이들은 지금까지 문명의 기원으로 알려진 수메르 문명이 인도문명의 영향권 안에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고대 역사를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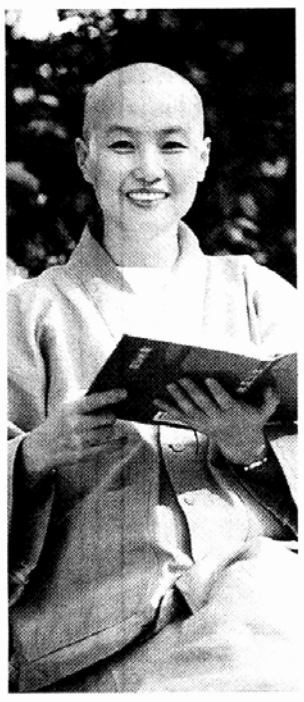
수메르를 문명의 발상지로 간주하는 교과서적인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고고학, 지질학, 언어학적 증거를 제시하면서 고대 인도가 문명의 발상지라고 주장함으로서 앞으로 많은 학문적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값 1만5천원.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어록공부는 선가 필수"

책과 사람

'선가어록' 낸 혜원스님



초기 선어록 어떻게 읽어야 하나. 보통의 불자들에겐 간단치 않은 질문이다. 하지만 혜원 스님(동국대학교 불교학부 교수)의 대답은 명쾌하다. "철저히 당·송시대의 문화와 관습, 생활 등을 토대로한 구어적 해석이 뒷받침돼야 한다." 선종 특유의 정신이 배어있는 직설적 어법이 대부분인 초기 선문헌을 문어체에 의지한 현대적 해석은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지난 96년 번역한 〈선어록 읽는 방법〉(운주사)에 어록을 읽기 위한 한문법을 덧붙이기도 했다.

선어록을 한문원전으로 읽기 위한 문법을 창안해 '선어록 바로 읽기(?)'에 남다른 원력을 세우고 있는 혜원 스님이 첫 결실로 〈선가어록 1〉(운주사, 값 1만원)을 내놓았다. 이 책은 '절관론' '수심요론' '관심론' '조계대사전' 등 4편의 초기 선문헌 해설집이지만 어록공부를 위한 가이드북으로도 손색이 없다. 지난 98년부터 2년여 동안 동국대학교 대학원 선학과 경전읽기 강좌(선전연습)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스님은 언어학적 연구 없이 선어록을 음독하는 것은 선장의 참뜻을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어록의 한문을 문법적으로 읽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 책에 무게를 두는 것도 이런 초기 선문헌의 언어학적 접근이 중국선종사 연구의 선결 과제이기 때문이다.

스님은 또 이러한 선어록 강독은 선가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총림마다 선어록 연구소를 개설하고, 산철에는 큰스님을 모시고 수행을 점검받을 수 있는 법회가 상설돼야 한다는 것. 이러한 불교계의 활동이 없기 때문에 그릇된 선어록 해설집이 난무, 독자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있다고. 결국 불교계가 선어록 강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선불교가 제대로 정립된다는 말이다.

스님이 초기 선문헌 강독에 특별한 애정을 갖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선어록을 읽는 것도 독선(讀禪)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문자를 읽지만 여러 번 반복해서 읽다보면 그 내용이 체화되어 문자를 굴리면서 '불입문자(不立文字) 교외별전(敎外別傳)'의 소식을 알게 된다는 의미다. 그래서 스님은 선전강독에서 학생들에게 학문적 능력과 함께 신심을 강조한다.

스님은 최근 배휴가 규봉종밀에게 선사상에 대하여 문답한 내용을 담은 〈배휴사유문〉을 강독하고 있다. 선어록의 기존 해석법에서 벗어나 새롭게 시도하는 선어록 강독은 시리즈로 계속 출간될 예정이다.

김중근 기자

왜 고기 먹지말라 했나



인광스님 '단박에 윤회를 끊는 가르침'

부처님께서는 왜 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 불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다. 하지만 그 이유를 설득력 있게 밝히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중국 인광 스님의 법문집 〈단박에 윤회를 끊는 방법〉(불광)은 일상에 법문의 초점을 맞춰 계율을 생활화하게 이끈다. 육도윤회와 인과응보 등 교리에 대해서도 언급하지만 우리의 생활이야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마치 옆에 앉아 얘기를 듣는 듯한 서술방식으로 독자를 이끌고 있는 것이다.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한 스님의 법문을 살펴보자. 스님은 단호하게 '패역무도'라고 말한다. 불법의 이치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모든 중생이 과거에 우리 부모였고, 미래에 부처가 될 것임을 안다. 그런데 지금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다해서 어떻게 잡아먹을 수 있냐는 것이다.

사람이나 동물은 모두 똑같이 피와 살로 이루어진 몸을 받았고, 영혼과 심성을 갖고 같은 천지 사이에 살고 있다. 다만 전생의 죄업과 복덕으로 인해 다른 몸을 받았을 뿐이다. 하지만 그 복덕이 다하고 죄업의 과보가 눈앞에 닥치면 다른 동물로 떨어지고, 마침내 사람들의 부림을 받다가 살육을 당할 줄 누가 알겠느냐고 묻는다. 이러한 법문의 요지는 채식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채식이 지계와 자비수행의 밑바탕이라는 것.

보건위생학적인 이유도 빠뜨리지 않는다. 고기를 먹으면 발육성장은 빠른 게 사실이지만, 그만큼 일찍 노쇠해지고 질병에 걸리는 취약 체질의 화근이 되기도 한다. 현대인이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는 걸 보면 안다. 반면 채식을 하면 기혈이 맑아지고 정신도 또렷해지며 자양분도 풍부해 건강장수하고 잘 늙지 않게 된다.

상식같은 이야기 속에 불법의 심오한 이치가 담겨져 있음을 알게 해주는, 앎과 실천을 하나로 만드는 힘을 지닌 책이다. 값 5천원.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게리 스나이더 '야생의 삶'

인간과 자연에 대한 명상



"인간 중심의 사고에서 비롯되는 집착에서 벗어나 모든 생명공동체의 일원이 될 때, 인간은 자연의 본성인 야성을 회복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생명공동체의 서식처인 자연 전체를 우리의 탄생지이고 집이며 무덤으로서 경건하게 받아들여, 우리의 생명을 지상의 모든 생명으로 확대할 수 있는 것이다."

퓰리처상 수상 시인이자, 미국을 대표하는 반문화주의자인 게리 스나이더(70). 그가 캘리포니아의 원시적 자연에 몸을 담고 야생의 삶을 살아가며 펼쳐 보이는 인간과 자연에 대한 명상에세이집 〈야생의 삶〉(동쪽나라, 이상화 옮김)이 우리말로 출간됐다.

이 책은 자연과 야성 그리고 야생지를 말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은 결국 인간을 말하기 위함이다. 자연에서 태어난 인간은 본질적으로 야성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인간은 악하고 자연은 선하다는 서양철학 특유의 맹목적인 이분법적 구분을 포기한다. 대신 모든 살아있는 생명 속에 본래 깃들어 있는 아름다움을 볼 것을 제안한다.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어 냈다는 오만을 버리고, 보다 겸허한 마음으로 자연이 들려주는 노래에 귀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자연이 들려주는 노래에 귀기울일 때, 우리 모두가 갈망하는 새로운 삶의 가능성은 구체적인 형태로 우리 앞에 다가온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새로운 가능성이 바로 야생의 삶이라는 것이 이 책의 핵심적인 메시지다.

이러한 글쓴이의 사상적 바탕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일시적이고 덧없으며 끝없이 변화한다는 불교의 세계관과 일치한다. 값 9천원.

김중근 기자

새로나온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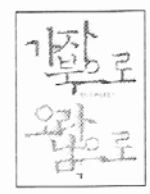
▲만해 한용운 논설집(만해사상실천선양회 엮음, 장승)= 만해 스님의 〈조선불교유신론〉을 비롯 불교관련 논설과 〈조선독립의 서〉등 우국논설을 집성한 책. 세계사의 변화에 대비 불교의 개혁을 주장하고 있는 '불교유신론'은 승려교육·도심포교·대중불교 등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있다. 이러한 스님의 '불교개혁론'은 오늘날에도 되새겨 볼만하다 이밖에도 선교일치, 호국불교, 보살관 등에 대한 불교·우국논설 24편은 그 시대의 정신을 살피는 데 도움을 준다. 값 1만원



▲화엄사(글=정병삼·김봉렬·소재구, 사진 손재식)= 대원사 '빛깔 있는 책들' 시리즈 불교문화권 45번째 권. 1천년 화엄의 성지 구례 화엄사의 역사와 건축 그리고 유물들을 일목요연하게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의 도드라진 특징은 읽는 것과 보는 즐거움을 동시에 만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짧은 글과 사진이 조화롭게 구성된 이 책은, 답사길잡이로도 활용할 만하다. 값 4천8백원.



▲불교상담(방기연 지음, 조계종출판사)= 서구 상담이론의 중요한 흐름인 정신분석, 행동수정, 인간중심 그리고 인지적 접근들을 살피보면서 불교상담의 의미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1장에서는 불교상담이 무엇인지를, 2장에서는 1장에서 정한 불교상담을 실제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상담자의 자세와 상담방법들을 다루고 있다. 3장에서는 불교 교리를 실천관점에서 간추렸고, 4장에서는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은 불교상담으로 다루어 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값 1만원.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황석영 지음, 이룸)= 작가 황석영 씨의 북한 방문기. 지난 89년 북한을 방문하면서 보고 느끼고 반성했던 마음을 적었다.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어야만 했던 우리 민족이 서로 미워하고 헐뜯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감동으로 다가온다. 방북 후 독일 미국 등지에서 체류해야 했던 황석영 씨가 여러 매체와 인터뷰한 내용도 싣고 있다. 값 8천9백원.



▲불꽃 속의 명상(만성 스님 지음, 초롱)= 묘지문화는 어떻게 시작됐으며,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매장이 사라져야하는 이유들을 영혼의 세계와 우주의 이치, 인과법칙에 따라 설명한다. 특히 이 책에서 주목할 것은 매장과 화장의 득과 실을 비롯 매장의 열 가지 나쁜 점과 화장의 열 가지 이익, 천도를 해야하는 이유 등이다. 값 7천5백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선방일기	지 허	여시아문
2	심천사혈요법	박남희	정신세계사
3	만행-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	현 각	열림원
4	불교란 무엇인가	최봉수	부디스트닷컴
5	마음을 비우면 세상이 보인다	달라이 라마	문이당
6	집착을 버리면 행복이 보인다	일 타	불교시대사
7	전통사찰음식	적 문	우리
8	전생가기 참 쉽다	설기문	도솔
9	영가천도	우 룡	효림
10	이른 아침 나를 기억하라	틱낫한	지혜의 나무

도서 안내:(02)737-0695

명의 허준의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한

TV 동의보감



KBS-2 TV 전국은 지금에 방영된 《동의보감》의 내용 소개

동양 최고를 자랑하는 명의(名醫) 허준(許浚) 선생의 《동의보감(東醫寶鑑)》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가정한방 필독서이다. KBS-2 TV 〈전국은 지금〉을 통해 300회 넘게 전국에 방영 소개된 내용을 프로그램 연출자였던 저자가 한 권으로 엮었다. 또한 기타 종합한방의서의 비방도 수록했다. 각종 질환별로 나누어 상세한 치료법이 담겨 있다.

황인형 엮음 / A5신 / 334면 / 10,000원

사찰음식을 대중건강식으로 한

한국사찰음식



우리나라 최초로 사찰음식을 대중건강식으로 한 요리법과 사진 수록

깊은 산중 절에서나 맛볼 수 있는 사찰음식을 가정의 식탁에서도 맛볼 수 있게 되었다.
사찰음식을 대중건강식으로 소개한 최초의 책으로
솔향 풍기는 사찰음식의 상세한 요리법과 맛깔스러운 컬러 요리사진을 수록했다.

명산 고찰의 유명한 사찰음식 총망라

유서깊은 산사에 전하는 독특하고 유명한 사찰음식을 총망라했다.

김연식 지음 / 4·6변형 / 올컬러 / 156면 / 13,000원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전통사찰음식

한국전통사찰음식문화연구소장 적 문 스님의

4인 기준 요리법

적문 지음 / 4·6변형 / 올컬러 / 176면 / 13,000원



과도한 육식과 기호식품에 탐닉한 나머지 예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요즘, 오신채(마늘, 파, 달래, 부추, 흥거)를 넣지 않은
담백하고 정갈하며 맛과 영양이 우수한 사찰음식이 최근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전통 사찰에서의 조리과정은 일반인들이 그대로 따라하기에
다소 어렵고 생소하다.
《전통사찰음식》은 옛부터 전승해 온 맛갈스러운 사찰음식을 사계절로 나누고,
4인 기준 정량을 표기하여 요리에 자신이 없는 초보자들도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게 하였다.

우리출판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1-38 전화 (02)313-5047, 5056 팩스 (02)393-9696

법계관문(法界觀門)

"화엄종 실천 수행법이다" "화엄세계 설명 이론일뿐"

불교학연구회 발표회서 뜨거운 논쟁


◇신규탁 교수


◇이호걸 교수


◇본각 스님



◇2일 승가원 2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불교학연구회의 제1차 월례발표회 모습.

'법계관문(法界觀門)'은 화엄종의 수행법인가, 아니면 화엄의 세계를 설명하는 이론일 뿐인가. 2일 불교학연구회 제1차 월례발표회장은 이에 대한 논쟁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 논쟁은 '법계관문은 화엄종의 수행법인가?'라는 신규탁(연세대 철학과) 교수의 논문 발표에서 비롯됐다.

이 논문에서 신 교수는 "법계관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법은 그 자체가 실천의 방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불·보살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불법 실천'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일종의 이론"이라고 주장했다.

법계관문은 화엄종의 초조(初祖)인 종남두순(終南杜順) 선사의 글로,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화엄경〉에 수록된 '보현행원품'과 함께 화엄종도로서 진리를 깨닫고 실천하는 방편을 소개한 화엄종 특유의 '수행 지침서'로 보고 있다.

그런데 신 교수에 따르면 수행법이라 함은 반드시 열반의 체득이나 번뇌로부터의 해탈과 같은 궁극적인 목적이 설정되어야 하는데, '법계관문'에는 이와 같은 궁극적 목적이 설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법계관문'에서 다루고 있는 세 가지 관법인 진공관(眞空觀)·이사무애관(理事無礙觀)·주변함용관(周遍含容觀) 등은 화엄의 세계관을 이해하고 발심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지, 실천의 방편을 낱낱이 알려주는 수행의 지침은 아니라는 것에 신 교수는 힘을 실었다. 법계관문이 선종의 참선수행·천태종의 지관수행·밀교의 진언수행 등과 같은 화엄종의 대표적인 수행법이라는 데 반기를 든 셈이다.

이에 대해 논평에 나선 이호걸(안동대 철학과) 교수는 "법계관문은 깨달음을 좇는 불교적 수행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다"며 "신 교수와 같이 행(行)만이 불교의 수행으로써 실천이고, 해(解·이해)와 신(信·발심)은 실천적 수행이 아니라는 말은 교학에 경도된 태도"라고 반박했다. 화엄의 세계관을 체화하는 과정인 이해·발심·실천 등의 단계는 두부 모 자르듯 명쾌하게 구분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즉, 화엄의 세계에서 수행 체계는 원인과 결과가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인과원만(因果圓滿)에 중점을 두고 있어, 법계관문은 보현행원과 같이 실천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각(중앙승가대 교수) 스님 역시 "법계관문은 공색(空色), 이사(理事), 회귀(會歸) 등의 용어로 짜여져 이론서처럼 보이지만, 그 글의 목적은 합일의 경지에 나아가는 실천 수행에 있다"며 신 교수의 주장을 비판했다. 화엄관법에 대한 명확한 이해의 부족에서 오는 개념의 혼란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 교수는 "관(觀)이라는 글자에 미혹하여 법계관문의 '관'자를 '지관(止觀)'이나 '위빠사나'에 끌어 붙여서는 안 된다"며, 법계관문은 화엄의 세계에 이를 수 있는 실천을 이론화한 것이라는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화엄의 세계는 실천으로 만들어진다는 데 이견을 보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보현은 법계로서 몸을 삼는다" 등과 같이, 일반 사람은 두말 할 것도 없고 학자나 수행자까지 혼란스러울 정도로, 경전에 기록된 화엄의 세계는 추상적이다.

신 교수의 '법계관문은 화엄 교학'이라는 주장에 대한 국내 화엄 학자들의 논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중들이 쉽게 다가설 수 있는 화엄의 세계관이 도출되기를 기대해 본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조계사 대웅전 서울시 문화재 지정

조계사 대웅전이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최근 문화재위원회 제1분과위원회(위원장 안봉원 경희대 교수)를 열고 10일 조계사 대웅전을 시유형문화재 제127호로 지정했다.

문화재위원회는 "조계사 대웅전은 20세기 전반기에 있었던 최대의 공사를 통해 탄생한 대표적인 근대 건축물로 규모나 미적인 면에서 최고의 목조건물"이라고 밝혔다.

단층다포식 팔작지붕으로 된 조계사 대웅전은 정면 7칸, 측면 4칸 규모로 전북 정읍에 있던 증산교 일파인 보천교의 본당건물을 1937년에 옮겨 지은 것이다. 건물의 첨차모양이나 첨차에 올려진 연꽃과 공포내부의 첨차 조각 등은 조선 후기의 양식적 특징을 잘 보여준다. 일제시대에 건립되었지만 일본식 구조나 의장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으며 경복궁과 덕수궁 등 궁전건물을 참고하여 세웠다.

조계사 대웅전은 특히 조선시대 승려도성입성 해제 이후 총본산 건립운동으로 지어진 건물로 근대 불교의 역사를 대변하고 있다. 서울시 문화재위원인 문명대 교수는 "당시 전 불교계가 합심하여 종단차원에서 조성했다는데 불교사적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조계사 대웅전 내 목조석가불좌상(제125호)과 후불탱화(제126호) 역시 지난 7월 시유형문화재로 지정된 바 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고려말 불교 혁신세력 조선 건국 결정적 역할"

황인규 박사 '고려말 이성계…'서 주장



이성계의 조선왕조 건국은 고려말부터 불교계 혁신세력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구체화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화제의 논문은 황인규(동국대 강사·사진) 박사의 '고려말 이성계의 불교계 세력기반'.

1361년부터 1408년까지 이성계의 행보를 중심으로 불교계를 고찰한 이 논문에서 황 박사는 "무학 스님은 새로운 왕조의 창업을 종용하고, 신조 스님은 위화도 회군 당시 군사적 전략을 조언할 만큼, 고려말 불교계 혁신세력은 조선왕조 건국의 결정적인 세력이었다"고 강조했다.

황 박사에 따르면, 무학 스님은 1384년(우왕 10) 무렵에 석왕사에서 이성계에게 신왕조를 창업할 것을 종용하였는데, 이 같은 기록은 〈용비어천가〉 제29장과 〈석왕사기〉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무학 스님이 정도전보다 먼저 이성계를 혁명의 선두로 이끈 최초의 모의자인 것이다.

또한 공민왕 당시 천태종의 대표 승려이면서 이성계와 함께 요동정법에 나선 신조 스님이 1388년 위화도에서 회군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기록이 권근의 〈양촌집〉 중 '수원만의사축상화엄법회'에 나오는 데 주목한 황 박사는, "신조 스님은 이성계의 군사적 기반을 형성했던 핵심 참모"라고 추정했다.

이외에도 황 박사는 각종 정·야사의 문헌을 토대로, 위화도 회군 이후 고려 말 정치적 군사적 실력가 된 이성계가 무학·신조 스님의 도움으로 조계종과 천태종의 개혁세력을 결집한데 이어, 조선 초기에는 환암·찬영·지천·설오·조생·조선 스님 등과 함께 불교 폐단을 막는 개혁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던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대해 황 박사는 "이는 사상적으로도 무신집권기 새로운 불교혁신운동을 주도하였던 수선사결사와 백련사결사정신을 되살린 또 하나의 불교혁신운동이었다"고 의미를 찾았다.

논문의 결론에서 황 박사는 "이성계는 불교계를 신왕조 건국의 또 다른 기반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이러한 지분으로 태조 당시 국사·왕사제가 운영되었고 향후 성리학적인 질서를 민중에게 보급 확산시키는데는 건국 후 두 세기를 넘겼다"고 덧붙였다.

오종욱 기자

학술 단신

보조사상硏 월례발표

보조사상연구원은 9월 23일 오후 2시 30분 서울 법련사 3층 세미나실에서 제33차 월례발표회를 마련한다. 이번 발표회에선 서울교대 철학과 강사 송진현 씨가 '원효의 화쟁적 윤리관'을 주제로 발표하고, 김성철(가산불교문화연구원) 씨와 이병욱(고려대 철학과 강사) 박사 등이 논평자로 나선다. (02)733-5335

일본 법륭사 학술대회

불교미술문화재연구소(소장 문명대)는 30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삼국시대 불교미술이 전해져 국내 미술사 연구에서도 중요한 일본 법륭사에 대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법륭사의 미술연구 현황(오오하시 와세다대 교수)' '법륭사 금당건축의 교류관계(이강근 경주대 교수)' '법륭사 보물과 백제조각의 관계(곽동석 공주박물관장)' 등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아시아 투어

앙코르 와트 등 불교유적 감상

불상, 연꽃 등 불교 상징물들이 조화롭게 자리잡아 있는 앙코르 와트. '아시아 투어 사이트'를 방문하면 8세기 말부터 15세기 중엽까지 캄보디아 전역은 물론 현재의 베트남, 라오스, 태국까지 지배했던 강력한 크메르 왕국이 세운 앙코르 와트와 인근 불교 유적을 한눈에 살필 수 있다.

여기에는 사원의 관문인 토레사프 정글과 앙코르에 이르는 길 그리고 앙코르 내·외벽에 정교하게 새겨진 불교 조각품들까지 소상히 소개하고 있다.

앙코르 와트(Angkor Wat)는 시엠립에서 북쪽으로 약 6킬로미터에 위치해 있으며 앙코르의 유적 중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편이다. 장대한 '규모와 균형, 조화 그리고 섬세함에 있어서 최고로 꼽힌다. 앙코르(Angkor)는 '도읍'이라는 뜻이고 와트(Wat)은 태국어로 '사원'이라는 뜻으로, 앙코르 와트는 '사원의 도읍'이라는 말이다. 앙코르 대부분의 사원은 동쪽을 향하고 있는데 비해 이 사원은 서쪽을 향하고 있다. 해가 지는 서쪽에 사후세계가 있다고 보고 왕의 사후세계를 위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 이 사원은 소야바르만 2세(1112~1152)에 의해 12세기 전반에 약 30년에 걸쳐 건축됐다.

앙코르 와트의 구조는 인도의 우주관에 입각한 우주의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중앙의 높은 탑은 우주 중심의 메루산의 정상이며 주위의 5개의 탑은 주변의 봉우리들을 상징한다. 외벽은 세상 끝에 둘러쳐진 산을 의미하며 인공호수는 '바다'를 의미한다. 이 인공호수의 폭은 약260미터, 길이는 약 5.5킬로미터 달한다. 이 호수를 건너기 위해서는 나가(naga) 난간을 따라 이어지는 250미터의 사암다리를 건너야 한다.

앙코르 유적은 왕국이 멸망한 지 430년이 지난 1861년 프랑스의 탐험가 앙리 무어에 의해 비로소 서방세계에 알려졌다.

그러나 신비한 앙코르 유적은 오랜 세월 약탈과 도굴로 얼룩졌다. 크메르 왕국의 후예들이 내전을 겪던 1970~80년대에는 더욱 많은 보석과 조각상들이 탈취당했다. 군인들은 탑과 조각을 사격연습의 표적으로 삼기도 했다. 지금은 유네스코가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지정해 곳곳에서 복원작업을 벌이고 있다. 멀리서 보면 웅장하고 가까이서 보면 빈틈없이 정교한 앙코르 유적, 그것은 인간이 최고의 신기(神技)를 부려 창조해낸 현란하고 황홀한 예술 작품이다.

이외에도 바꽁, 닉 뻔, 번떼이 끄데이, 따 쁘롬, 쁘레아 빨리라이, 뗍 쁘라남, 앙코르 톰 등 크메르 왕국의 자야바르만 7세에 의해 지어진 불교 유적에 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http://www.asiatour.com/cambodia



새천년, 미얀마에서 전해온
부처님과 그 제자들의 이야기!

아난 존자의 일기 1-4



원나 시리 지음, 범라 옮김
신국판/각권 306쪽/각권 8,000원

아난 존자가 일생 동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부처님과 그 제자들의 생생하고 감동적인 생애!

아난 존자는 출가 후 부처님이 열반에 드실 때까지 부처님을 시봉들던 제자이다. 따라서 이 책은 부처님의 행적을 가장 잘 알고, 부처님의 법문을 가장 많이 기억하고, 부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읽고, 부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였던 아난 존자가 전하는 부처님과 그 제자들의 감동적인 이야기이다.

철저히 경전의 기록에 근거한,
새로운 형식의 부처님 일대기와 그 가르침!

이 책은 방대한 빠알리 원전과 주석서, 소초 등에 근거하고 있으며, 한편으로 부처님의 숨결과 수행방식이 아직 그대로 전승되고 있는 미얀마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기존의 부처님 일대기와는 다른 새로운 감동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1가 51번지 타운힐빌딩 3층 ☎ 3672-7181-5

철학박사 慧江 朴永玉 지음

지금은 지장보살시대



지장기도의 영험

지장기도 영험록

영가천도는 왜 해 주어야 하는가?
영가의 장애를 받으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지장기도를 하면 어떠한 공덕이 있는가?
지장기도의 위력에 대한 능력과 인간의 길흉화복을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지장보살님의 위대한 원력과 능력을 되새겨 본다.

— 박 혜강 —

값 : 8,000원

우리 대부분의 불자들은 영가왕생발원인 천도재를 올릴 때만 지장기도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장보살은 십지보살이며 지옥 중생을 모두 제도하시고 현세에서 고통 받는 중생들까지도 대자대비로 인도하고 구제하시는 보살입니다. 지장보살! 지장보살! 하늘과 땅이 울리고 뼛속 깊은 곳의, 저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는 음성!
지장보살님이시여! 현세에서 겪고 있는 모든 고액과 고난이 어디에서 올까요? 혼히 말하는 전생의 업장이라고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불자님들은 이 세상의 힘든 모든 일들이 나의 업이려니 하고 체념할 뿐, 다른 돌파구를 찾으려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현세에서 받는 고통 가운데 50%는 자신도 모르게 지은 전생의 업이고, 나머지 50%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연을 맺은 수많은 인연법과 수많은 조상님의 영향이 아니라고 어느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불자님들의 답답함에 속시원히 해결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많은 기도를 하면서 부처님의 위신력이야말로 어떠한 글과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 불자님들의 신앙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 두서없는 글로 인하여 부처님이 욕되지 않기를 빌고 또 빌 뿐입니다.

■저서/초발심자의 기초교리 지금은 지장보살시대

대한불교 관음사 관음불교 교양대학
주지 학장 혜강 박 영옥합장
서울시 성북구 성북2동 116의 1호
TEL : 02)917-3854, 917-0408
FAX : 02)3675-3854

총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1가 51 타운힐빌딩 3층
TEL : 02)3672-7181~5
FAX : 02)3672-7186

스포츠에도 인생도리 있다

박태원 교수가 쓰는 〈4〉
불교로 보는 인생

박찬호의 마음공부

인간은, 아니 오직 인간만이 스포츠에 몰입한다. 게임과 기록 경신 속에서 인간만이 높은 성취감과 보람을 맛본다. 눈길 한번 안 가는 풀 한 포기, 들꽃 한 송이에도 우주의 도리와 면모가 고스란히 담겨 있음을 알리는 부처님 연기법(緣起法) 그 화엄(華嚴)의 소식에 비추어 보건대, 스포츠 게임 한 장면 한 장면에는 인생의 모든 사연이 알알이 담겨 있을 터. 게임 속에서 삶의 도리를 읽기에, 기록 경신의 과정에서 인생의 법칙과 지혜를 터득하기에, 인간은 스포츠에 열광하며 환호한다.

자타가 인정하는 지구촌의 맏형 미국. 그 잘 나가는 미국인들의 시선을 거의 일년 내내 붙들어 놓는 것이 메이저 리그다. 그러니 메이저 리그의 스타가 미국인들의 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다. 그 메이저 리그의 확실한 스타로 자리 잡은 박찬호이기에, 그를 향한 한국인들의 갈채와 자랑스러운 눈길은 각별하다. 미국이라면 괜히 주눅들곤 하는 한국인들이기에, 찬호가 뿌리는 공이 내로라하는 큰 몸집의 미국의 야구 선수들을 헛방망이 돌리게 할 때마다 오래된 체증 풀리는 듯한 쾌감을 맛보곤 한단다. 일종의 열등감의 표현이요, 속 좁은 민족주의적 감상이라고 힐난해도 좋다. 부당하게 짓눌리던 자존심이 찬호의 공 하나 하나에 기를 편다는 범인의 말들에 굳이 토를 달고 싶지는 않다. 얼핏 유치해 보이는 그들의 감정 밑바닥에는 한반도 근대사의 그 모진 우여곡절이 켜켜이 쌓여 있음을 어찌 무심히 간과하랴.

그런데 인간 박찬호의 내면이 새삼 눈길을 끈다. 그 텃세 센 미국 본토 야구에서 조금도 굴하지 않고 정상을 향해 힘차게 정진하는 그의 강인한 정신력과 불굴의 투지는 진작부터 인상적이었다. 무언가 분명 크게 남다른 구석이 있지 않고는 그런 성취가 불가능한 법. 얼마 전, 궁금했던 그의 속내를 엿볼 수 있는 정보를 접하고는 '아하! 역시 그랬구나!' 며 고개를 끄떡거렸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리고 필요한 건 정신과 마음이지요. 야구는 정신력이 중요한 정신적 게임이니까요.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느냐에 따라 우리는 바른 생각을 할 수 있고, 바른 생각은 바른 행동을 만들지요. 바른 생각이란 긍정적인 생각+자신감이지요. 긍정적인 생각과 자신감은 늘 즐거움을 만들 듯이 야구에서는 꼭 필요한 마음가짐이지요. 자신감! … 상대 타자를 아웃시켜야 된다는 자신감도 좋지만, 근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지요. 경기 전 타자에 대해 연구하다 보면 어떤 공을 던져야 할지 알게 되고, 마운드에 올라서면 오로지 어떤 공을 던질까 생각하고, 구질이 결정되면 오로지 1구만 생각해 1구에 집중했을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요. 사생활의 안정도 절대적이지요. 인간의 근본은 좋은 가정, 좋은 사생활의 습관에서 얻어지고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편안한 마음과 육체는 안정된 생활에서 얻을 수 있고, 그러면서 만사에 자신감이 생겨나지요. 요즘 내가 마음 공부에서 얻은 생각들이죠. 나의 영원한 목표는 최고의 1구를 던지는 거예요.… 나의 목표는 삼진도 아니고 승리도 아니며 20승도 아니고, 비록 공 하나지만 1구 1구를 집중하는 것이지요.' (박찬호가 중앙일보 이태일 기자에게 보내온 편지)

긍정적 생각·자신감이 승리비결
'지금 바로 여기' 집중이 곧 참선

박찬호의 말은 팔정도가 아니던가? 평생 상대해야 할 인생을 깊이 연구하면 어떤 길을 선택해 걸어야 할지 알게 된다. 바른 길에 대한 안목, 정견(正見)이 수립된다. 이 정견이 갖추어지면 자신감이 생긴다. 길과 그 목적지에 대한 만족과 확신에서 오는 자기 긍정이다. 발걸음이 당당하고 경쾌해진다. 삶이 즐거워진다.

바른 생각과 자기 긍정은 올바른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올바른 언어 생활(正語)·올바른 행동(正業)·올바른 직업 생활(正命)이라야 정견과 자신감이 유지되고 힘을 받는다. 이렇게 되면 참선(正念)이 순조로워진다. 이미 지나간 과거사나 오지 않은 앞일에 생각이 매여 '지금 바로 여기(卽今)'를 놓쳐버리면 영락없는 중생. 시간과 공간의 이런저런 바깥 경계로 휘말려 나가지 않고 '지금 바로 여기'의 마음 상태를 챙겨 가는 것은 해탈을 향한 참선 수행의 핵심 포인트. 오직 지금의 호흡, 지금의 걸음, 지금의 동작, 지금의 느낌과 마음 씀씀이로 돌아와 '동요 없는 현재'를 살아간다.

좋은 사생활로 뒷받침되는 바른 생각과 자신감으로 승패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1구'에만 집중한다는 박찬호. 그는 실로 훌륭한 불교 수행인이다. 부디 지금의 마음 공부를 계속 유지하시길. 그대의 목표인 '최고의 1구'는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바로 지금의 마음(무집착의 현재심)'을 성취할 때 이루어지리다.

울산대 철학과
(twpark@uou.ulsan.ac.kr)

리오 그란데 통해 북미불교 유입

세계의 불교학 〈26〉 멕시코 ①

달라이 라마 방문후 티베트 불교 확산
수행센터 20여곳…참선·명상공부 열기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을 가르는 리오 그란데 지역. 1979년 티베트의 종교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이 지역을 다녀간 이후, 이 지역은 불교가 북미에서 남미로 유입되는 교두보로 서서히 자리를 잡아갔다. 20여 년 간 이 곳에서 개원된 불교교육·수행센터는 게규 쉐궨 티베트 불교 연구소, 타라 만달라 센터, 산타페 위빠사나 등 20여 개를 넘고 있다는 점만 보아도, 이 같은 사실을 잘 반영해 준다.

지난해 말 트라이시클과 인터뷰를 했던 원주민 지도자 구아다루페 초사(Guadalup Chosa)는 "리오 그란데 지역은 거대한 계곡과 사막이 이어지면서 멕시코의 시에라 델 칼멘 부근을 가로지르고 있는데, '마음 안의 자신'을 찾는 순례자들이 이 곳으로 이주해 오면서 이 지역 사람들의 마음에는 적잖은 불심이 있다"며 수십 년간의 변화를 이렇게 설명했다.

이 곳에서 지역 사람들에게 초발심의 계기를 만들어 주는 데 주력하고 있는 불교교육센터를 꼽자면 단연 '게규 쉐궨 티베트 불교 연구소'다. 1979년 달라이 라마 방문 이후 티베트 불교의 주요 종파인 게규파에서 설립한 교육의 장인 이 연구소는 티베트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수행을 가르치고 있다.

현재 이 연구소에 살고 있는 8명의 티베트 스님은 7시부터 40분간 아침기도, 8시 공양, 8시30분부터 11시까지 명상, 11시부터 12시까지 경전 강독, 12시 점심공양, 12시30분부터 14시까지 휴식, 14시부터 17시까지 티베트인과 원주민 어학·종교 교육, 19시부터 저녁식사 등으로 하루를 보낸다. 티베트 스님들은 이 중에서 명상과 경전 강독 그리고 종교 교육 시간에 일반인들도 참석시킨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는데, 리오 그란데 지역민들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다. 수행자들은 전문적인 지식과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경전 연구 등이 가능하겠지만, 일반인들 특히 리오 그란데 지역 주민과 같이 분주한 생활 속에서 전통적인 교학을 공부하기는 어려운 탓이다.

이 지역의 불교세를 집중 보도한 트라이시클 기사를 보면, 실제로 이 지역 사람들은 경전 읽기보다는 참선과 명상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교리적 지식보다 수행과 실천을 중시하고 있다. 즉 율장의 이해보다 실제적인 계행의 생활화를 중시하고 말과 앎보다 행동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1979년 리오 그란데를 방문한 달라이 라마가 이곳 원주민 지도자 구아다루페 초사를 만나는 모습.

리오 그란데 원주민의 민속을 연구하고 있는 프랭크 코롬(산타페세계민속박물관 큐레이터) 박사는 "티베트 스님들은 이제 나라를 잃은 수행자들이 아닙니다. 이미 이 지역의 주민입니다"며 "정신을 좇는 이 지역의 문화와 티베트 불교의 정신이 서로 어우러진 탓도 있겠지만, 20여 개의 교육·명상 센터에서 실시하는 '열린 명상 프로그램'으로 지역 주민의 생활 깊숙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다.

지리적으로 리오 그란데 지역은 북미와 남미를 잇는 관문이다. 따라서 이 지역 불교세는 멕시코, 브라질, 베네주엘라, 파라과이 등의 불법 포교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리오 그란데의 원주민의 하나인 호피족과 티베트 불교와의 관계를 연구하고 있는 문화인류학자 조안 프라이스 박사는 "호피족 등 남미 원주민의 문화는 티베트와 같이 세계의 보편적인 문화와는 전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다"며 "이처럼 '문화적 외계인'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두 문화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가까워질 것"이라고 예측해, 가까운 미래에 남미에서 시작될 '불교 열풍'을 짐작케 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고통은 업보의 결과 걱정보다 받아들이자"

법회증계

천중사 정기법회
〈2000년 9월 3일〉



운산 스님
〈천중사 주지〉

지나친 욕심 버리고 반성과 참회 따를때 고통·근심 사라져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자면 고통이 전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행복한 사람일지라도 언젠가 한 때는 고통을 받기 마련인 것입니다. 어디 사는 것뿐이겠습니까. 태어나고 죽는 것까지가 모두 고통입니다. 고통 아닌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세상을 괴로움의 바다, 고해(苦海)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은 고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고통을 받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근심과 걱정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오히려 고통보다 이 근심과 걱정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심과 걱정이 고통보다 사람을 더 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달마대사는 이입사행론(二入四行論)에서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은 만일 고통을 만나더라도 걱정하지 말아야 한다(逢苦不憂)"고 했습니다. 어떠한 고통을 받게 되더라도 근심하고 걱정하기보다는 그것을 조용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달마는 그래야 할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고통은 자신의 업보에서 오는 것이다. 자신이 지어서 받는 결과이기 때문에 자기가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달마대사의 이 말씀은 바로 인과의 도리를 설명한 것입니다. 즉 내가 지은 인연으로 말미암아 초래된 고통이니, 마땅히 내가 받아야 할 고통이며 그것을 근심하거나 원망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달마는 또 이러한 충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닥쳐온 고통을 감수할 뿐 아니라 그에 대한 참회도 따라야 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이 인과나 업보에 의해 온 것이라면 그 인연과 업보에 대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참회하여 다시는 그런 결과를 받지 않겠다는 스스로의 다짐과 각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통에 대한 반성이고 참회입니다.

이와 같이 고통에 대한 반성과 참회가 있을 때 고통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며 그에 따라 근심 걱정도 저절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고통은 지나친 욕심에서 비롯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무엇보다 욕심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구경〉에 보면 또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욕심으로부터 걱정이 생기고 욕심으로부터 두려움이 생긴다. 욕심 없는 곳에 걱정 없나니 또 어디에서 두려움이 있겠는가"(貪欲生憂 貪欲生畏 無所貪欲 何憂何畏).

역시 고통과 근심 그리고 걱정의 원인은 욕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을 받지 않고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욕심부터 버려야 할 것입니다. 욕심이 있는 한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고 고통이 있는 한 우리에게서 근심과 걱정이 떠날 날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욕심 가운데는 사욕이나 이기심이 아닌 선의의 욕심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선의의 욕심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능력과 한계와 분수를 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든 지나치게 되면 예외 없이 고통이 따라오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통이 없는 그리고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보람 있는 인생을 산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역시 욕심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설사 고통을 받는다 하더라고 근심과 걱정, 원망만 할 일이 아닙니다. 그 고통의 원인과 뿌리를 알고 그에 대한 반성과 참회를 함으로써 그것을 조용히 감수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러한 괴로움에 빠지지 않고 안락할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리=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나라가 어려울때(國難) 불교전통(佛敎傳統)을 이어, 정토세계(淨土世界)를 연자

제6차 전국 염불만일회 2000년도

금강산 건봉사 가을 성지대회 공고



△ 등공탑-염불만일회에 동참하신 서른 한 분 스님의 육신 등공부도탑

전국 염불만일회에서는 2000년도 가을 아미타 염불성지대회를 우리나라 최북단 강원도 고성군 건봉사에서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전국에 계신 염불만일회 회원과 불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 일 시 : 2000년 10월 1일 ~ 2일(1박 2일)
◇ 장 소 : 강원도 고성군 간성 건봉사
◇ 내 용 : 사리친견 염불정진 및 등공대 참배, 아미타춤 헌공
◇ 신청대상 : 개인, 단체, 사찰, 가족단위
◇ 참 가 비 : 25,000원
◇ 신청방법 : 전화신청 후 은행계좌에 입금
◇ 교 통 편 : 개인별 건봉사 도착

서울·경기지역 출발 안내
○ 출발장소 : 서울 조계사 앞(안국동 로터리)
○ 출발시간 : 2000년 10월 1일 오전 6시
○ 교 통 편 : 관광버스(단, 동참자는 참가비·교통비 포함 50,000원을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염불만일회 회원 모집
▶ 회원자격 : 염불수행을 원하는 모든 분
▶ 회원대상 : 사찰, 단체, 개인별로 가입
▶ 회원회비 : 가입비 2만원(매년회비 1만원)
▶ 가입방법 : 전화 및 우편(사무국 : 02)732-1215~7)

회원이 되시면
▶ 아미타불의 수행방법을 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염불만일회 소식을 가정에서 통신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염불일일기도 수첩 보내드림)
▶ 전국 대도시별로 회원 관리 혜택이 주어집니다.
▶ 평생동안 염불만일회 회원이 됩니다.
▶ 법보신문에 매주 고유번호와 성명이 게재됩니다.

회원가입 은행 입금계좌 (예금주 : 염불만일회)
국민은행:023-21-0667-309 조흥은행:390-04-249351
농 협:053-02-128104 우 체 국:010041-02-209333
외 환:173-18-10454-9

全國念佛萬日會

110-170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 (02)732-1215~7 FAX (02)732-1207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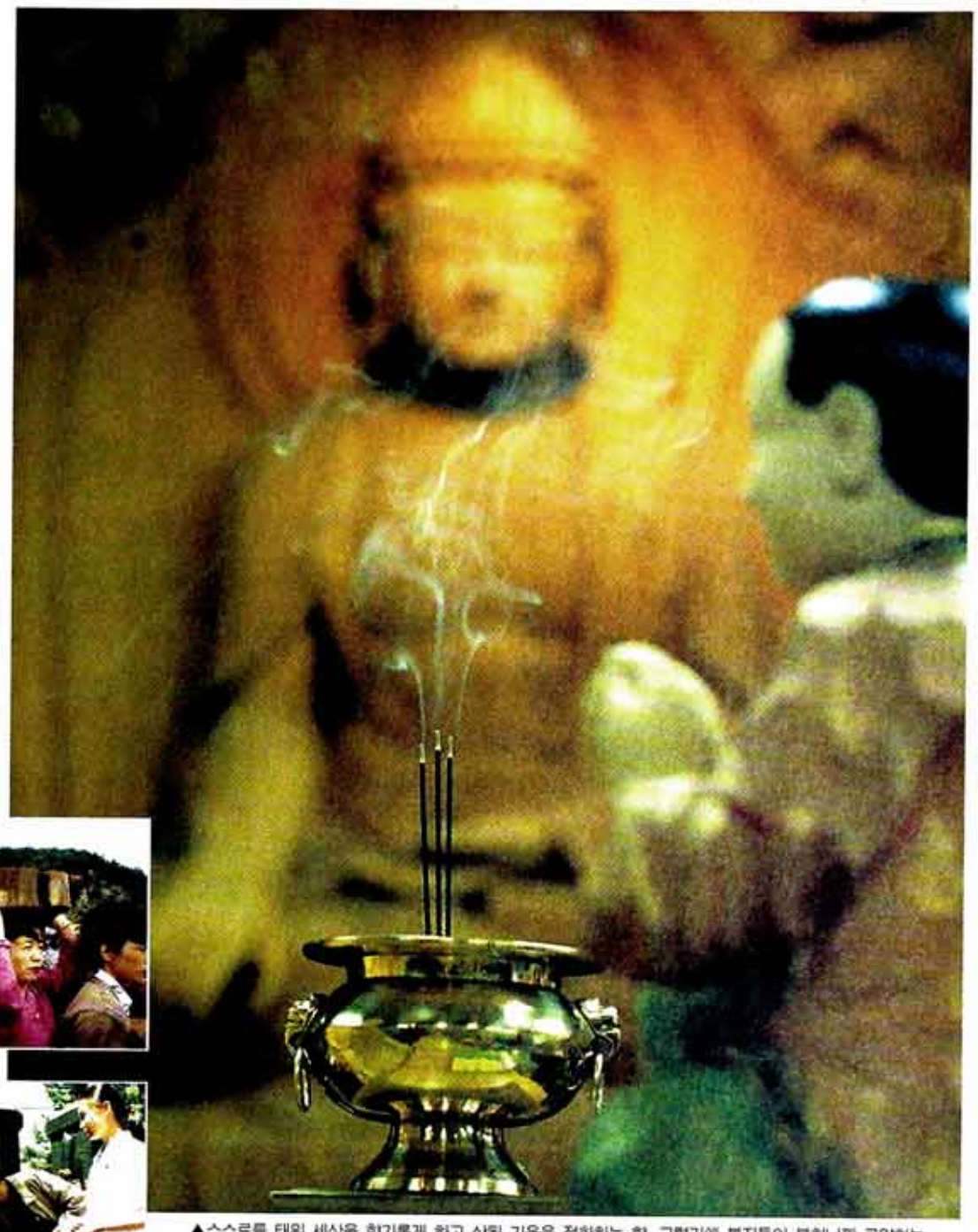
시방세계

반야불교사
불사의 모든일 정성껏 하겠습니다.
031)905-6368 / 011)9934-3512



향

향기로 정신맑게
삼독은 연기처럼







▲스스로를 태워 세상을 향기롭게 하고 삿된 기운을 정화하는 향. 그렇기에 불자들이 부처님께 공양하는 한가닥 향에는 끊내는 부처를 이루고 말겠다는 간절한 서원이 담겨있다.
◀지난해 10월 김제 금산사에서 6백년만에 '매향' 의식이 재현됐다(사진 위). 96년 결성된 '향기를 찾는 사람들'은 서울 인사동을 비롯 전국 곳곳에서 '우리향 피우기 운동'을 전개, 천연 전통향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계향 정향 혜향 해탈향 해탈지견향…' 절에서는 아침저녁 예불 때마다 오분향(五分香)을 외는 것으로 하루를 열고 닫는다. 계로써 만든 향, 선정으로 만든 향, 지혜로 만든 향, 해탈의 향, 해탈지견을 베푸는 향을 완전히 태워서 법신불의 세계(진리 그 자체의 몸)로 돌아가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향은 초와 꽃, 청정수와 더불어 부처님 전에 바치는 6가지 기본 공양물 중의 하나다. 향을 사르는 것은 부처님께 아름다운 향기를 올려 찬탄하는 동시에 여러 개의 향이 타더라도 그 연기는 하나로 뭉쳐 합해지듯이 개인의 이기심을 버리고 모두가 화합하는 마음을 갖겠다는 부처님과의 약속이기도 하다.

향은 보통 고체상태로 태우는 향(線香)과 가루향, 향환(香丸) 등이 있으며 범어로 간드라(gandha) 또는 인센스(incense)라고 한다. 인센스는 라틴어 'incensus'에서 온 것으로, 인간의 감성과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는 어원에서 출발하여 태울 때 향내를 풍기는 것을 말한다.

부처님 공양물중 하나
수입향 불단점령 위기
'우리향 피우기운동' 전개

우리나라의 향문화는 불교가 전래되면서 비롯됐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향은 450년 눌지왕에게 보내온 양나라의 향물을 보고 묵호자(신라에 불교를 전한 고구려의 승려)가 '향'이라고 부르면서 알려졌다. 향은 불교의 각종 의식에서 널리 사용되면서 보편화되기 시작했는데 불가에서는 중요한 법회나 작법의식, 육법공양의식을 비롯 매향의식, 흡향의식 등의 형태로 사용됐다. 불상의 복장물과 부처님을 목욕시키는 욕불의식 때도 향은 빠지지 않는다.

8세기 중엽의 (백지묵서화엄경)에 따르면 사경에 쓰는 종이를 만드는 닥나무 밭에 향수를 뿌리고, 사경법회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향을 사르고 뿌린다고 기록되어 있다. 향이 불교의식에 필수적으로 사용됐음을 알게 하는 대목이다.

고려시대에는 향도(香徒)라는 불교신앙결사가 꽃어져 미륵불의 출현을 기다리며 신성한 곳을 찾아 향을 묻는 매향(埋香)의식이 행해지기도 했다. 신성한 땅에 향을 묻어 용화세계 구현을 염원했던 것이다. 매향은 미래세를 닦는데만 그치지 않고 현세의 청정과 복락을 함께 기원하는 염원의 표현이었다. 그뿐이 아니다. 일반 가정에서도 여인네들이 은은한 향내로 치장할 때, 경전을 읽을 때, 서예를 할 때, 차를 마시며 정담을 나눌 때, 거문고·가야금을 탈 때, 편안한 잠자리에 들고 싶을 때, 시간을 잴 때 등 생활 속에서 널리 사용했다.

그러나 이처럼 생활 속에 깊숙히 스며들었던 향 문화는 조선조 후기와 일제 강점기를 지나면서 자취를 감추기 시작, 오늘날에는 헌향의식과 육법공양의식에서만 남아있다.

우리향 또한 값싼 수입향에 밀려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향시장의 70~80%를 인도, 중국, 일본 등지에서 수입된 외국산 향이 점령하고 있다. 심지어는 싸구려 인조향이 천연 고급향으로 둔갑해 우리 향시장을 잠식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한다.

향 연구가 송인갑씨는 "천연약재로 만든 우리 향이 오장육부의 경락을 틔어 정신을 맑게 하고, 경건한 분위기를 자아내게 하는데 반해 화학성분이 든 외국산 향은 장시간 맡을 경우 두통과 메스꺼움을 유발하고 열이 오르게 하는 등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말한다. 불자들이 피워대는 수입향 때문에 법당의 부처님도 현기증을 일으키실지 모를 일이다.

'향기를 찾는 사람들'(대표 박희준)은 이같은 수입향의 문제를 지적하고 우리향을 연구·보급하고 있어 주목된다. 95년 능혜스님, 박희준씨, 조백씨 등 몇 안되는 불자들로 결성돼 지금은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등 2백여명에 달하는 전국의 향인들이 모여 '우리향 피우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향기를 찾는 사람들'이 제안하는 좋은 향 선별 방법. 좋은 향은 연기가 가늘고 길게 한 줄기로 꼿꼿하게 올라가면서 힘이 있는 것이고, 피울 때 푸른 빛의 연기가 나고 햇빛이나 검은색을 바탕에 비추었을 때 흰색이 많거나 담배연기처럼 누르스름하면 인조 화학 향이다.

향의 천연재료에는 향나무·단향과의 상록교목인 백단(白檀)·팔꿈나무과의 상록교목인 침향(沈香)·한방에서 정향나무의 꽃봉우리를 채취해 약재로 쓰는 정향(丁香) 등의 수목(樹木)과 감람과의 상록교목인 유향(乳香)·때죽나무과의 낙엽교목인 안식향(安息香) 등의 수지(樹脂·나무에서 나오는 진), 수컷 사향노루의 하복부에 있는 향낭을 조개어 말린 가루인 사향(麝香)·향유고래에서 채취한 송진같은 향료인 용연향(龍涎香) 등 동물에서 얻는 것들이 있다. 최근에는 야생화, 녹차 등을 이용한 향도 나오고 있다.

모든 향내는 바람이 불면 쉽게 흩어지는 것 같지만 알게 모르게 다른 사물에 배어든다. 그래서 법당은 뭇 중생들이 부처님을 닮아가고 끝내는 부처를 이루겠다는 발원의 공간이 된다.

글=도필선 기자(psdo@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ybgo@buddhapia.com)

야생화 전통향 나왔다
구례군 농업기술센터

10월이면 황색꽃이 피는 감국과 녹차로 만든 향이 나왔다. 향에 불을 붙이는 순간 짙은 들국화 향기가 법당 안을 채우고, 입안 가득 맴돌던 녹차의 쌉싸름한 맛이 향기로 코끝에 와 닿는 국내 유일의 천연 향이다.

구례군 농업기술센터는 1일 지난 6개월에 걸친 연구 끝에 개발한 선향(線香-절이나 가정에서 흔히 사용되는 막대모양의 향) '모닝'과 '나이트', 향환(香丸-환으로 빚어놓은 향) 등 '구례소리(Kurye SORI)' 3종을 관광상품으로 선보였다. 향 이름 '구례소리'는 구례군과 문향(聞香)의 의미에서 따왔다.



◇구례군이 야생화와 녹차를 원료로 개발한 천연향 '구례소리'

구례군 농업기술센터는 감국을 원료로 한 선향인 '모닝'을 아침 이슬처럼 맑고 부드러운 향으로, '나이트'는 자녁 노을처럼 깊고 오묘한 기품이 나는 향이라고 설명한다. 중작 이상의 차 잎으로 만든 향환은 녹차와 꿀만을 배합해 제조한 것으로, 순수한 녹차의 느낌을 그대로 살렸다. 향환은 목욕할 때 물에 녹여 싹도 좋을 만큼 피로회복에 효과가 있다.

'구례소리' 개발 제안자 정연권(농업기술센터 기술계장)씨는 "한반도에는 향의 추출이 가능한 토종 식물이 산재해 있지만 그동안 연구개발과 투자를 게을리해 그 가치를 살리지 못했다"며 "서양의 향이 냄새를 앞세워 외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반면 동양의 향은 내적 정신을 중시하고 기를 다스리는 데 효능이 있어 상품으로 개발할 경우 채산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구례소리'는 현재 구례군 내에서만 살 수 있지만 오는 11월경에는 전국 백화점 및 도소매 향 판매사업장, 사찰에서 구입할 수 있다.

도필선 기자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히란야는 우리 몸에 건강과 행운을 가져다 줍니다!!



단전 건강운동기
· 오래된 숙변이 힘차게 쏟아집니다.
· 장속에 독소가 빠져 피로가 없어집니다.
· 잠이 잘오고 단전에 힘이 솟아납니다.
₩ 240,000



氣의 신비감 피라미드 (KBS2-TV 체험시배)
· 피라미드내에서 명상효과(비행운반사)
· 식물성장과 병충해 방지효과(민병성씨)
· 저항압으로 수십년 고생하다 좋아짐(주부 장양심씨)
· 뇌막염아기 건강이 호전(이호준씨)
₩ 350,000



순금도금으로 효과가 더욱 좋아진 파워봉
(침21개 순금도금)
₩ 80,000



* 萬事亨通 氣 달마도



정가 ₩ 20,000
萬事亨通 달마카드 무료증정
제품을 주문하시는 모든분에게 氣발생 달마도 카드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금박)
지갑속에 간직하시면 氣·運 건강이 좋아집니다.

· 전화를 주시면 氣를 Check 해 드립니다. · 카다로그 氣측정기 무료우송 · 성인병에 대한 최신정보 (고혈압, 당뇨, 간, 장, 비만) 책자우송

韓國氣研究院 ☎ 02)455-6944, 02)453-5851 /Fax 02)454-0646 우체국 014092-06-011003(예금주 : 김 진 순)

다시 푸는 경서

달마 관심론(觀心論) ⑬

因筌求魚 得魚忘筌
인전구어 득어망전
因言得意 得意忘言
인언득의 득의망언
旣稱念佛之名
기칭염불지명
須行念佛之體
수행염불지체
若念無實體 口誦空名
약염무실체 구송공명
徒自虛功 有何成益
도자허공 유하성익
且如誦之與念 名義縣殊
차여송지여염 명의현수
在口曰誦 在心曰念
재구왈송 재심왈염
故知念從心起
고지염종심기
名爲覺行之門
명위각행지문
誦在口中
송재구중
卽是音聲之相
즉시음성지상

이음성구아
是人行邪道
시인행사도
不能見如來
불능견여래
以此觀之
이차관지
乃知事相 非眞正也
내지사상 비진정야
故知過去諸聖
고지과거제성
所修功德 皆非外說
소수공덕 개비외설
唯只論心 心是衆聖之源
유지논심 심시중성지원
心爲萬惡之主
심위만악지주
無上眞樂 自由心生
무상진락 자유심주
三界輪廻 亦從心起
삼계윤회 역종심기
心爲出世之門戶
심위출세지문호
心是解脫之關津
심시해탈지관진

말로 인해 뜻을 얻지만
뜻 얻고나면 말은 잊어버리라

執相求福 終無是乎
집상구복 종무시호

통발로 인해 고기를 잡되 고기를 잡고나면 통발은 잊어버린다. 말로 인해 뜻을 얻지만 뜻을 얻고나면 말은 잊어버린다. 그러므로 이미 염불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면 염불의 실체를 행해야 한다. 만약 생각에 실체가 없이 입으로 헛되이 명호만을 왼다면 공력만 허비할뿐 이익이 없다. 또 외우는 것과 염(念)하는 것은 이름과 뜻이 매우 다르다. 입으로 하면 외운다 하고, 마음으로 하면 염한다 한다. 그러므로 염하는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므로 깨치는 수행의 문이라 하고, 외우는 것은 입에 속하며 음성의 모습이니, 형상에 집착해서 복을 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

故經云
고경운
凡所有相 皆是虛妄
범소유상 개시허망
又云若以色見我
우운약이색견아
以音聲求我
심시해탈지관진
知門戶者 豈慮難成
지문호자 기려난성
識關津者 何憂不達
식관진자 하우부달

그러므로 경에 말하기를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다' 하였다. 또 말하기를 '만약 모양으로 나를 보려거나 음성으로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은 사도(邪道)를 행하는 것이니, 끝내 여래를 보지 못하리라.' 했으니, 이로써 본다면 형상은 진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과거의 여러 성현들이 닦은 공덕은 다른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을 논하였을 뿐이다. 마음은 여러 성인들의 근원이고, 마음은 모든 악의 주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더없는 참 즐거움도 마음에서 생기고, 삼계를 윤회하게 됨도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마음은 세간을 벗어나는 문턱이요, 마음은 해탈의 나루터이니, 문턱을 안다면 어찌 이루지 못할 것을 염려하며, 나루터를 안다면 어찌 건너지 못할 것을 근심하겠는가.

김원각 〈시인 · 역경위원〉

'큰 스님'과의 대화

구암스님

하남 광덕사 주지

경기도 하남 남한산 기슭의 작은 절 광덕사. 중부고속도로 진입로를 새로 내느라 절 밖은 세상처럼 소란스럽다. 공사장을 뒤로 하고 살짝 길을 틀어 산길로 접어드니 전나무가 쭉쭉 시원스레 하늘로 뻗어 있다. 천축사 무문관에서의 6년 수행 이후 제방 선원에서 선수행에 몰두해오신 구암스님께 큰 절 올리고 길을 여쭈었다.

구암스님은 "이미 선인들이 모든 가르침을 주셨는데, 단지 행하지 않을 뿐. 그러니 더 보탤 게 없다"고 말씀했다. 산을 울리는 일갈은 아니었지만, 가슴이 뜨끔했다. 스님은 특히 어머니가 바로 관세음보살님이라는 불교설화를 소개하며 부모님에 대한 효도가 불자의 으뜸가는 생활덕목이라고 강조했다.

"불자의 으뜸덕목은 효도"



· 1918년 목포 生
· 효봉스님을 은사로 충무 미래사에서 출가
· 60년 자운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수지
· 66년 자운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및 보살계 수지
· 해인사 15안거 성만을 비롯 동화사 통도사 등 제방 선원서 수행
· 72년부터 78년 천축사 무문관서 6년 두문불출 정진
· 현재 경기도 하남 광덕사에 주석

—스님께서는 20여년 전 도봉산 천축사 무문관(無門關)에서 두문불출하며 6년 동안을 오로지 참선에만 몰두하셨습니다. 선실 밖을 벗어나지 않는 수행은 말그대로 고행(苦行)이었을 것이고, 뛰쳐나가고 싶은 생각도 들었을텐데요.

▲죽으려는 마음으로 무문관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뛰쳐나오기는 어딜 가려고 나오겠어요. 72년에 들어가 78년에 나왔으니 20년도 훨씬 넘는 저편의 일처럼 아련하군요.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부처가 되겠다는 각오로 들어갔으니, 나가도 송장이 되어서 나간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무문관은 계룡산 갑사 위에 있는 대자암에 계시던 정영스님께서 연 선방이었습니다. 정영스님이 5년을 운영하다 봉은사로 가셨지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6년 수행 끝에 대각을 이뤘듯, 한번 들어가면 6년을 수행해 깨달음을 이루자는 뜻이었지요.

무문관이라고 해서 다른 수행처소와 유별나게 다르지 않았지만, 방 밖에도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 달랐지요. 밖에서 방문을 걸어잠궈놨어요. 그러니까 앉으나 서나, 숨을 들이쉬나 내쉬는 동안에도 '이 뭐꼬'를 놓치지 말자는 일념이 깃든 곳입니다. 사방 일곱 자, 아홉 자 크기의 방 세 칸인 조그만 곳인데, 두 칸은 참선방으로 쓰고, 하나는 화장실이었지요.

무문관 6년 결사는 두 번 했지요. 12년 동안 무문관에 들어온 스님네들이 100명쯤 됐는데, 6년을 마치고 나온 스님은 셋 뿐이 안되요. 첫 번째에는 관응스님하고 제선스님이었어요. 관응스님은 지금 직지사 중암에 계시고, 제선스님은 어디 계신지 다들 모른답니다.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두 번째가 나하고 원공스님인데, 원공스님은 2년 늦게 들어와서 나갈 때는 나랑 같이 나왔어요. 원공스님은 지금도 무문관 꼭대기 방에 계신다는군요.

고행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졸음이 오면 자고, 잠이 오지 않으면 가부좌로 앉아 있고, 걷고 싶으면 걸으면 되고, 끼니 때 되면 밥먹었는데, 밥은 이만한 구멍으로 쟁반에 담아 들어왔어요.

정영스님은 대자암에도 무문관처럼 일곱 자 짜리 참선방 열한 칸을 만들어놨어요. 거기는 여섯 달씩 한다는데, 명년에 들어갈 사람까지 줄을 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문관에 이어 해인사 통도사 동화사 선원에서 참선수행을 하셨습니다. 요즘은 재가불자들의 수행 열기도 뜨겁습니다. 스님께 가르침을 구하러 많이 올텐데요,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요.

▲여러 어른들이 많은 가르침을 주는데 내가 한마디 보태서 뭐하겠어요. 요즘의 선방과 스님들이 어떻네 하며 내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데, 나는 그런 데 개의치 않습니다. 묵숨 걸고 수행하는 스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 스님들을 위해 공양올리는 불자님도 적지 않고요. 수행하는 스님들을 두고 이렇쿵 저렇쿵 입에 올리는 일이 가당치 않습니다. 자기를 봐야지요.

불교는 나를 밝히자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불자라면 반드시 수행을 해야 합니다. 수행 없이, 나를 돌아보고 추스르는 과정도 없이 어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수행의 궁극은 나를 찾는 것인데, 그 자리는 결코 천상처럼 높은 자리도 아니고, 결국 나라고 부를만한 실체가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자님이 내 앞에 앉아 나와 얘기를 나눕니다. 이때의 나는 그냥 내가 아니라 기자님과 얘기를 나누는 나라는 이치입니다.

나에게 와서 수행의 길을 물으니 가상합니다만, 어느 절을 가든 수행에 대해 가르쳐주는데 내가 뭐 특별히 줄 게 있겠습니까. 먼 길 마다 않고 산골짜기까지 오셨으니 차 한잔, 밥 한술 나누면서 수행하려고 마음을 냈으니 쉽없이 하라고 거들기는 하지요.

요즘은 절을 찾는 신도들에게 관세음보살을 부르라는 말을 더 많이 합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하는 기도는 나도 잘되고, 내 가족, 내가 아는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피를 얻어 잘 되자는 것이니까 얕게 볼일이 아닙니다. 나는 조석예불 후와 낮에 한시간 남짓 관세음보살 염불을 합니다. 선이 됐건 염불이건, 부처님 가피를 구하든 순간 순간의 맑은 마음이 소중한 것입니다.

—스님께서는 성철스님의 네 가지 가르침, 밥을 적게 먹어라, 책을 보지 말아라, 돌아다니지 말고 말을 적게 하라는 말씀을 평생 수행의 지침으로 삼으셨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책은 수행에 참고가 되지 않을까요.

▲책에는 분명 힘들여 이룬 체험이 들어 있고, 지혜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책을 문화의 보고(寶庫)라고 하잖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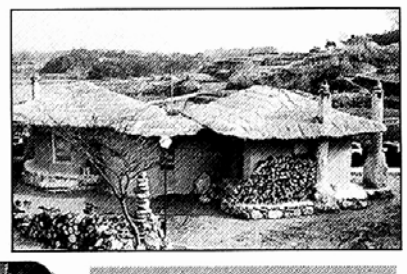
그러나 책은 남의 것입니다. 나를 대면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세상에는 좋은 가르침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이 가르침대로 되어 가나요. 내가 없다면 다 소용없는 일이지요. 남의 얘기도 그렇습니다. 절에 나와 법문을 듣고, 교회에 나가 설교도 듣습니다. 돌아서면 그만이예요. 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나라는 몸뚱이와 마음의 움직임을 놓치지 말라는 가르침이지요. 그런데 책을 읽다보면 책에서 써놓은 것이 내 생각과 같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때가 나를 놓치는 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도를 펴놓고 산꼭대기를 손가락으로 가르치고 있다고 해서 산에 오른 것이 아니듯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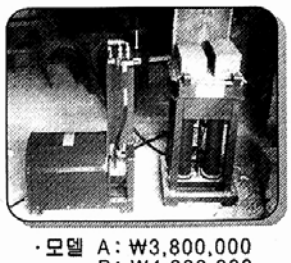
—우문을 드리겠습니다. 깨달음이란

황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 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 벽돌 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 모델 A: ₩3,800,000
B: ₩4,300,000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 30×14×14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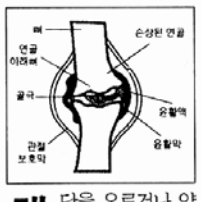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037300 봉송황토마을

황토관련 전문회사 황토마을에서는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3)634-0223
팩스 : 063)34-1237

골다공증 관절염 류마티스
'물렀거라, 상어연골정제로 완전해방'

퇴행성 류마티스성 통풍성 관절염 자연추출미생물 이온화 '코랄샤크골드' 복용 1개월만에 확연한 화제만발



계단을 오르거나 약간의 활동만으로도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관절염) 관절이 뻣뻣해지면서 심한 통증이 오는 경우(퇴행성 관절염), 여기저기 곳곳이 붓고 아프고 힘들며 물이 고이는 경우(류마티스성 관절염), 엄지발가락이나 팔꿈치가 붓고 움직이기 힘든 경우(통풍성 관절염). 이 모든 증상으로부터 완전해방될 수 있는 건강식품이 수입돼 화제다.

최근 뉴질랜드에서 수십년간에 걸친 연구결과 끝에 개발된 '상어연골정제' 상어에서 추출된 특수갈습과 마그네슘, 세레늄 등 기타 자연에서 추출된 미생물을 복합 이온화하여 인체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원리로 이루어진 '상어연골정'은 닮아 없어지는 물렁뼈가 생성되고 골이 빈 곳에 인이 채워져 골다공증을 잡아주며 몸에 나쁜 물이나 균을 잡아 정상인으로 회복시키는 효과가 탁월해 세계적으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코랄샤크골드는 불치의 병으로 여겨졌던 관절염, 류마티스, 통풍, 퇴행성 환자들에게 희소식으로 여겨지는 '상어연골정'은 국내 삼일양행(02-790-8200)에서 독점 시판하고 있으며 부작용 없이 1개월 복용부터 확실한 효과가 검증되고 있어 연일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 〈코랄샤크골드〉

한달분 22만원,
두달분 40만원

IMF다이어트 인기급등

만인들의 희소식. 최근 삼일양행에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가격을 공장도 가격으로 인하하였고 또한 효과를 최대한 증대시킨 것이 바로 IMF 다이어트이다.

이 다이어트의 특징은 한방에서 추출된 특수성분이 함유되어 부작용없이 자연스럽게 몸에 흡수된다는 것. 현대인들의 운동부족과 영양섭취로 인하여 누적되는 지방분과 기존의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식전복용이 더욱 효과적이며 단기간 감소요법 보다는 꾸준히 몸에 무리가 가지않는 효과를 가지며 3-4개월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남성과 여성, 출가를 원하는 여성 출산후 오는 비만 등 많은 분들로부터 희망을 주는 다이어트로 거듭태어났다고 한다. 비만인들의 희소식은 틀림없으며 한방성분의 10여가지 조화가 균형을 잡는 비법이라고 한다. 삼일양행측은 IMF 졸업할 때까지 현재가격을 고수하겠다고 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IMF다이어트
1개월분 88,000원
■문의 : 삼일양행
서울(02)790-8200

아봐타 코스
〈뜻대로 사는 길〉

苦三應一 人世觀一 欲一切法 了佛界唯 知性心造
- 화엄경 4구게 -

아봐타는 자신의 마음(신념)이 삶에서 경험하는 상황 및 사건들을 창조하거나 끌어당긴다는 단순한 진리를 토대로 한 매우 강력하며 빠른 효과를 가져 오는 코스(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전세계 64개국에서 안내되고 있으며 현대불교, 선(禪)의 공학, 새로운 인간 존재의 탐사기법 등등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스를 경험하신 많은 스님과 불자님의 성원에 힘입어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적멸보궁 봉인사에서 아봐타 코스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코스는 국내외에서 많은 코스 안내 경험이 있는 慧元, 해산, 적경 스님 등 많은 아봐타 마스터들이 동참하여 코스에 참가하시는 모든 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과 마음으로 체득하게 되는 훌륭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이 땅의 수행자들을 초대합니다.

▶주 최 : 봉인사
▶홈페이지 : http://soback.kornet21.net/~bonginsa
▶기 간 : 2000년 9월 16일 ~ 24일 (8박 9일)
▶참 가 비 : 180만원(숙식제공)
▶신 청 : 봉인사 한길정진원
T.(031)574-5585/529-5585 F.031)574-0808

봉인사 한길 정진원 합장

"나를 돌아보고 추스르는 과정없이 어떻게 제대로 산다 할 수 있나요"

무엇인지요.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세 살 먹은 어린애에게 거짓말하라고 가르치는 부모 없습니다. 대학원까지 공부하면서 거짓말하라고 배운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거짓말하지 말라고 해서 그 사람이 거짓말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는 새삼스럽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고 있는데,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않을 뿐입니다. 내가 행하지 않으면서 남이 먼저 하지 않음을 탓합니다.

불자는 무엇보다 효순(孝順)해야 합니다. 효도하고 응(應)해야 하는 것이지요. 부모 말씀 잘 듣는 것이 효도입니다. 음식을 잘 장만하고, 의복을 지어준다고 해서 효도하는 것이 아니예요. 어쨌든 속 편하게 하는 것이 부모에 효도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나에게 달린 것입니다. 이치에 어긋나지 않게, 물 흐르듯 거스르지 않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 순(順)이고요.

효순을 배우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양로원이 늘어나고, 부므를 죽여 토막내는 세상이 어찌 사람사는 곳입니까. 요새의 천지는 온통 검은 먹입니다. 한 주먹 얼른 움켜쥐어 부자돼서 편히 살려고 하지 땅파겠다는 사람 없어요. 어쨌든 쉽게 벌고, 도둑질할 생각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흰 놈이 하나 있어서 "그러면 안된다" 하고 나서면 차음에는 듣지만, 거듭 얘기하면 자기들 하고 같이 검게 만들어버려요. 흰 놈마저 검어지고 마는 것이지요.

몇 년 전 휴거소동이 일어나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지요. 목사가 감옥까지 갔는데, 세상이 온통 검으니 사람들이 휴거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이 세상에 종말이 오고 새세상이 열린다는데 솔깃했을 수밖에요.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십대 소년이 권총을 쏘아대는 악랄한 세상입니다. 그래도 좋다고 모두들 선진국으로 가자는 세상인데, 누구에게 잘하라고 입바른 소리 하겠어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좋은 세상을 간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최소한 나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요.

▲늙은이의 푸념으로 들어주세요. 나는 늙어서 이런 욕밖에 못하니 젊은 스님네들과 불자들의 할 일 많아진 것이겠지요. 세상이 험하니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접고 살아요. 원인은 가치관의 혼돈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가장 큰 지도자가 대통령인데, 대통령 해보겠다고 어느 날 아침 여당으로 가는 세상이니, 자기를 흘어지지 않게 붙들어맬 기둥이 흔들리는 모양이지요.

거짓말 잘 하는 사람이 정치 잘 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우습게 들어서는 안됩니다. 국민들이 너무 한탄스러워서 뱉아내는 말입니다. 이런 소리 듣고도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뼈저리는 마음으로 사죄하는 사람 못봤어요.

어린 단종이 작은 아버지에 의해 목숨을 잃었어요. 역사를 배우는 것은 악연을 다시는 짓지 말자는 뜻인데, 악연을 수단으로 삼고 있어요. 역사는 반드시 악연의 결과를 지어줄 것입니다. 삼십년이나 오십년 후 우리 후손들은 오늘 우리의 추한 모습을 보고 또 수단으로 삼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스님께서는 효순하는 것을 불자의 생활덕목이라고 강조하셨는데, 불교는 효도와 거리가 있다는 오해가 적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가르치는 효란 무엇인지요.

▲출가해서 부모를 모시지 않고, 결혼을 하지 않아 대를 잇지 않으니 유교의 입장에서 보면 불효도 보통 불효가 아니겠지요. 중국에서는 이에 대한 논쟁이 많았는데, 출가야말로 부모를 성불시키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성을 깨치게 해주니 이보다 더한 효가 어디 있겠어요.

〈육방예경〉 〈불설부모은난보경〉 등 경전에도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가르침이 무척 많습니다. 〈사십이장경〉에 보면, 십억의 아라한에게 공양하기보다는, 백억의 벽지불에게 공양하기보다는 삼존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일세의 양친을 제도함이 좋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관무량수경〉에도 정토에 태어나려면 세 가지 복을 닦으라고 하는데, 그 첫째가 부모에 효양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바로 부처님이라는 얘기도 전해집니다. 돼지를 잡는 백정이 업장을 씻으려고 보타산에 들어가 한 노스님께 관세음보살이 계신 곳을 물었습니다. 노스님이 "네가 관세음보살을 친견하려거든 빨리 너의 집에 돌아가거라. 관세음보살이 네 집에 계신다. 한 노인이 옷을 뒤집어 입고 신을 거꾸로 신고 너를 마중 나올 것이니, 그 분께 엎드려 절하고 잘 모셔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백정이 이 말을 듣고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급히 문을 열어주려고 나오는데 옷은 뒤집어 입었고, 허겁지겁 신발도 거꾸로 신은 채 달려나왔다. 이를 본 아들이 "당신이 관세음보살입니다"하고 엎드려 절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을 성불로 이르게 하는 일이 큰 효라면, 부모님을 부처님으로 받드는 일은 사람으로서 살아야 할 도리입니다. 도리에서 어긋나서야 어찌 부처님 제자이겠습니까. 우리가 불교를 하는 것은 부처님을 좇아서 살자는 것이지요. 〈불승도리천위모설법경〉에 보면, 부처님이 성도 후 도솔천에 올라가 어머니를 위해 3개월 동안 설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야 부처님처럼 깨닫지는 못했지만, 부처님을 따라 살려는 불제자이니 부처님이 하신 것을 그대로 모양내면 되는 것입니다. 가르침이 없어서 우리가 험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은 가르침을 받들어 행하자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다 아는 얘기 하나 보태지요. 조과선사와 유명한 당나라 시인 백낙천의 대화입니다.

백낙천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수행해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조과스님이 대답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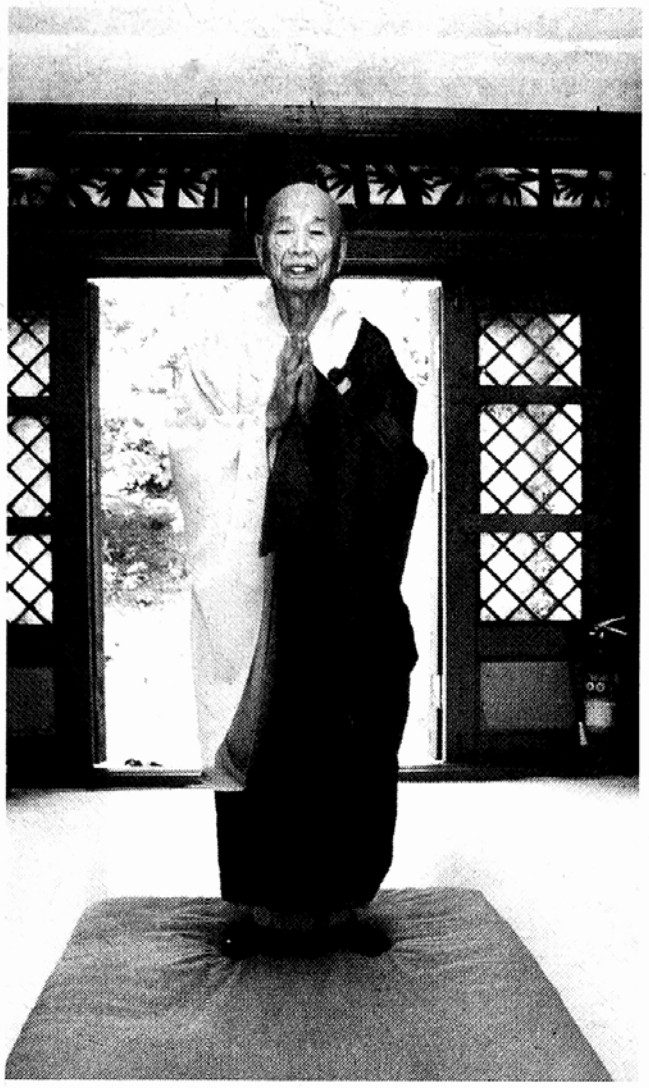
"나쁜 짓은 하지 말고, 힘써 선행을 하면 됩니다."

"그런 것 쯤이야 세 살 먹은 아이도 하는 말 아닙니까?"

"세 살 먹은 아이도 쉽게 알아 들을 수 있는 말이지만, 백 살 먹은 노인도 행하기는 어렵지요."

지하철역에도 액자에 이런 얘기를 담아 걸어놨더군요. 가르침을 찾아다니는 수고는 그만 하고 아침에 집을 나서며 품었던 한 생각 오늘 실천하면 됐지, 어디에 새로운 세상천지 있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대담=정성운 차장
(swjung@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정토에 태어나가 위해 닦아야 할 세가지 복 가운데 첫째가 부모에 효양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시는 구암스님.

"나쁜짓 말고 힘써 선행하라" 세살 아이도 아는데 실천못할 뿐

허주스님의 스님이야기

■정현 스님

열반하신 큰스님들의 다비장에 참석해 보면 예전에 함께 생활했던 도반 내지는 선후배 스님들을 만날 때가 간혹 있다. 평소 생각지도 않았던 뜻밖의 얼굴을 만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

그 반가움의 표현이 "요새 어디 계십니까." "많이 번했네요. 건강하십니까"라고 한다면 그저 눈인사 정도로 지내던 스님들이고, "아직도 중노릇하고 있냐" "야, 중노릇 지겹지도 않니. 왜 여태 붙어 있어"하면 마음속에 늘 그리며 살던 도반이다.

한눈 팔지 않고 절집에 오래도록 남아있는 것이 너무 고맙고 반가워서 하는 표현이지 너같은 사람이 왜 아직도 먹물옷 입고 있냐 하는 비아냥은 절대 아니다. 그래도 처음 수계를 마치고 바로 대중 생활을 했던 강당(講堂 : 지금의 지방 승가대학)에서의 추억이 제일 그리운게 사실이다.

통도사 감로당 학인시절, 중노릇에 대한 자긍심이 하늘을 찌르던 시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던 그때. 몇몇 도반스님들과 의기투합해서 "죽을 때까지 중노릇 잘하자. 변치 말고 이 한몸 생사일대사인연(生死一大事因緣)을 해결하는데 던져버리자" 라는 객기와 각오와 결의로 뜻도 모르는 난해한 어록을 무조건 외우고 또 외웠던 어린시절, 무슨 잠이 그리 쏟아졌던지 화장실에까지 가서 앉아 꾸벅꾸벅 졸던 생각을 해본다.

학인시절 흔들림없는 수행 자나깨나 손에는 경구쪽지

수면존자(睡眠尊者)로 일컬어졌던 정현스님, 제법 큰 키에 경상도 사내답지 않은 느린 말투, 호리한 체격임에도 동작은 왜 그리 느리던지. 함께 일할 때면 속이 답답해 가슴을 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그래서 별칭이 '느림보 수면존자'. 눈만 뜨면 오로지 치문, 경구를 외우는 일 외에 그 어디에도 시선을 돌린 적이 없었다. 3년 내내 한번 앉으면 정가부좌 자세 그대로 죽비소리가 날 때까지 시종일관했고 무엇보다 미련하게만 보였던 그 모습에 대중들은 두터운 신뢰를 보였다. 왜냐하면 미련해야 중노릇 할 수 있지, 약아빠진 근기로는 오래갈 수 없다는 것이 당시의 지론이었다. 당시 내 생각으로 정현스님은 왜 저렇게 머리가 아둔할까. 그까짓 경구 몇 장 외우는 일에 하루 시간을 다 소비하다니 도대체 지능이 얼마나 되는 걸까 하고 업신여긴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그때 스님의 소임이 갱두(羹頭: 국을 끓이는 소임)였는데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도 중얼중얼, 포행할 때도 웅얼웅얼, 그야말로 자나깨나 경구가 적힌 쪽지를 손에서 떼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나는 무사태평, 시간만 나면 잡지 또는 시, 소설 따위만 읽었고, 경전은 뒷전이었다. 새벽 예불 후 2시간 정도면 정현스님이 암기한 양의 경구를 충분히 외울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있었다. 강의시간에 강주스님 앞에서 외울 때는 곧잘 외워졌는데 삼일 정도 지나면 외웠던 문장들이 하나도 기억에 없다는 사실이 나를 많이도 당황스럽게 했었다. 헌데 정현스님은 달랐다. 삼일이 아니라 삼 년이 지난 후에도 치문 전체를 줄줄이 외우는 것이었다. 그때의 좌절과 부끄러움이란 지금도 내게 공부는 미련스럽게 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항상 환희심에 젖어 있던 그의 얼굴에 수심이 깊게 드리워졌었는데, 한동안 책을 덮고 좌선삼매에 빠진 듯 했다. 그러나 편해 보이지만은 않았다. 스물을 갓 넘긴 나이에 올 것이 왔다는 소문이 다름아닌 병역문제. 스스로는 현재의 이 상태에서 계속 부처님 공부만 하고 싶지 일체 다른 상황은 거부하고 싶다고 했다. 지금 못하면 영영 못할 것 같다는 단서를 붙여가면서... 어떻게 자신이 총을 들고 그것을 겨눌 수 있겠는가 하고 신음하듯 말하곤 했다. 그래도 주위의 많은 스님들은 사내라면 군대생활은 필수이고 미필자는 사내 취급도 안한다는 사회 통념을 주지시켰지만 그는 오히려 중노릇하는데 득될 것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공양시간에 보면 소식(小食)을 했었는데 그나마 밥의 양을 줄이더니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신체검사 일주일을 앞두고 관음전에서 철야기도에 들어갔다. 다들 걱정을 했었지만 그의 고집을 꺾을 생각은 없었다. 마침내 신체검사를 받으러 가는 날 체념의 눈빛에 알 수 없는 힘이 있어 보였다.



그림 · 문병성

사흘이 지났을까. 소식이 왔는데 신체검사에서 X레이 촬영을 하는데 폐에 구멍이 많이 보여서 면제를 받았다고 했다. 정작 본인은 아무렇지 않은데 촬영결과는 입영불가로 판정되었다 한다. 그렇게 가기 싫어했던 병역문제가 해결되자 그의 기도 가피이야기가 화제가 되었던 때가 있었다. 풍취불입 수쇄불착(風吹不入, 水灑不着)의 일념에 서였을까. 아무튼 그의 간절함이 제도권을 초월하게 하였는지는 몰라도 아직까지 그는 부처님 밥을 먹고산다.

몇 년 전 성철 큰스님 다비식 때 해인사에서 만났다. 나이살이 쪄서인지 강마른 체구가 거구가 되어 있었다.

"정현스님, 아직도 중노릇하고 있네" 하고 반갑게 맞자 그 곳 선원에서 한철 잘 지냈다 한다. 지금 그의 얼굴을 떠올려 보니 다음에 어느 회상에서라도 만나게 되면 "밥값은 하고 사는겨?"라고 반갑게 반문할 것 같다.

고 침 지난호(285호) '지묵스님의 스님이야기'를 '허주스님의 스님이야기'로 바로잡습니다.

신간
설 교수가 안내하면 혼자서도
전생 가기 참 쉽다
설기문 지음 / 값 8,500원 • 전국 서점에서 판매합니다.

전생 다녀오는 시간
45분
전생 유도 테이프 포함

국내 최초의 전생 매뉴얼북
• 전생 유도 테이프에 의한 최면으로
가장 편하고 가장 빠른 방법.
45분짜리 테이프를 한 번 또는 두 번 듣기만 하면…….
• 펜들럼 · 점막대 · 손가락 · 거울 등의 기구를 이용하여
마술과도 같지만 분명한 사실. 거울 속의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 꿈과 상상을 통해서
내가 말을 건네면 꿈은 반드시 응답한다.
• 현재의 나와 내 주변을 살펴보면서
지금의 나는 전생의 가장 완벽한 증거. 주의 깊게 주위를 다시 보면…….



설기문
동아대 교수 · 미국 공인 최면 전생 치료사
경북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미국 인터내셔널 대학교 상담심리학 박사.
캐나다 빅토리아 대학교 객원 교수 역임.
KBS TV 〈미스터리 추적〉을 포함한 다수의 TV 프로그램에 출연.
• 전생 유도 테이프에 보호령이 설치되어 있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생을 알고 나면 ➡ • 몸과 마음, 대인 관계의 고질적인 문제가 풀린다. • 세상이 전과 다르게 보인다. 02)738-0931 도솔

교보, 영풍, 을지, 서울, 영광, 동보서적 베스트셀러
내 생각이 내 인생을 방해했다
지금의 처지가 다음과 같다면 이런 생각이 나를 지배해 왔다.



• 평생 경제적으로 힘들게 살았다면
세상은 넉넉지 않아 살아남으려면 고생해야 돼.
• 이제껏 제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었다면
난 안 돼. 나에겐 문제가 많아.
• 만나는 사람마다 좋지 않게 헤어졌다면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야. 믿을 수 없어.
• 사귀는 남자(여자)마다 어느 선 이상 친해지지 못했다면
사랑은 위험해. 이 사람도 결국 나에게 상처만 남길 거야.

생각은 보이지 않는 씨앗. 그렇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이 그렇게 된다.
나와 세상을 뿌리부터 바꾸고 싶다면 나,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 대한 생각을 바꾸자.
씨앗은 때와 조건을 만나면 싹트게 마련이니까.

세계 26개국 베스트셀러. 영어책만 300만 부 판매!
그렇다고 생각하면 진짜 그렇게 된다
삭티 거웨인
박윤정 옮김
값 6,900원

저기 미륵불이 어서 오라고 반기네

백두대간 속으로 〈21〉

새재→하늘재

오늘 '관음' 내일 '미륵' 잇는 하늘재

"지금 이곳이 곧 극락"임을 일깨우고



◇신라 말에서 고려 초 사이에 창건된 것으로 추정되는 미륵리 절터(사적 제317호)의 오층석탑(보물 제95호)과 석등(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9호) 그리고 석불입상(보물 제96호). 소박한 생김새에 온화한 미소를 지닌 석불입상은 천년을 하루같이 중생들의 고달픈 삶을 어루만지고 있다.

저녁 노을을 잃어버린 지 오래다. 사람과 자연의 거리가 아득히 멀어진 탓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텔레비전으로 대표되는 대중 매체가 비집고 들어와 인간의 오관과 관단력을 대신한다. 가공된 현실이 실제를 압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누구도 내일 날씨를 가늠하기 위해 저녁 하늘을 바라보지 않는다. '일기예보'라는 것이 내일의 표정을 확정해 버리기 때문이다.

어릴 적, 운동회나 소풍 전날에는 어둠이 촘촘해질 때까지 서쪽 하늘을 바라보곤 했었다. 그리고 노을의 그 '붉새'가 잘 익은 홍시빛일 때는 딱히 누구에게랄 것도 없는 감사를 수십번이고 반복하곤 했었다.

뭠박질을 하듯이 후다닥 오르고 내리는 하루 산행이 아니라, 하루고 이틀이고 산 위에서 한뎃잠을 자야 하는 산행의 경우에는, 눈비가 오지 않는 한 저녁 노을을 만날 수 있다. 꼭 찬 하루를 살았다는 뿌듯함과 내일이라는 시간 단위가 주는 경이로움에 설레이지 않을 수 없는 '차분한 들뜸'의 순간이다. 적어도 이 때만큼은, 어릴 적의 나와 남루할 대로 남루해져버린 오늘의 나는 온전히 하나가 된다.

맨 얼굴로 하늘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것, 산이 우리에게 주는 큰 축복 가운데 하나다.

하도 높고 험하여 새들조차도 넘기 힘들었다 하여, 혹은 억새가 많아서, 또는 새로 낸 길이라 하여 새재라는 이름을 얻었다는 문경새재에서 다시 백두대간의 등성마루에 선다.

우선 조령샘에서 목을 축인다. 마침 샘 위의 산신각 앞에서 한판 굿이 벌어지고 있다. 무슨 애달픈 사연이 그리 많은지, 연신 손이 닳도록 빌어대는 아낙의 비나리가 '축은하기보다는 자못 엄숙해 보인다. 나 또한 갈데없는 중생의 형편이지만, 그 아낙의 소망이 무엇이 됐건 그대로 다 이루어지길 빌어본다.

새재에서 이어지는 백두대간 길은 조령관을 지키던 군사들이 묵던 곳이었다는 군막터를 지나 마폐봉(925m)으로 이어진다. 또한 이 길은 조선 숙종 34년(1708)에 완성된 조령산성을 밟는 길이기도 하다.

천천히 걸어도 새재에서 마폐봉까지는 1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다. 국립지리원에서 만든 지형도에는 마역봉이라 나와 있으나 이 곳 사람들은 마폐봉이라 부르므로 그것을 따르기로 한다.

마폐봉에 올라 얻은 구름에 어린 노을을 좇아 먼데 눈길을 주니, 자연스레 사방을 에워싼 봉우리들이 얼굴을 내민다. 동쪽으로 부봉, 서쪽으로 신선봉, 남쪽으로 조령산과 북쪽으로 월악산이 저마다 우뚝하다. 그 중에서도 월악의 기골은 단연 으뜸이다.

마폐봉에서 동쪽으로 30분쯤 가면 어른 한 명쯤 지나다닐 정도 너비의 조령산성 북쪽 암문(暗門)에 닿는다. 누(樓)가 없긴 해도 명색이 문(門)인 만큼, 제법 너른 공터가 하룻밤 묵어 갈 자리를 내어 준다.

하늘이 수상하다. 숨바꼭질하듯 언뜻언뜻 비치던 별들도 꼭꼭 숨어 버렸다. 밤새도록 비를 맞아야 할지도 모르겠다.

다시 아침. 물기 머금은 바람이 참나무 잎을 스친다. 간간이 비가 흩뿌리지만 뱅뱅 햇빛보다는 오히려 낫다.

북암문에서부터는 터널을 이룬 듯한 참나무 숲길이 계속된다. 내쳐 이 길을 가면 하늘재에 당건만, 역설적이게도 하늘은 그 모습을 보여 주는 데 무척 인색하다. 참나무 잎사귀 사이로 열린 조각난 하늘은, 차라리 색깔이 다른 참나무 잎으로 보는 게 옳을 성싶다.

조령산성 북암문에서 동암문까지 1시간 남짓 걸리는 길은 아껴 걷고 싶을 정도로 호젓하지만, 동암문에 이르면 사람살이의 흔적을 짙게 느낄 수 있다. 이곳에서 서쪽으로는 조령관 아래의 동화원으로 연결되고, 동쪽으로는 달목(月項)이라는 예쁜 이름의 동리와 연결되는 탓이다.

동암문에서는 거의 정남쪽 방향으로 심하게 방향을 틀었다가 부봉(856.7m) 못미쳐서 동쪽으로 휘도는 백두대간의 등성마루는 월항재를 내려다보고 선 봉우리(959m)에 이르러 다시 북쪽으로 몸을 세운다. 이 지점에서 툭 떨어졌다 탄항산(925m)을 타고 넘으면 곧바로 하늘재다. 멀리 군더더기 없는 하늘금을 보이는 백두대간의 연봉들은 가히 압도적인 보폭으로 앞장을 서고 있고, 하늘재를 호위하듯 솟아오른 맞은편의 포암산(961.8m) 남쪽 암릉은 꽤나 고집스런 표정을 지어보이며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은 산임을 암시하고 있다.

드디어 하늘재(520m)다. 백두대간에 열린 수많은 고개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이름을 달고 있는 곳이다. 언제부터 하늘재라 불린지는 정확히 알 길이 없으나 이곳 사람들은 누구나 하늘재라 부른다. 옛 기록으로 남겨진 본디의 이름은 계립령(鷄立嶺). 기록상으로 볼 때 우리 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고개다. 〈삼국사기〉 권2 '신라본기'를 보면, 아달라 이사금 3년(156) 여름 4월에 계립령 길을 열었다고 적고 있다. 기록상 죽령보다도 2년이 앞선다. 또한 이 고개는 김유신이나 온달을 앞세워 삼국유사에 등장하기도 하는데, 둘 다 자기네 땅임을 주장하는 내용이다. 삼국이 경쟁히 맞서던 전략적 요충지였음을 쉽게 짐작하게 한다.



◇미륵사지에서 미륵 대원사로 가는 길가에 선 돌두. 흙 속에 묻혀 있던 걸 발굴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고갯마루는, 이름이 연상시키는 아스라히 높은 고개라는 느낌과는 달리 북쪽으로 우뚝솟은 포암산의 발치에 납작 엎드린 느낌이다. 그런데 왜 하늘재라는 이름을 얻었을까. 그러나 이런 의문도, 고개란, 머물기 위한 길이 아니라 타고 넘기 위한 길이라는 사실을 떠올리면 쉽게 풀린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이 고개의 동쪽은 문경시 문경읍의 관음리고 서쪽은 충주시 상모면의 미륵리인데, 관음과 미륵을 이어주는 길이니 어찌 하늘에 이르는 길이 아니겠느냐는 말이다. 그렇다. 오늘의 관음과 내일의 미륵이 만나는 절대의 시간인 '이 순간'을 빼고 해탈과 극락을 말할 수는 없다. 관음과 미륵의 중재자로서 하늘재는 우리에게 그것을 일깨우고 있는 것이다. 결코 이 말이 헛소리가 아님은 관음리와 미륵리 일대의 수많은 불상과 석탑들이 증언을 하고 있다. '이 곳 그리고 이 순간'이 곧 극락이자 해탈의 순간임을 알라는 것이다.

저기 미륵 부처님이, 어서 오라 우릴 반기며 웃고 계신다.



◇전형적인 통일신라 석탑 양식을 따른 미륵리 절터의 삼층석탑(충북 유형문화재 제33호).

글=윤제학 기자
사진=손재식(사진작가)

혜초여행개발(주)
HYECHO ADVENTURE TOURS
대표☎ 733-3900 6263-3900
Fax. 733-3780
www.hyecho.co.kr E-Mail:hyecho@hyecho.co.kr

佛子世界
걸망메고 대륙의 중앙으로....

동남아 불교예술의 보고를 찾아 떠나는
미얀마 성지순례 7일 ₩1,550,000
· 일 정 : 서울-방콕-양곤-파간-만달레이-민군-혜호-양곤-방콕-서울
· 출 발 일 : 9/20일
■ 미얀마 천년 고도인 파간 : 쉐지곤파고다, 아난다사원, 마누하사원 부파야파고다, 남파야, 쉐산도등
■ 공파웅 왕조의 역사 유적지 : 730개의 석장경이 모셔진 쿠도도파고다 차욱퐛지파고다, 만달레이힐파고다
■ 민군 종, 민군 대탑
■ 소수민족의 풍속 여행지 혜호 : 형태와 모양이 다른 수천 불상을 모신 펀다야 동굴사원, 인레호수
■ 미얀마의 수도 양곤 : 와불이 모셔진 차욱탓지파고다, 보타타웅파고다, 까바에파고다(진신사리친견대법회) 미얀마의 상징 쉐다곤파고다, 위빠사나 명상센타 마하시 수도원, 아웅산묘지등.

古都의 땅을 찾아...
日本 佛敎 文化探訪 5일 ₩1,050,000
· 일 정 : 서울 - 오사카 - 고야 - 나라 - 교토 - 사가 - 오사카 - 서울
· 포함사항 : 국제선 항공료, 비자 비용, 공항세, 보험, 호텔 안내원, 전용차량, 전일정 식사
· 출 발 일 : 9/22
우리의 멋스러움이 녹아 스며있는 일본 불교문화
그 곳을 찾아 떠나는 일본 성지 순례...
■ 오사카 : 일본 제2의 도시, 한국인의 恨이 서린 땅
■ 교 토 : 일본 문화의 보고로 지금까지도 남아 숨쉬는 옛 古都의 자태
■ 나 라 : 백제의 불교가 전파된 고대문화의 중심지

Tibet 인기
금단의 大地 티벳 걸망여행 ₩990,000
창군고도 4,000를 넘나드는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티벳고원...
스스로 불교 땅임을 자처하는 티벳인들의 삶..... 그리고 히말리아!
時호를 넘나드는 티벳으로의 순례를 시작 하십시오.
· 일 정 : 서울 - 네팔,카트만두 - 히말라야를 넘어 티벳 평원으로 (자유일정)...
· 포함사항 : 국제선항공료(아시아나항공+네팔항공 : 1年 항공권) 중국 및 티벳여행허가서,카트만두 1박
· 출 발 일 : 매주 화,목,토 개별출발
전통의 성지순례전문 혜조에서 선보이는
인도 · 네팔 불교성지순례 ₩990,000
부처님의 4대성지인 룸비니, 상도지, 초전법륜지, 쌀르나트 순례및 8대성지 순례.
※ 순례후 카트만두에서 개별적으로 귀국 가능합니다.
(아시아나항공+네팔항공 : 1年 항공권)
· 일 정 : 델리-바라나시(녹야원)-부다가야(성도지)-나란다 불교대학-라즈기르(영축산,왕사성,죽림정사)-파트나-바이샬리(대림정사,아쇼카석주)-쿠시나가르(열반사,다비터)-사헤트 마헤트(사윗성, 기원정사)-룸비니-카트만두-방콕-서울(10일간)
· 포함사항 : 1년 항공권,숙소(조식포함),한국안내원,전용차량
· 출 발 일 : 15명이상 수시 출발
불교 최대의 석굴 "막고굴" 탐방 4박 5일 ₩1,090,000
'진' 시황제의 병마총...비림, 대안탑 등 탐방
· 일 정 : 서울-서안-돈황-양관-서안-서울
· 포함사항 : 항공료, 숙식, 중국비자, 입장료, 전용차량
· 출 발 일 : 9/18, 9/25, 10/2, 10/9

※ 10년 전통의 혜초 여행사는 불자와 함께하는 국내 최대의 불교전문 여행사입니다. 후원 : 현대불교신문, 스포츠조선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 FAX: (031)470-3116

추석은 만물 공생작용에 감사하는 날

현대사회에서 추석의 의미

문 며칠 있으면 8월 추석이 다가오는데 지금과 같은 현대사회에서 추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단지 지금까지 지켜온 전통이기에 계승을 해서 지내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후손들이 깊이 새겨야할 깊은 뜻이 있어서 그러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밥을 먹을 때에 농사짓는 사람 혼자서 쌀 농사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비나 태양을 내려주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서 일해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추수를 하였겠습니까? 그러니 팔월 추석은 만물이 공생하는 작용에 감사하는 마음을 올리는 날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귀중하게 생각하고, 즉 말하자면 사람들 사는 것뿐만 아니라 천지가 다 그렇습니다. 우주가 다 살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해줬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더불어 같이 감사를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 당연히 조상님도 포함되는 것이죠. 그렇게 더불어 같이 부모님의 은혜도 생각하는 거고, 자기를 낳아줘서가 아니라 낳아줄 수 있는 인연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이 맞겠지요.

그래서 8월 추석을 지내는 그 뜻을 우리가 한 번쯤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분이든지 밥 먹지 않고 사는 사람 없고, 옷 입지 않고 사는 사람 없고, 물 안 마시고 사는 사람 없고, 불 쓰지 않고 사는 사람 없고, 땅 딛고 다니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기를 마시지 않고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고로 우리가 8월 추석이라고 하는 것은 일년 내내 농사를 지어서 그 첫 곡식을, 밥을 지어서 놓든 떡을 해서 놓든 무엇을 해서 놓든, 일체제불의 마음과 더불어 일체만 중생과 더불어 같이 지수화풍, 또는 무정물이나 식물이나 모든 마음들을 한데 둥글려서 마음으로 깊이 그 감사함의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이것을 따로따로 얘기하는 것보다도, 돌아서 얘기하는 것이 간단하고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마음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것입니다. 무한량이라고 하면 무한량일 수 있고, 작으면 바늘구멍 하나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것을 잘 생각해서 감사함을 느끼고 해야 할 텐데 진실하게 감사함을 느낄 줄을 모두 모릅니다. 더군다나 가깝게 있을수록 더 감사함을 모릅니다. 당장에 이런 것들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 못하는 데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물 쓰는 거와 불 쓰는 거와 땅을 딛고 다니는 거와 공기를 마시는 것에 그렇게 감사함을 느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낳아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일체 만물을 보니까 공부를 할 수 있고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고, 또 상대성 원리로써 개발을 할 수 있는 창조력을 기를 수도 있고 창조를 해 낼 수도 있는, 그러한 모든 여건을 생각해 보지도 않고 감사할 줄을 모르니 그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안된다고 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은 일체 만물만생 전부가 다 흙이든지 무정물이든지 식물이든지, 지수화풍을 막론하고 더불어 모두가 평화스럽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자유스럽게 살 수 있게끔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질 못합니다. 평화스럽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여하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질세계의 50%에만 전전긍긍하니 거기에까지 마음이 미치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그리고 내가 산다느니 내가 했다느니 내가 말했다느니, 그러면서 망한 거는 타의에서 망하게 했다느니,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 살게 됐다느니, 이러한 문제 등등이 모두 여러분의 마음에 사무치기 때문에 밝게 내다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돌아가는 걸 가만히 생각해보면 풀벌레 하나까지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치가 거기에 있으니 조상님들은 더 말할 것이 없겠지요. 그러니까 추석을 맞아 내 마음을 둘 아니게 밝히는 뜻을 세워 내 속에 함께 하고 있는 만물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겨보는 계기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몸을 벗으면 어떻게 될까요

문 스님, 저는 평소에 물에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편입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며칠 전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서도 꿈이었는데, 꿈이 꿈이라는 거를 모르기 때문에 살아 생전에서와 똑같이 그 물에 뛰어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꿈을 꾸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어놓은 의식들에 의해서 한 발자국도 옮겨놓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이런 내가 과연 도통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고, 이렇게 부족한 내가 만약 이 몸을 벗는다면 어떻게 될까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불안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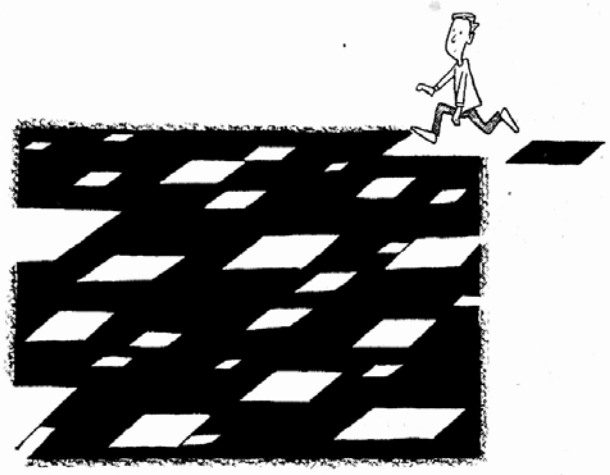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모든 것 나의 근본에 둘 아니게 놓고
찰나 생활로 자유스럽게 살아가세요

답 그 물에 뛰어들 수 없었던 거는 자기가 있다는 생각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꼭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불안한 것도 내가 있다는 것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내가 없다는 걸 알면 두려운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세월이 말입니다, 끝도 없고 시발점도 없고 종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사람이 살아 있을 때에 구경지를 이루어야지 죽고 나서는 공부를 못합니다. 부딪침이 없으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내가 있고 상대가 있고, 나무니 돌이니 사람들이니 나쁜 거니 좋은 거니 다 이렇게 상대가 있으니까 공부를 하지만, 그리고 눈 달리고 귀 달리고 그러니까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죽고 나서는 부딪침이 없기 때문에 공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서 대승이 되고 살아서 벗어나지 못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깨달음이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찰나찰나 화해서 한 발 디디면 한 발 없어지고 한 발 디디면 한 발 없어지고, 이거 보면 저거 봐야 하고 이거 들으면 저거 들어야 하고, 이 사람 만나면 저 사람 만나야 하고 이거 하면 저거 해야 하고 이럴 뿐이니, 마치 바람 같이 그냥 자꾸 한데로 돌아 달아나가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밥 먹고 똥 싸고 그냥 그렇게 돌아가듯이 말입니다. 우리 생활이라는 것이 맨날 했던 거 되풀이하고 있는 거잖아요? 먹곤 싸고 먹곤 싸고, 그렇게 되풀이하잖아요? 그러고 자고 깨고 말입니다. 그게 하나나 남아 있는 게 있느냔 말이에요. 초월해서 그냥 돌아가니까, 남아있다 남아있지 않다는 말도 붙일 게 없는 거죠. 우리 먹고 사는 것도 붙일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것에서 찰나생활을 해라 이런 거지요.

그리고 그렇게 인생이 돌아가는 걸 보면 우리 육신이 온 것만 해도, 사람으로 온 것만 해도 참, 불행 중 다행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은 그래도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벗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난 걸 한탄말고 열심히 닦으라고 하는 겁니다, 열심히 닦아라. 그렇다고 해서 또 뭐 닦을 게 있어서 닦으라는 줄 알지 말고요. 물건이 없는데 닦을 게 어딨고 먼지 앉을 게 어디 있겠습니까? 육조스님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발 한 발 없어지는 것인데, 내가 뚜렷하게 있어서 지금 산다고 생각을 하지 말라 이겁니다. 나는 공부하기 위해서 환상(幻想)으로 지금 상대에 부딪치면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서 그 뜻을 알아야 물론만 아니라 불구덩이, 지옥고도 능름히 넘어갈 수 있어요. 오히려 그렇게 공부한 사람이 가는 발자국마다 지옥고가 다 없어진다고 하는 말을 믿으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야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인연된 모든 이들을 구해서 다 천도시킬 수도 있고 밝게 이끌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나의 근본에 둘 아니게 일임하고 찰나생활로 살아가라는 거니까, 이러니 저러니 하고 괜히 걱정하지 말고 자유스럽게 살아가세요. 인생이 길다고 하지만 그렇게 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남한테 해롭게 하지 말고 폭넓고 지혜롭게 마음을 쓰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반항적인 청소년 앞날 걱정돼

문 고등학교 입시 과외선생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아이들을 거치다보니 느끼게 된 것입니다만, 청소년기의 성향이란 것이 어딘가 모르게 반항적이고 어른들의 말을 고리타분하다하여 잘 듣지 않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렇지만 어떤 때 아이들을 보면 텔레비전에서 좀 우수한 사람이 나오거나 하면 사회에 대해서 막연한 적대감을 가진 채 욕을 해대기도 하고 어쩌다 같이 길을 가다 보면 여러 사람들이 살면서 지켜야 하는 것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하찮게 여긴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머리가 커지니 이래라 저래라 해서 들을 것 같지도 않고 다 커버린 아이들을 따라다니면서 잔소리를 할 수도 없고, 이 아이들이 장래 이 사회를 이끌어갈 거라고 생각하니 노파심에 알게 모르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혜로운 길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답 이 세상 살아나가는 게 전부 자기 마음으로써 작용하는 그 속에 다 있습니다, 일체 만법이 말입니다.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부모라면 내 자식이라고만 고정되게 생각하지도 말고 항상, 잘못된 게 있으면 인의롭고 부드럽게 해서 올바로 이끌어주고, 말할 때도 그렇게 하면서 모든 것은 마음의 중심에다 맡겨 놓고 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 그 뿌리를 길러주는 것이 사랑이지 그냥 겉으로만 말하고 야단치고 온통 분란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가출하게 만들고 이탈하게 만들고, 또 몸뚱이는 안 나가도 마음이 벌써 바깥으로 나가게 만들고 이런다면 부모의 자격이 없어요. 자기네들이 잘못해놓고 항상 분열을 일으키고 더욱 더 가난을 가져오게 만들고, 병고를 가져오게 만들고 그런 결과를 가져오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갑작스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속에서 제대로 지킬 것을 지키지 않고 함부로 하는 마음에서 일어난단 말입니다.

사사로운 일이지만 내 어디 가다가 보니, 커피를 마시고도 커피잔을 아무데다가 그냥, 조금만 가면 쓰레기통에 넣을 것도 그것도 하기 싫어서 어느 귀퉁이에다 끼워 놓고, 차 타고 가면서 담배를 피우고는 그냥 후컥후컥 버리고, 깡통 마시다가도 그냥 휙 던지고 가고 그러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마음공부라는 것이 별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아야 하고, 도의와 의리와 시간을 지키고, 부드러워야 하고 부드러운 행을 해야 하고, 말 앞세우는 것보다도 행동이 더 진실해야 하는 것이 마음공부의 실천행입니다. 설사 거짓말을 하더라도 남을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익이고 거짓말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사기성의 마음을 가지고 남을 이익하게 안하고 맨날 해롭게 한다면 그

☞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는 계속 출간됩니다 •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의 꽃을 피우는 책입니다.

주머니 속 대장경

101 - 교리 · 입문편
보르헤스의 불교 강의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알리시아 후라도 공저, 김홍근 편역
B6 변형 242쪽 / 값 5,500원

102 - 교리 · 입문편
법수로 배우는 불교
경전에 등장하는 수많은 숫자들… 그 깨침의 묘리를 푼다.
이제열 지음
B6 변형 196쪽
값 4,500원

201 - 생활불교편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
'화 잘 내는 사람'이라는 말을 최고의 수치로 여기는 티베트인들의 성전 '菩提道次第'
초펠 스님 편역
B6 변형 178쪽
값 4,000원

202 - 생활불교편
재가 불자를 위한 계율 강좌
'계율'을 통해 참된 불자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일깨워 준다.
혜능 스님 엮음
B6 변형 330쪽
값 5,500원

301 - 선(禪)편
참선요지 (參禪要旨)
허운(虛雲) 화상의 참선 수행 요결
허운(虛雲) 화상 법어, 대성(大醒) 스님 옮김
B6 변형 276쪽 / 값 5,500원

302 - 선(禪)편
방편개시 (方便開示)
깨달음 자체보다는 어떻게 궁극에 도달할 것인가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허운(虛雲) 화상 법어, 대성(大醒) 스님 옮김
B6 변형 278쪽 / 값 5,500원

303 - 선(禪)편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한글 세대를 향한 선(禪)불교 강의
한형조 지음
B6 변형 336쪽
값 6,000원

401 - 문학편
허공의 딸꾹질
조선 시대 선사 44인의 선시 모음집
이중찬 지음
B6 변형 282쪽
값 5,000원

501 - 문화 · 학술편
불성이란 무엇인가
모든 중생에겐 불성(佛性)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성불할 수 있을까?
전치수 지음
B6 변형 196쪽
값 4,500원

502 - 문화 · 학술편
부처님 말씀대로 가르치세요
황폐한 우리의 교육현장에 던지는 붓다의 음성 '천상천하유아독존'
김종서 지음
B6 변형 182쪽
값 4,500원

여시아문 여시아문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주소 :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02)737-0695 팩스 : (02)737-0696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 FAX: (031)470-3116

문이 없기에 法門, 법이 없기에 佛法

☞ 15면에서 계속

게 다 자기 앞에 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난 어떤 때 보면 이상스러운 것이, 텔레비전이나 이런 거 보면 아, 자기가 먹었으면 쓰레기를 담아 가지고 쓰레기통에 넣으면 어디가 어떻게 잘못 되는지 골골이 그냥 쓰레기를 버려서 온통 악취가 나고 참 보기가 안좋더라구요. 그러면 그 오물 속에서 독충이 얼마나 일어나며, 독충이 일어나면 보이지 않게 안개처럼 날아다닙니다. 그러면 그게 누구한테로 오느냐. 버린 사람들한테, 우리들한테 도로 오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버린 사람만 그 과보를 받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 직접 버리지 않은 사람들도 그렇게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인해서 백 사람 천 사람이 죽게 돼 있어요, 고통을 받게 돼 있고요. 그것이 뭐냐하면 우리가 생활속에서 일거수일투족을 하는 데 있어 그냥 막 허투로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함부로 막 하면서 자기를 다스리는 공부를 튼튼하게 하지 못한 관계상 그런 행도 하고 저런 행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보이지 않는 안개 같은 세균이 모두 독충인데 나한테 달려들면 내가 그것을 알겠습니까? 털구멍을 통하고 귓구멍, 눈구멍, 콧구멍을 통해서 입으로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병이 걸리고, 요새 얼마나 병이 많습니까. 또 나무에도 곤충들이 생겨가지고는 전부 뿌리가 상하게 되고, 식물을 심어 놓으면 독충이 전부 그냥 달려들어 먹어 치워서 피해가 가게 하는 것도, 그것도 다 그렇게 해서 생기는 거죠. 우리 사람 하나가 잘못해가지고 얼마나 피해가 가는지 몰라요. 그러니 한번 잘못에, 예를 들어 말하자면 거짓말을 한 번 해놓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열 번을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이치와 같습니다. 그러면 열 번 거짓말을 하다 자꾸자꾸 이게 번져지면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 사람의 행동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때는 아주 거짓말로다가 왕창 커지게 되죠. 거짓말 조그마한 거 하나가 그렇게 왕창 커진다는 거, 우리가 조그마한 거 하나 버려서 거기서 독충이 생겨서 우리 국민을, 세계인을 전부 그렇게 나쁘게 만든다는 그런 거를 생각하신다면 아이들이 생각하는 거 하나, 생활하는 거 하나도 그냥 허투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럭하는 사람이 좀더 줄고, 그럭하는 사람이 없어야만이 우리 사는 데도 병이 덜 걸리지 않느냐 하는 이런 문제들이 우리 마음의 작용에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머리를 쓰는 것도, 좀 더 이런 공부를 했다면 그걸 느끼게 됩니다. 물 한모금 마실 때도 이 물이 느낌이 좀 안좋다 하면 그런 거를 건의해서 제대로 하게끔 할 수 있고, 그냥 지나칠 수 있을 것도 나는 귀찮더라도 모두를 위해 한번 더 곰곰히, 달리 생각해 보기도 하는 이런 자세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다 유익되게 해 줘요. 이 마음공부라는 거 위로는 부모 조상들, 아래로는 자녀들, 또 나가서는 친구들, 형제들, 부부지간에 있어서도 어떠한 문제들이 다가올 때 다 커버할 수 있는 둘이 아닌 도리를 알아야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도 전체, 외부나 내부가 전부 둘이 아니게 해결할 수도 있게 됩니다. 말하자면 내 몸뚱이 걸의 문제에서 안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내 안의 문제에서 모든 물질의 문제들을 더불어 함께 해결해 가게 되는 거죠.

그런다면 여러분이 물리가 다 터지게 되고 들으면 듣는 대로 그게 법이 되고, 보면 보는 대로 법이 되고, 말하면 말하는 대로 한데 떨어지지 않고 법이 되는 그런 실천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생 중생의 의미

문 큰스님의 법문 중에 '자생중생'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며, 아울러 주인공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답 주인공이 뿌리라면 그 뿌리를 통해 사대육신이 움죽거리게 되는 것은 바로 오장육부와 삼백육십개의 골절과 팔만사천의 털구멍을 통해서 삼백육십개의 뼈마디와 팔만사천의 세균, 즉 여러분의 몸 속에 이 모든 자생중생들이 각자 여러분의 신하가 돼서 자유스럽게 들고 나면서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에너지는 한 구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악업 선업이, 바로 자기 영혼에 한데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영혼의 근본이 아버지에겐 뼈를 빌고 어머니에겐 살을 빌어서 정자 난자를 통해서 바로 형성이 됩니다. 형성이 돼서 임신이 됐을 때는 그 조그마한 세균 하나에 보이지 않는 인과가, 즉 말하자면 악업 선업이 한데 뭉쳐서 자라고 있습니다.

자라는 대로 그게 화해서 이 몸뚱이 하나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나는 무슨 죄를 졌나, 나는 무슨 업이 많아서 이런가 하시지마는 내가 볼 때는 딱하긴 딱하지만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현실에 나오는 것이니 바로 그것이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 업식으로 인해서 인과를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죠.

어떠한 용도에 따라서든, 병고다, 액난이다, 화가 난다, 짜증이 난다, 영계성이 생긴다, 세균성이 생긴다, 업보성이 생긴다, 인과성이 생긴다 하는 것도 다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지금 현실에 나오는 것입니다. 나오는 것을 어떻게 해야만 없어지겠습니까. 그 나온 자리에다 되맡겨 놔야 앞서의 입력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자기 나온 자리는 바로 통신처도 되고, 생산처도 되고, 여러 가지 무명을 녹이고, 업보를 녹이고 일체 만법의 근원을 우리가 되찾을 수 있고, 내가 어디서 나왔는지, 내가 무엇을 하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구멍이 아니면 어떻게 면제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뿌린 거는 내가 받듯이, 내가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해결을 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 입력된 것이기 때문에 정신계로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 안에 들은 중생을 부처님께서 비유하시기를 몸은 배로, 몸 안에 들은 생명은 중생으로, 우리 불성은 바로 선장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이 생명들 즉, 속의 중생들은 지금 배를 타고 온갖 군데를 다 돌아다니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생들도 건지고 배도 잘 가게끔 이끌어야 할 텐데 선장과 같이 한마음이 되질 않는 겁니다. 어떠한 일이 생겨도 선장한테 모든 거를 맡겨 놓고 '너만이 할 수 있다. 너만이 낫게 할 수 있다. 너만이 이끌 수 있다. 너만이 화목하게 할 수 있다. 너만이 사회의 모든 것을 이끌어 줄 수 있고 지혜롭게 진행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그 나고 드는 한 구멍에다가 모두 놔야 선장이 그 뜻을 받아서 오로지 이 의식들과 전체가 한마음이 돼서 해결을 하지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있는 줄을 알게끔 하죠. 그게 깨우침이니까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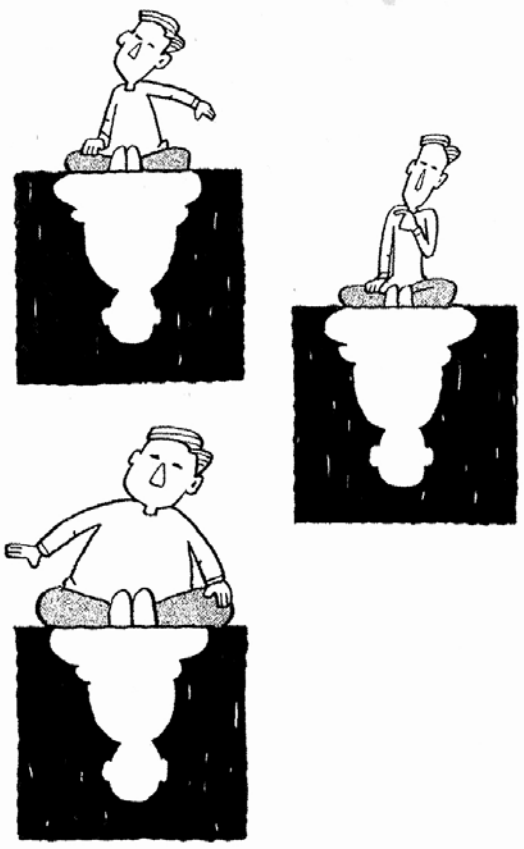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우리가 살면서 질서를 지키며 도의와 시간을 지키고 부드럽고 行 앞서야 마음공부

바람도 물도 마음이 있는지…

문 자식을 부처님 곁에 보낸 후 6개월여 만에 용기를 내어 글을 올립니다. 병든 아들이 부처님 곁으로 가고 지금까지 오직 주인공만 생각하고 주인공을 그리워하며 눈물지어 왔습니다. 화가 나도 놓고, 답답해도 놓고, 주인공이 보고 싶어 하염없이 울고, 꿈속에서도 주인공이 보고 싶어 하늘을 보고 땅을 치며 울부짖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놓고 또 놓고 하여 마음이 편한가 싶으면 또 다시 주인공이 그리워서 눈물을 흘립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마음에 큰 경계가 왔었는데 추풍낙엽처럼 무너졌습니다. 좌선을 해서 유체이탈을 하고 촛불을 보면 무얼 합니까? 마음이 무너지니 몽땅 내려앉더군요. 그래서 생각는 것이 '아! 일체가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구나. 마음을 잡을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자 세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나무도, 바람도, 새도, 가족도 모두 감사해서 눈물이 흘러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음이 편하지만 주인공이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내어야 합니까? 또 임제선사께서, 지수화풍 사대는 들을 수도 법을 설할 수도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바람도 물도 사대인데 마음이 있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을 설하여 주시옵소서.

답 경전을 본다 하더라도 글자를 배워서 익히라고 경전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글자를 보지 말고 그 뜻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이 여러분을 보지 않게 해야 하고, 여러분이 책을 보지 않게 볼 수 있어야만 그걸 진짜로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법문(法門)' 이렇게도 하는데 문이 있어서 법문이 아닙니다. 문이 없기 때문에 '법문' 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불법(佛法)' 이렇게 말하죠? 불법은 불법이 없다는 것도 속합니다. 너무나 찰나찰나 화해서 나투는 까닭에 불법은 없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체가 없는데 문이 있는 데를 찾아다니겠습니까? 당장 지금 죽어가는데 벽이라도 뚫고 들어가야지 언제 문을 찾겠습니까? 그래서 문이 없는 문을 알아야지 문을 그렇게 찾아다닌다면 공부 못해요.

그리고 부처님도 둘로 보지 마세요. 부처님 마음이 여러 보살의 이름으로 탄생을 했지만 그것이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결국 부처님의 마음, 즉 한마음 속에서 전부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니 진짜 제대로 배우고 가신다면 형상의 부처님을 뵙더라도 너무나 성스럽고 위대하게 보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도리를 모르면 '그냥 만들어 놓은 불상인데 뭐.' 이러시겠지만, 완전히 터득을 하신다면 하나못해 돌 하나 세워놓은 것도 살아서 움죽거리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미 과거로 돌아가고 남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물은 물같이 살라 하고 산은 산같이 살라 합니다. 보십시오, 봄이 되니 싹이 나고 꽃이 피지 않습니까. 추운 겨울에도 봄을 기다리며 나무는 인내하며 놓고 갑니다. 나무도 그러는데 하물며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처님의 뜻을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관법(觀法)은 누우나 앉으나, 내가 좀 참구해 보겠다 하고 지켜보면서 '주인공! 당신만이 당신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 하는 것이 관법입니다. 당신이 있다는 것을 당신이 증명할 수 있는 것이지 바깥에서 증명할 수는 없는 겁니다. 주인공만이 자기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뛰어넘고 뛰어넘는 교차로가 바로 거기입니다.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쉴 수 없다면 죽을 것이고, 내쉬고 들이쉴 수 없다면 죽을 것입니다. 그 양면이 교차하는 그런 틈에서 숨을 쉬고 그대로 살아 있는 바로 그놈이 있으니까 그놈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그놈밖에 없다고 관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생활을 들이고 내는 것이 자기가 있기 때문에 들이고 내는 것이 아닙니까? 자기가 없다면 들이고 낼 건덕지가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숨을 들이쉬고 내쉴 수 없다면 이 공부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배낭이라는, 종이라는, 집이라는 육신에 50%가 달려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 50%의 물질이 없다면 이 참마음도 알 길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 이것과 저것을 분리하고 나누려는 생각도 그 자리에 그냥 둘려 놓고 참다운 지혜가 나오게 하는 것도 당신밖에 없으니 글자의 소식 말고 내면의 소식을 알게 해 줘야 하지 않겠는가 하며 관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보신 샛별의 의미

문 부처님께서 새벽녘에 샛별을 보고 깨우쳤다고 하셨는데, 그 샛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 부처님께서 동쪽의 샛별을 보고 깨우쳤다고 그러는데, 그건 말하자면 불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 샛별이라고도 할 수 있고 자불(自佛)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부처님께서 샛별을 보고 깨우치셨다는 말에서 샛별은 자기 근본을 이르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본을 말하는 거거든요. 생명이 딱 태어나서 으앙하고 우는 것은 샛별이 밝게 터지는 거나 같습니다. 그리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별성도 옷을 입고 있어요. 별성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별을 볼 수 있는 거지 옷을 입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별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별성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옷에 의해서 반사가 돼서 마음으로부터, 그 생명으로부터 반사를 이루고 바로 그 보이는 모습으로 인해서 물에도 비치는 겁니다. 우리도 그 마음의 근본적인 자기의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낼 수가 있고, 낼 수 있기 때문에 육신이 움죽거릴 수가 있고 또는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전달할 수도 있고 지혜로운 마음을 비춰줄 수도 있고 스스로, 보이지 않는 데서 서로가 서로를 상응할 수 있고 무생들의, 그 무수한 천차만별로 돼 있는 보이지 않는 생명들에게 서로 상응할 수 있고 보이는 마음들하고도 같이 상응할 수도 있고 모습도 같이 모이면서 헤어지고 헤어지면 모이는 이러한 진리를 우리가 세세생생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 샛별과 상봉을 하게 되면, 내 마음이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놓고 가든지 생각을 하는 모든 것을 다 놓고 갈 수 있다면 내 속의 생명들도 다 같이 따라서 하나가 돼줍니다. 오로지 한 군데다, 의식들도 다 그냥 오로지 한 군데다 하게 되면, 그러면 내 안의 모든 의식들이 샛별의 식구가 되는 거지요. 우리는 육신으로 임신을 해서 이 세상에 육신이 나왔어요. 그러다 육신이 태어나가지고 성장을 하니까 이제는 마음을 깨우치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태어나야지 육신과 더불어 실상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물질세계와 정신세계를 같이 저울에 달아도 기울어지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세계도 버려서 되는 게 아니고, 즉 말하자면 육신을 버리면 공부를 못해요. 육신도 소중하고 정신계도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정신계로 인해서 육신이 생겼거든요. 정신계로 인해서 육신이 형성됐고 형성된 자체를 끌고다니는 정신계의 주인공과 바로 하나가 돼서 돌아가는 그 이치, 그런 이치가 깃들어 있는 말이 샛별이라는 겁니다. 이걸 말로 다 할 수도 없는 거지만 그저 이렇게라도 하는 말 한마디에 여러분이 그 마음의 샛별을 보고 다 눈을 뜨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불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

문 불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은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점이 불교의 좋은 점이라 할 수 있습니까?

답 불교에서는 '자신을 발견하라. 너부터 알고 너부터 발견해야만이 영원하다' 고 했는데 어떤 다른 종교에서처럼 상대를 보고 믿고 상대를 보고 기도를 한다면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로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 모두가 하나로 돌아가는 이치에서 본다면 '자기부터 알았으면 그 도리를 모두 알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불교에서도 상대를 놓고 기도하고 상대를 놓고 빌고 그런다면 그것은 자기를 발견할 수도 없거니와 자기를 뛰어넘을 수가 없죠.

자기가 자기를 믿게끔만 해준다면 어디로 뒹굴어져도 거기 있고 저리로 뒹굴어져도 거기, 주처가 거기 있기 때문에 도움을 그대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있는 분은 따로 계시고 나는 그분을 믿는다, 나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이런다면 나는 항상 중생일 뿐입니다. 능력있는 분이 따로 있고 내가 그렇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여튼 바깥으로 찾는다면 내가 될 수 없다는 말이 금방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겉으로 생긴 게 아니라 속에 종자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지 불성 종자가 없다면 인간으로 태어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모습으로도 태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의 종자는 바로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영혼을 다스릴 수 있는 주장자라야 되겠죠.

얼른 쉽게 말해서, 나로부터 주처가 있고 나로부터 이 몸뚱이가 하나로 돌아가는 거죠. 전체가, 우주 전체가 하나로 돌아간다는 거를 알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상대의 이름이 돼버리고, 자기의 생각으로 나는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돼버리니까 자기는 항상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말하기를 법당에 들어오면 당신이 법당에 들어 왔기 때문에 부처님이 계신다고 합니다. 당신이 법당에 왔기 때문에, 당신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있는 것이지, 당신이 법당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부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의 형상도 자기의 형상과 둘이 아니요, 마음도 둘이 아니요, 생명도 둘이 아니요, 전체가 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모든 것이 마음에 있다고 했습니다. 도(道)란 곧 마음이죠. 이 마음이 벗어난다면 정말 삶의 보람을 느끼고 영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모습을 해가지고 나오려면 나오고 말려면 말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불교는 자기 구원의 종교이며 스스로 그 자생중생들을 다 제도하여 자유자재권을 송두리째 얻는 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쁘든 언덕일 땀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인터넷 부다피아(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 · 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 · 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최소규격 및 가격

세로 5cm × 가로 4cm (1회 4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회이상 게재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건강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선관단식
⊙수련원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5)834-1115~6
016)849-3858
012)1166-38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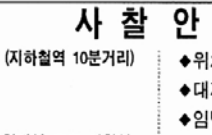
강좌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신입생 3600명 모집 (53기)
- 9월 28일까지 (주간, 야간반)
◆7층 7보탑 낙성식
- 9월 20일 (1인 원불 접수중)
◆행자 모집 (행자원 2기)
- 선착순 10명
- 노동아닌 교육위주
- 신사고, 개혁불교의 산실(남 · 여)
◆통신과정, 인터넷 과정 모집중
(www.TVbuddha.co.kr)
053)474-8228
대한불교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주지 우학 『저거는 맨날 고기 묵고』 저자

견성체험지도 책 · 테프 판매!
1.생물 = 생명(⑦+업) + 육체(원소)
(1).⑦; 자유자율성, 不生不滅, 능동,無形,무념, 무주처, 무게부피無
(2).업(기록물); 경향(습관)성, 有生不滅, 有形,유념, 유주처, 무게부피無
(3).육체(물질, 무생물); 법칙성, 부자유,수동타율, 生滅,有形,무게부피有
2.견성 ; 볼래야볼 수없는 ⑦을 ⑦ 이보는경지.
3.깨달음 ; ⑦이 나다라는 확신이 서는 경지
4.성불 ; 자신의 의지로 맑고 청정한 본연의 ⑦의 상태를 유지하는 대원경지
박민수 참선 교육원 02)2061-2356
http://min soo zen.pe.kr 017)609-9068

수인작법 사주팔자
▶ 옛고승과 도인에게만 전수되 내려온 비술
▶ 손하나만으로도 몇년전, 몇월, 몇일의 운세 점검 몇년후, 몇십년후 몇월, 몇일 몇시의 일도 예측할 수 있는 작법
▶ 명리를 배웠어도 시원치 않는 분
▶ 운명학을 배웠어도 시원치 않는 분
▶ 내림굿을 받았어도 점괘가 시원치 않는 분
인연있는 분에게 전수합니다
02)918-5554 / 017)317-1597

易學講座
사주학 전문 (단원선생 직강)
■ 개강 : 9월 15일 오전10시
(수시입학도 가능) 테잎도 배포함
※ 쉽게 배우고 특히 다른곳에서 배웠어도 이해가 않되는분. 통변의 달인
02)2275-7114

2000년 초발심 불자교육을 위한 (3개월 과정)
원효정사 불교문화대학 제3기생 모집안내
1. 교육대상 불교공부를 하고자하는 모든분(초심자 환영)
2. 개강 : 2000년 9월 19일(화) 오후2시 지도법사 : 세정스님
교육내용
▶ 각기초교리전반, 사원예절, 사경, 기도하는법
▶ 초심자에게 필요한 모든 교육실시
▶ 수업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2시 ~ 4시
3. 모집방법 및 전형
초급반
▶ 모집인원 소수 정예반(30명)
▶ 입학원서(본회양식) 명함판사진2장
▶ 특전 본과정 수료후 수료증 수계증 수여
4. 원서교부 및 접수
▶ 개강식 2000년 9월 19일 오후2시
▶ 본 문화대학 사무국
▶ T. 02)744-3413 ~ 4 F. 744-9686
▶ 입학금 : 7만원 3개월 수강료 교재비 포함


원 효 정 사
불교문화대학

구인구직

급 구
사찰운영하실 스님
사찰 운영하며 수행정진하실 스님에게 절집 살림 집 가등을 무보시로 인계하며 평생동안 동고 동락하며 불사하실 비구 · 비구니스님을 찾습니다.
■ 위치: 정읍 내장사와 백양사 중간지점임
■ 조건: 40세 미만인자
운전면허 소지
역학에 관심있는 스님
011)890-7618 주지합장

공양주 보살 구합니다
경북 상주 관음사
054)532-0614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숙식 제공)
가족처럼 지내실 분
경남 통영시 보광사
055)648-0427

함께 사실 스님 모십니다
■ 여사무원 구함
■ 종무행정 가능한자
033)433-6611
011)361-9176

조용한 사찰에 기도하면서 같이 지낼분 연락바랍니다
052)254-2427
011)562-5556



시험합격
(승진,소원성취)
八公山 갓바위 천일기도후 경명주사로 직접그린 달마
■ 보급가 : 3만원
■사업성취 : 금니로그린 달마 5만원
053)982-4976 /011)813-3679

벽 조 목
(벼락맞은 대추나무)
108염주 스님 = 12만원
신도용 = 6만원
학생시험기도용 = 3만원
■ 워낙 희귀하여 진품이 어려운데 600년된 진품이 여기 뜻있는 인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좋은 물건은 인연따라 주인을 만납니다
053)982-4976/011)813-3679

♣보 리 수♣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 주 불교악세사리 광 약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0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핸드폰 : 017-231-5345

대체의학 체험교실 회원모집
(성인병 예방과 처유)
비만 · 당뇨 · 관절염 · 만성피로
위염 · 간염 · 고혈압 · 정력쇠퇴
· 2000년 9~12월(월 · 금 오후2시)
· 장소:연화사(시흥대로 한양아파트 앞)
02)809-4542/011)232-8275

(제주도) 중문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찰부지, 토굴부지, 별장지, 콘도부지, 연수원부지, 요양원부지, 과수원 기타 사실분, 파실분 환영
· 급매물 중문관광단지 입구 대지 340평 지하 1층 자상2층 가든 및 민박 최고 요지
064)738-7497~8
011)697-7496

보이산차
벽돌전차, 육보차
칠지범치 소티치
고산 오룡치 철관음
※ 도매가 판매 ※
전화주시면 견본보내드립니다.
02)911-6798
017)406-6682
茶道里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마늘의 약효
마 늘 커 피
100% 토종 구운마늘
◆심한 피로 · 정력강화
◆간기능 획기적 개선
◆혈압, 혈당치 낮추고 장 · 변비개선
◆손발냉증 · 피부 고와져
◆감기에 강한 체질로
▶가격 : 분말(230g) ₩39,000
환 (250g) ₩45,000
동양물산(주) 02)2236-0748

탈 종 공 고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법 명 : 지연
◇사 찰 명 : 창원시 북면 월계리 627-628번지
(경남 의창군 북면 북계리) 백월암
본인은 귀종단의 종지와 종풍이맞지 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합니다.
2000. 9. 5
신도회장 박진태 / 부회장 장옥자 /총무 김옥선
재무 오봉이 / 마을주민 일동

탈 종 공 고
대한불교 연화종 총무원장 법하
◇법 명 : 법해
◇사 찰 명 : 경남 하동군 수도암
본인은 귀종단의 종지와 종풍이맞지 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합니다.
2000. 9. 8

다도 교실
차에 관한 기본 교육
· 차마시는 법 · 행다법
· 명상법(단전호흡법, 관법)
· 도자기 근실(찻잔만들기)
· 1박 2일 숙식제공
· 지리산 다도학동(지리산쌍계사부근)
055)883-9321
http//:internet.hitel.net/~19321

사찰안내

포교당 안내
◆위치 : 부산 식물원 입구
◆평수 : 37평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500만원
02)482-4550
011)306-9295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광역시내
◆ 2층 43평
◆ 법당 : 29평 석가모니불(동불) 관음지장 후불탱화, 신중탱화,법고(대북), 범종, 피아노,고려대장경 24권봉안 스님방1, 신도방1 주방, 샤워장 욕상사용
◆ 가액 : 보증금400만원
(월)45만원 시설비별도 절충가
011-790-7162

사찰 안내
◆위치 : 경남 사천읍내
◆평수 : 종교부지500평, 대지110평
◆법당18평 (삼포집, 콘크리트 저)
요사채116평 ,그외 건물2동
◆가격 : 3억 8천만원
055)852-1595

사찰 안내
◆위치 : 서울
◆부지 : 230평
◆법당 : 18평
◆요사 : 18평
◆가격 : 2억 7천만원
02)723-4082
광진불사

암자(급) 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자양면에 자리한 산세수려하고 임법당의 기도도량임
◆ 함께 기도 정진하실 비구니 스님, 보실님 식구분들 구합니다.
◆건강이 안좋으시분 수양 기도 가능함
◆전세 월세 매매가(4200만원) 절충 가능함
054)338-1237/018)510-1237
연혜스님 합장

사찰 안내
◆ 위치 : 남원 전주간 국도 2분거리
◆ 대지 : 120평, 법당30평 방7개, 삼존불(108불조성)
◆ 가액 : 6천만원
063)634-8607
017)622-1491

사 찰 (급) 안 내
◆위치 : 경남 마산시 회원구 회성동 서마산 IC 건너편
◆대지 : 435평 종교대지 등기필
◆건물 : 법당31평, 목조(삼포,오포,금단청필) 요사80평, 방10칸, 주방2칸, 거실, 명부전9평 단청필, 주지실 · 사무실12평, 창고 약4평 주차장100평 이상 차량 무제한 주차 가능
◆가액 : 8억 건물완공4년, 총공사비 12억, 대지 평당 90만원 이상감.
◆특징 : 마산시내에서 개인사찰로 가장 큰 도량으로 창건주 신병으로 저렴한 가액에 양도합니다.
055)294-4889 / 02)351-4447

사 찰 안 내
◆위치 : 서울시내 산속 (지하철역 10분거리)
◆부지 : 120평
◆법당 : 40평
◆요사 : 40평
도심 속 산밑에 있는 현대식 포교 사찰임
텃밭 100평 별도로 있음
◆가액 : 3억
◆위치 : 서울시 동작구 소재
◆대지 : 25평 (등기 이전됨)
◆임법당 건물 1동
◆요사 : 방2개
◆가액 : 7천 5백만원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 국 불 사**
02)561-7791
018)273-9390
※전국소재 사찰,암자 양도,양수하실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 찰 안 내
◆위치 : 부산근교
◆법당,요사,참선방, 주차장
◆부지 : 8,000평
◆가액 : 6억 5천 (답사후 절충가능)
주인 011)9314-0780
※전국사찰 다량보유, 양도, 양수하실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 연결하여 드립니다.
◆위치 : 부산서구
◆부지 : 70평
◆법당및 요사 : 70평
◆임대료(전세) 6천만원
청 송 기 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안내
◆위치 : 경남 마산시
◆법당 : 약20평, 요사2동 즉시법회 가능 시설일체기증 주지실 별도
◆가액 : 답사후 결정
011)859-2252

토굴 안내
◆위치 : 구미시 옥성면 덕촌2리
◆평수 : 356평 (실평수 약 450평 산신각3평, 컨테이너(3×6)1채
◆특징 : 서산에서 7분거리 토굴까지 포함. 중부내륙고속도로 5분거리 자두나무 30주 감나무60주
◆가액 : 1600만원
011)522-9391/053)982-4976
(오전9시~10시 통화할 수 있음)

포교당 안내
◆위치 : 부산시 북구 만덕3동
◆구조 : 3층건물3층38평(옥상사용가) (법당,대방, 중방,조리장, 화장실)
◆시설 : 청동석가모니불,청동 관세음보살, 후불탱화, 신중탱화, 영가단, 앰프시설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2300만원)
051)333-0172

사찰(급) 안내
◆ 위치 : 경주 시내에서 20분거리
◆ 평수 : 대지 160평, 건평60평 법당, 산신각, 요사채 주방 시설 일체완비
◆ 특징 : 국도가 가깝고 교통이 편리하며 산세좋고 물도 풍부합니다
◆ 가액 : 5200만원
052)292-3297

사찰 안내
◆ 위치 : 관악산
◆ 평수 : 65평 (대지)
◆ 건물 : 지하 15평, 1층 50평 (요사채) 2층 25평(법당)
◆ 특징 : 산밑, 아파트인접, 등산로, 약수터, 마을버스 절 간판
◆ 가액 : 2억 9천만원
011)241-0408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368번지 대동사
◆ 평수 : 대웅전12평, 칠성각12평 요사채, 방3개18평, 방2개 9평 산신각2평, 종각1동, 창고1동 실평수, 터는 국유지
◆ 가액 : 1억 2천만원(전세가능)
02)2267-7791/031)635-3775
019)466-7791

사찰 안내
◆위치: 지리산 청학동입구
◆건물: 임법당1동, 요사채1동(방4개)
◆특징: 주방, 욕실, 화장실 별도, 현대식 시설, 통나무집, 방2칸 주변경관이 좋고 주차장있음.
※하동화개 지리산 햇차 판매
포교원(전세) : 부산 동래 안락동
전세2천만원 월30만원 권리금2500만원
011)842-4549

사찰 안내
◆위치 : 강원도 인제군 내린천 상류
◆대지 : 450평, 전답 2,200평 대웅전 30평, 요사채25평 7층탑, 3층탑, 관세음 미륵상, 종 운판등 98년 창건
◆가액 : 3억 3천
033)462-8073

포교당 안내
◆위치 : 부산 식물원 입구
◆평수 : 37평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500만원
02)482-4550
011)306-9295

포교당 안내
◆위치 : 신대방3거리 전철역 (7호선)옆
◆구조 : 법당 30평, 요사채, 방 3개, 부엌, 화장실
◆가액 : 보증금 5천만원 (월60만원), 시설비 1천만원 또는 보증금 3천만원 (월80만원) 시설비 1천만원
011)741-2087

사찰 안내
◆위치 : 경북
◆부지 : 5800평중 대지600평 전 5,200평(준농림)
◆법당22평, 산신각4평, 요사채30평 (2동), 공양실 12평
◆특징 : 주변산세, 경관 뛰어나며 기도도량임. 납골당 최적지
◆가격 : 답사후 가격 결정
054)954-0391/011)501-2219

사찰 안내
◆위치 : 전남 진도군 지산면 심동리 187번지
◆ 평수 : 대지 80평, 건평40평 (임법당1개), 방4개, 유자밭120평 창고2개 15평
◆ 가액 : 7천 1백만원
011)746-3457
02)793-6036

사찰 안내
국제관광 및 물류도시 확정
◆위치 :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 도로 인접
◆대지 88평, 건평 60평, 2층집
대지 71평, 건평 50평, 2층집
대지 72평, 대지합 231평,
조경 주차장 완비, 지가 급 상승지역
◆가액 : 4억 3천(전세 8천포함)
윤자무, 교환가
033)462-8073

사찰 안내
◆위치 : 광주시 남구 월산동(시내중심가)
◆대지 : 325평
50년된 역사가 가장 깊은 유치원 있음. 2층 법당 고려청자기로 된 천불전 요사채 별도 포교로는 중심지로서 가장 적합함.
※ 능력있는 스님 환영※
◆가액 : 8억
062)368-8450/011)633-8450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와룡산 내 165번지
◆ 평수 : 대지 500평, 법당 1개 요사채 2, 목조건물
◆ 가액 : 1억 3천
※ 주차장 공간 가능
055)834-3282

암자 안내
◆ 위치 : 가평군
◆ 평수 : 1000평 이상
◆ 가액 : 답사후 결정
전세, 월세 가능
물계곡이 좋음.
017)708-0635

암자(급) 안내
◆위치 : 대구 갓바위 뒷길
◆요사채, 법당, 신축건물
◆평수 : 대지80평, 법당16평, 요사13평
◆특징 : 위치좋고, 조건좋고 (매매, 전세, 월세가능) 상담후 결정
011)551-1998

포교당 안내
◆ 위치 : 울산시내 아파트 밀집지역
◆ 평수 : 42평, 방3개, 주방1개 3층중에 2층
◆ 시설 :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에어콘, 대형냉장고
◆ 가액 : 2000만원 (월30만원) 시설비 2000만원
011)429-0222

토굴 안내
◆ 위치 : 충남 당진 (바다보임)
◆ 토굴이 필요하신 스님 연락바랍니다.
041)357-7208
011)269-7208

地·水·火·風 환경호르몬 잔류

환경부 조사 물고기·개구리서 '암수 뒤바뀜' 발견

지난 5일 환경부가 발표한 환경호르몬의 생태 영향과 환경 잔류실태 조사 결과 환경호르몬이 전국에 광범위하게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작년 4월부터 올 8월까지 17개월간 생태계와 환경을 대상으로 환경호르몬 잔류실태를 처음 조사한 결과 수질과 대기, 토양 등 113개 지점에서 환경호르몬으로 추정되는 13개 물질군 28개 물질이 검출됐다.

△국내 오염실태= 환경호르몬인 다이옥신의 경우 수질에서는 비교적 높지 않았으나 대기와 토양에서는 훨씬 높은 수치가 나왔으며, 대기중 다이옥신 농도는 일본의 평균 검출치(1.8pg)보다 2.5배나 높은 4.448pg(피코그램·1pg은 1조분의 1g)이었다.

이밖에 캔의 내부 코팅제로 쓰이는 비스페놀A, 플라스틱 가소제인 PCB(폴리염화비페닐), 헥사클로르벤젠 등 환경호르몬 추정물질이 광범위하게 나왔으며,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서 나오는 벤조피렌도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폭넓게 검출됐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개구리와 물고기를 대상으로 한 생태계 조사에서도 다이옥신과 헥사클로르벤젠 등이 검출됐으며, 일부 물고기와 개구리에서 암수 뒤바뀜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남 창원군 주남저수지에서 잡은 수컷 치리의 정소에서 난소에 있는 전난소막이 발견되고, 경남 하동군 섬진강에서 채취한 암컷 개구리의 난소가 정소로 변환중인 조직이 관찰되는 등 5마리의 물고기와 개구리에서 성관련 이상현상이 관측됐다.

△문제점과 대책= 물·공기·토양이 환경호르몬에 오염되고 그에 따라 식품이 오염되면서 실제로 국내에서도 산모의 모유나 태반에서 폴리염화비페닐이 관찰되는 등 환경호르몬은 이미 우리 생태계와 인간에 깊숙이 침투돼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환경호르몬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어떤 물질이 환경호르몬에 속하는지조차 분류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허용기준치도 전혀 없는 실정이다.

환경부는 다이옥신 등 특정유해물질에 대한 통합관리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대책을 서두르고 있지만 이보다는 민·관이 모두 참여하고 모든 산업의 생산과정을 통제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환경호르몬이란= 농약·중금속·플라스틱 가소제·합성세제 가운데 생물체의 호르몬과 비슷한 화학적 구조를 가지고 생체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하는 물질을 말한다. 환경호르몬은 정자수 감소·기형아 출산 등 생식계통의 이상뿐 아니라 면역계·신경계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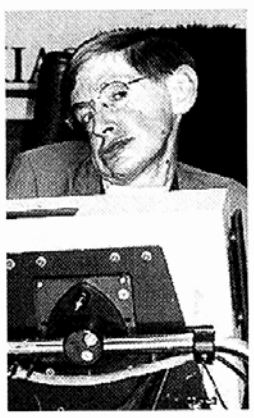
자연과 조화 깨질때 인간 생존 위협

불교의 눈

〈오왕경〉을 보면 사람의 몸은 네 가지 원소가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 네 가지 원소란 지(地)·수(水)·화(火)·풍(風)을 이르는 바, 이 중의 어느 한 원소가 조화를 잃으면 백한 가지의 병이 생기고, 네 가지 원소가 함께 조화를 잃을 때에는 사백네 가지의 병이 동시에 생겨난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 말은 자연과 인간이 둘이 아닌 하나임을 뜻하며, 자연의 조화가 깨질 때 인간의 생존도 위협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환경과 우리 몸이 둘이 아니라는 불교의 친환경사상이 자리잡아야 할 때다.

스티븐 호킹 '브레인 이론' 인드라망으로 해석 가능



세계적인 천체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가 최근 한국을 방문, 방한기간중 2차례의 대중강연에서 언급한 '브레인(brane) 이론'이 불교의 화엄사상과 맥을 같이하고 있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브레인 이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아인슈타인이 제시한 4차원(시간, 상하, 전후, 좌우)이 아닌 11차원(10차원+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아인슈타인의 상대론과 양자역학을 결합하는 많은 이론적 모델 가운데 현재 가장 각광받고 있는 '초끈이론(superstring theory)'에 따른 것이다. '초끈이론'이란 자연계를 구성하는 기본입자들이 사실은 미세한 끈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이론이다. '초끈이론'에 따르면 우주는 11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 4차원만 우리 눈에 보이고 나머지 7차원은 아주 작게 접혀 있어 관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용정 박사(과학사상 편집장)는 "초끈이론에서 말하는 '입자'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알갱이가 아닌 초속 30만 Km 이상으로 달리는 것들', 즉 우주선(線)이며, 이렇게 볼 때 초끈이론은 〈화엄경〉에서 말하는 '인드라망'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인드라망'이란 '제석천의 궁전을 장엄하는 그물망'을 뜻하는 말로 만물이 모두 상관관계를 갖고 연결돼 있다는 연기적 세계관을 의미한다.

또한 '입자'가 매우 짧은 순간적인 상호작용으로 '입자'의 성격을 띠는 것을 물적인 대상이 아니더라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연속적인 현상으로 보는 화엄의 사사무애(事事無碍)의 세계관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세계적 물리학자 프리초프 카프라의 이론으로 볼 때도 '초끈이론'은 천체물리학의 기본바탕이 불교사상에 맞닿아 있음을 보여준다.

호킹박사는 애초에 끈을 가지고 시작한 '초끈이론'을 연구하다보면 2차원뿐만 아니라 더 큰 차원을 가진 다양한 물체들이 존재함을 증명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물체들을 통틀어 브레인이라 부르며, 브레인에 관한 연구가 초끈이론에서 얻어낼 수 있는 우주론의 가능성을 한층 넓힐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불교적으로 해석하자면 브레인 역시 사사무애의 세계관에서 기능하는 '입자'로 볼 수 있다.

한편 호킹 박사는 방한 중 "우주는 영원히 팽창을 지속할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는 '사트바(존재)-카르만(업)'이 원인이 되어 우주가 생성되고 그 위에 생명체가 다시 산다는 고대 인도불교의 우주관으로 설명할 수 있다. 불교에서는 우주가 성주괴공(成住壞空), 즉 완성-유지-파괴-소멸의 과정을 반복한다고 보았는데, 이는 곧 우주의 존재근거가 생명체들이 작용하는 힘(사트바-카르만)에서 비롯됨을 의미한다. 이렇게 본다면 호킹 박사가 말한 '팽창'은 '사트바-카르만'의 작용에 의해 가능한 것이다.

목숨 내건 살빼기

엉터리 침술에 어지럼증 등 호소
향정신성 의약품도 마구 복용

목숨을 건 '살빼기' 행위가 위험수위에 다다랐다.

최근 전국 각지에서 살을 빼고 싶어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엉터리 침술이 성행하는가 하면 중국산 향정신성 의약품이 살빼는 약으로 유통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더욱이 엉터리 침술로 급소를 찔리거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다량 복용할 경우 사망할 위험성도 높아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서울 강남의 불법 침술소에서는 무면허 침술사로부터 침을 맞고 어지럼증, 설사, 구토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으며, 시술 후 살빼는 약이라고 건네주는 한약재 알약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분석결과 향정신성 의약품이 함유된 것으로 드러났다.

〈잡아함경〉의 '천식경'을 보면 부처님 재세시에도 비만에 대한 문제는 있었던 것 같다. 코살라의 파세나디왕은 부처님을 찾아 "비만을 해결할 방법이 없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부처님은 "마땅히 음식의 양을 헤아려 먹을 때마다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과식에서 오는 괴로움을 줄이고 건강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

이 이야기는 살을 뺀다 하더라도 건강을 해칠 정도로 다이어트를 해서는 안되며, 중도의 생활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다. 이것이 바로 불교식 다이어트법이다.

음주운전 단속 시민참여

앞으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지역 시민단체 회원들과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한다.

경찰청은 4일 전국 지방경찰청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국지휘관워크숍'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단계 경찰개혁 과제 추진방안을 내놓았다.

경찰의 이같은 방침은 과거 음주단속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나 사회지도층 인사, 인기탤런트 등이 교묘하게 빠져나가면서 특정인을 봐준다는 비난을 받아왔던 데다, 경찰과 유흥업소간 유착 의혹을 뿌리뽑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시론

배아복제와 윤리



김성철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복제 양 돌리가 탄생한 이후 유전공학기술이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다. 윤리와 과학의 갈등. 이는 새로운 과학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인구에 회자되어 온 아주 진부한 주제이다. 과학은 인간과 자연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일층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 역할을 하지만 윤리적 측면에서는 야누스와 같이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

수정란, 생명의 시작

그러면 유전공학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일까? 먼저, 여타의 과학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식을 향상시켜 주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유전공학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원자물리학의 발달로 인해 질량과 에너지를 구분하던 전통적 물질관이 시정되었듯이, 유전공학의 발달로 생명과 무생명, 인간과 짐승을 엄밀히 구분하던 우리의 전통적 생명관이 코페르니쿠스적 변화를 겪게 된 것이다. 그러나 윤리적 측면에서 볼 때, 유전공학기술은 다른 과학기술과 그 성격을 달리한다. 즉, 현재 행해지고 있는 유전공학기술의 경우 그것이 사용되는 과정뿐만 아니라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윤리적 문제가 발생한다. 불교에서는 전생에 죽어 떠도는 중음신(中陰身)인 '간다르바'와 '정자'와 '난자'의 삼자(三者)가 화합되는 순간부터 현생의 생명이 시작된다고 가르치며, 현대의 기독교 신학자들 역시 수정란의 단계를 생명의 시작으로 간주한다. 그런데 인간의 배아를 복제하여 각종 장기(臟器)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인간생명의 시발점이라고 부를 수 있는 수정란을 이용해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수정란이 하나의 인간으로 성장되는 것이 아니라, 간이나, 피부 등과 같은 장기의 일부를 생산하는 데 쓰이기 위해 적당한 발육 단계에서 해체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수정란은 하나의 인간으로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대체장기(代替臟器)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될 뿐이다. 그래서 종교인들은 유전공학기술의 개발에 대해 법적인 규제가 가해져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그런데 현재 이러한 비판은 대부분 서구적 종교관에 입각해 이루어지고 있다. 즉, 많은 사람들은 유전자를 조작하는 것이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일이라고 간주하며 유전자 조작 자체를 비판한다. 그러나 유전자에 변형을 일으킨다는 사실 그 자체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자연에서도 장기간에 걸친 유전자의 변형을 통해 이루어지는 '진화(進化)'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단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유전공학적 조작과정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부작용만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또, 복제양 돌리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그 기술이 인간에게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빚어질 위험에 대해서만 우려를 표시해 왔다. 그런데 복제 동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수정란의 세포핵을 체세포의 세포핵으로 대체해야 한다. 즉 수정란 하나를 죽여야만 동물을 복제해 낼 수 있는 것이다. 지금껏 서구의 종교인들은 이런 살생(殺生)에 대해서는 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불교적 견지에서 보면, 인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동물을 살상하는 행위는 윤리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다. 불교윤리에서는 '살인'은 물론 동물에 대한 '살생' 자체를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험을 통해 좋은 약품을 개발해내어 인간의 질병을 치료해 주는 것은 선업이지만 그 과정에서 동물을 살생하는 행위는 엄연한 악업이다. 선업으로 인해 악업이 상쇄되는 것이 아니다.

살생 그자체가 악업

과학자는 두 가지 업의 과보를 모두 받게 된다. 과학자는 실험동물의 살상(殺傷)을 통해 좋은 약품을 개발할 수도 있다. 또 수정란을 살상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배아복제 기술을 개발하여 질병을 치료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인과응보의 이치에 비추어 볼 때, 과학자는 약품과 기술을 개발하여 질병을 치료해 준 '선업'에 대한 과보도 받게 되겠지만, 그런 약품과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저지른 '악업'에 대한 과보 역시 감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약품과 기술의 개발을 용인하고 장려한 우리들 역시 과학자와 그 과보를 공유하게 될 것이다. '사회'는 공업(共業)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이),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謹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新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한국생약보존(산삼) 연구협의회
서울「장뇌산삼」사업부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28분 안에 선승과 같은 명상상태 돌입!

— "초월적 경험의 보편화" 신과학 뉴로테크놀로지 명상법 —



"도심 속 포교당에서 체험을 위주로 하는 명상을 지도한지 벌써 2년을 훌쩍 뛰어넘었다. 그 동안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고, 주변에서 이야기하고 또 스스로 그렇게 믿고있지만 나름대로 미흡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체계 있고 효율적인 방법이 없을까 하고 구상하던 중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분의 댁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분은 상당히 오랫동안 불면증에 시달리어 메가플러스를 구입하여 늘 사용한 결과, 지금은 불면증은 사라진지 오래고, 리듬 있고 자유로운 분위기 가운데 명상생활과 함께 다이어트까지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스님께서 명상을 지도하시는 만큼 명상기기로써 또 시스템의 한 방법으로써 사용해보시는 것이 어떻겠나고 적극 권유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별로 관심이 없어서 한 달쯤 그냥 지냈는데 우연히 모 월간지를 보고서 메가플러스가 어떤 명상시스템인지 알게되어 구입하게 되었다. 매일 거르지 않고 하루 한두 시간씩 수행해본 결과 지금은 5분이내에 깊은 릴렉세이션과 명상상태에 도달하며 학생들이 주로 한다는 9번에서는 뚜렷하게 집중력이 향상됨을 느꼈다. 내친김에 오라진동쿠션과 백색광안경을 추가로 구입하여 사용해본 결과(11번 지구에너지 명상, 17번 내적 즐거움, 19번 에너자이저) 역동적인 진동의 느낌과 함께 현란하기까지 하면서 환상적인 빛과 소리의 연속된 리듬은 빠른 시간 내에 사념을 통제하고 빛과 소리에 쉽게 집중시킴으로써 깊은 릴렉세이션과 명상상태를 유도하며 쌓였던 피로감마저 말끔히 씻어 주었다. 메가플러스 안내책자에는 명상이 무엇인지 체계있는 이론과 기법까지 상세히 설명되어 있어서 처음 명상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전문 수행인, 직장인, 주부, 학생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적용되는 메가플러스 명상프로그램은 현대사회를 사는 모든이들에게 공통되는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고 싶다. 자, 이제부터는 새로운 경험을 창조하자. 급변하는 21세기에는 명상은 누구에게나 필요로하는 수행이면서 당위인 것이다. 메가플러스의 다양한 명상프로그램으로 심신의 조화를 창조하고 보다 여유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말이다.

<은담명상체험교실 종익 합장 · (031)742-9859>

메가플러스



메가플러스는 릴렉세이션, 학습, 수면, 그리고 지구에너지 명상, 처크라, 유체이탈, 창의력과 시각화 등 20개 프로그램을 내장, 다양한 명상체험 가능 (기본시양 녹색광안경/옵션 청색, 보라색, 순백색광안경)

〈미국 마이크로핌사 제품 Made in USA〉

오라진동쿠션



오라쿠션은 메가플러스와 함께 작동되며 이를 체감진동으로 변형시켜, 특히 육체수준의 명상, 기공과 차크라, 유체이탈, 무시간상태를 보다 강력하게 증강시킴

〈미국 오라시스템사 제품 /중국 OEM〉

사용효과

재충전효과 : 짧은 시간 내에 신체이완과 깊은 휴식으로 생체리듬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피로회복, 스트레스해소, 정신안정, 불면증해소, 집중력 증강의 99% 효과를 보장한다.

명상효과 : 알파/세타파 중간지점(여명의 지대)에서 빛의 괄법(옹시태크닉/잰즈펜드)과 소리관법으로 크게 나누어 수행할 수 있으며, 메가플러스의 바이놀 비트와 램핑, 페이즈 기능은 전 차크라의 개방(에테르체 수준), 무시간/진공상태 경험을 보다 쉽게 유도해준다.

마인드테크 제품/구입문의 (02)888-2142

※ 전화주시면 「뇌파연구와 깨달음」 소책자를 무료로 우송해드립니다.



◇청교련소속 자원봉사 청소년들이 장애 아동들에게 수영을 가르치고 있다.

"함께 놀다보니 편견 없어요"

청교련 장애인 수영교실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는 3일 한국소아마비협회 정립회관 수영장에서 청소년 자원봉사 한마당인 '제1차 장애인과 하나되어 수영교실'을 열었다.

서울시 후원으로 2백여명이 참가한 이번 행사에서는 수영강습을 비롯해 말벗 돼주기, 식사보조, 레크리에이션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2인 1조가 된 청소년 봉사자들이 소아마비로 다리가 불편한 장애 아동들과 함께 물장구를 치며 수영도 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져 참가자들로부터 열띤 호응을 얻었다. 이어 레크리에이션 시간에는 '낱말 맞추기'와 10여명이 한 조로 단을 쌓는 '인간 단쌓기' 게임, 장기자랑이 열리는 등 청소년들과 장애아동들이 함께 땀흘리며 하나가 되는 흥겨운 시간이 연출됐다.

김주일 기자

건강백과

녹즙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가 이제 한풀 꺾였다. 그동안 무더위로 지친 사람이 식욕마저 떨어지게 되면 건강을 해치기 쉽다. 이럴 때 도움을 주는 것이 녹즙이다. 녹즙은 식욕을 되살리고 원기를 회복하는 데 효과가 있으며 다양한 비타민의 공급원이 되기도 한다.

의학적으로 밝혀진 녹즙의 약리작용은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항알레르기·혈압조절·간보호 기능이다. 최근에는 항바이러스·혈당강하 및 항암작용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먹을 때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경희대한방병원 송병기 교수는 "채소마다 독특한 성분의 독성이 있기 때문에 2~3가지를 섞어 먹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무생즙(무·당근·사과)=소화촉진, 강장 및 해독에 효과가 있고 니코틴 제거효능도 상당해 애연가들에게 권할 만하다.

▲당근생즙(당근·사과·샐러리·양배추)=조혈작용·식욕증진·야맹증 개선에 효과적이다. 당근 1개에는 하루 필요량의 3배에 달하는 비타민A가 들어있다.

당근생즙-식욕증진

양배추생즙-당뇨효과

알로에생즙-혈압조절

▲양배추생즙(양배추·당근·사과)=빈혈·위궤양·당뇨에 좋고 각종 질병으로부터 저항력을 키워준다.

▲상추생즙(상추·당근·샐러리·양배추)=비타민A·마그네슘·철분·칼슘이 많아 뇌와 신경에 활력을 주며 불면증 개선과 냉증을 막아준다.

▲미나리생즙(미나리·당근·시금치·샐러리)=식욕을 증진시키고 피를 맑게 한다. 칼슘이 많이 들어있어 잇몸과 치아가 나쁜 사람이 꾸준히 마시면 만족할만한 치료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케일생즙(케일·당근·사과)=위궤양·십이지장·소화불량·변비치료에 좋고 여드름이나 무좀 등 피부질환 개선에 도움을 준다.

▲알로에생즙(알로에·당근·양배추·사과)=칼슘과 비타민C가 풍부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다. 간장이나 신장의 대사기능을 높여 유해물질을 해독시키기도 하며 위장을 튼튼하게 하기도 한다.

청소년 인터넷방송국 '에띠엔' 10월 개국

N세대 불심잡기 나선다

청소년 불자들도 내달부터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N세대가 선호하는 불법의 바다를 유영할 수 있게 된다.

청소년들을 위한 인터넷 방송국인 '에띠엔(aeTEN.net)'이 10월 15일 개국돼 청소년 포교에 한몫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인다.

선재연구모임이 제작을 맡은 '에띠엔'은 2개의 인터넷 라디오 채널과 1개의 영상 채널을 운영할 계획이다. 우선 인터넷 라디오 제1채널인 'teenspirit'(10대의 정신)에서는 팝송을 비롯해 대중가요, 테크노댄스, 인디음악, 만화영화 주제가 등 N세대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사한다. 특히 웹자키로 뽑힌 유현진 양(성신여대)과 정향미(국립간호대) 양이 신세대 감각의 재치있는 화술로 진행하는 제1채널은 일반 청소년들에게도 인기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들에게도 웹자키의 문을 활짝 열어 놓고 있어, 원하는 사람은 오디션을 거쳐 방송 진행을 할 수 있다.

제2채널인 'love N you'(사랑하는 N세대)에서는 감성적이고 잔잔한 발라드 형식의 가요와 함께 청소년들에게 교훈이 될만한 내용을 발췌한 명상의 말씀과 개인 사연들을 소개해 준다. 또 N세대 법우들끼리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거나 청소년 지도 법사의 상담도 받을 수 있게 프로그램을 구성할 예정이다. 15일부터 시험방송 예정인 '에띠엔'은 또 3분 분량의 다큐멘터리 '들꽃 문화기행'과 문화 관련 행사 등을 방송하는 영상채널도 따로 마련해 놓고있어 언제 어디서나 컴퓨터만 있으면 청소년 문화 행사 소식을 생생하게 접할 수 있다.

라디오 2개 채널, 영상 1개 채널 운영
음악·상담·문화행사 다채롭게 소개

선재연구모임이 인터넷 방송국을 처음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은 96년 7월 이 모임을 만들면서부터다. 이때부터 회원들은 청소년 포교잡지 〈속삭임〉을 만들면서 21세기 청소년 포교를 위해서는 N세대들이 좋아하는 인터넷을 이용해야 된다고 입을 모아왔다. 이후 올 6월부터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며 개국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개국을 앞둔 청소년 인터넷방송국 '에띠엔' 제작팀이 프로그램 송출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이번 '에띠엔' 방송국 개국에 대해 디지털 열린 상담실 홍자운 실장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남에 따라 교계에서도 인터넷 포교의 중요성은 계속 강조돼 왔다"며 "다양한 컨텐츠로 청소년들의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일반 청소년 포교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부산의 모 수련관이 4월 '청소년 인터넷 방송국'을 개국했으나 수련관 자체의 동아리 활동과 행사 위주로 운영돼 청소년 포교에는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에띠엔'은 개국 후 영상 관련 전공 대학생과 청소년 지도법사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제작팀이 1주일에 1~2회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할 계획이다. 또 청소년들의 호응도를 감안해 찬불가와 국악교성곡, 인도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 채널 수를 늘릴 방침이다.

선재연구모임의 유지선 법사는 "영상을 위주로 하는 인터넷 방송국은 5백여개가 넘을 정도로 많이 개설돼 있기 때문에 수준높고 차별화된 컨텐츠가 아니면 유명무실해 질 수 밖에 없다"며 "불자뿐만 아니라 일반 청소년들이 음악을 통해 자연스럽게 불교와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라디오 채널을 택했다"고 개국 취지를 밝혔다.

한편 선재연구모임은 방송 제작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15일 조계사 산중다원에서 하루 찻집과 함께 '에띠엔' 개국식을 가질 예정이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청소년 단신

대전 전문상담소 개소

학습부진아와 장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심리검사 및 상담을 해주는 상담전문연구소가 6일 대전에서 문을 열었다.

이번에 개원한 인간발달상담연구소는 양명숙 한남대 교수를 비롯해 김문주 인천교대 교수 등 10여명의 상담교육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이 연구소에서는 매일 오전 10시~오후 5시 △학습부진아 및 장애아를 위한 검사와 상담 △시험불안 진단과 해소방안 상담 △사회성 함양훈련 등 각종 심리검사와 상담을 해 준다. (042)477-1044

양로원 찾아 봉사활동

봉은사 청년회는 17일 경기도 분산에 있는 관음대비양로원으로 봉사활동을 떠난다. 이번 봉사에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의 목욕과 세탁 등을 돕게 된다. 또 양로원 시설 청소와 어르신들을 위한 레크리에이션도 펼친다. (02)511-6070

디지털상담실 도움학교 지정

디지털 청소년 상담실이 8월 28일 청소년 보호위원회로부터 '청소년 도움학교'에 지정돼 1백만원의 후원금을 전달 받았다. 이에 디지털 청소년 상담실은 일반 청소년 상담 외에 비행 및 탈선 청소년들의 선도 교육도 맡게 된다. 또 이들 청소년들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직업에 대한 정보도 알려준다. (043)212-5711

서불청 봉선사 수계법회

서울불교청년회는 23·24일 양일간 남양주 봉선사에서 '기초교육원 제99기 수계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수계법회에는 기초교육원생 이외에도 청년 불자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철야정진도 함께 열린다. (02)730-9108

사찰 편액을 찾아서

⑳ 염재의 도갑사·천은사 편액



◇도갑사 해탈문 편액



◇천은사 설선당 편액

염재 송태회(念齋 宋泰會·1873~1943)는 전라남도 화순 출신으로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에 활동했던 서화가이다. 그는 일찍이 송사호(宋沙湖)에게 글씨를 배웠고, 글씨는 물론 사군자에도 능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그는 후에 조선미술전람회(朝鮮美術展覽會)에 입선을 하기도 했다.

염재의 글씨는 영암 도갑사 〈월출산도갑사〉, 장성 백양사 〈청운당〉, 순천 선암사 〈장경각〉, 순천 송광사 〈향수원〉, 구례 천은사 〈설선당〉, 〈수홍루〉 편액 등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사찰에 특히 많이 남아있다. 이는 그의 서화 활동 지역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며, 불우(佛宇)에 글씨를 많이 남긴 것과 함께, 1900년에 성용(成鏞)이 쓴 안양 삼막사 〈망해루〉 편액에 염재의 부탁으로 글씨를 썼다는 부기(附記)가 보이는 것 등으로 미루어, 그가 불교와도 남다른 인연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영암 도갑사 해탈문 앞쪽에 걸린 〈월출산도갑사〉 편액에는 두 인과 '송태회인(宋泰會印)', '염재(念齋)'라는 방인 도서 2과가 있다. 국보 제50호로 지정된 이 해탈문은 1473년 중건된 것으로, 1960년 해체 보수시 중도리 밑에서 발견된 묵서(墨書) 상량문(上樑門)을 통해 건립 연대가 확인되었다. 이 편액은 그가 많은 활동을 했던 1920년을 전후한 시기에 지금은 없어진 〈대웅보전〉 편액과 함께 써서 건 것으로 보인다. 편액의 글씨는 송(宋) 황정견(黃庭堅) 풍의 수일(秀逸)한 서미(書味)가 엿보이는 글씨이다.

월출산 도갑사 해탈한듯 빼어난 서미

설 선 당 선방 편액답게 선기 서려

구례 천은사 〈설선당〉 편액에는 두인을 비롯해 액판 좌측에 '염재(念齋)'라는 관지와 '염재(念齋)', '송태회인(宋泰會印)'이라는 도서가 있다. 이 편액은 변죽을 따로 붙이지 않고, 두꺼운 통판에 글씨를 새겨 걸었는데, 아마도 선을 참구하는 선방에 건 편액이기 때문에 별다른 장식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편액의 글씨는 송(宋) 황정견(黃庭堅) 풍의 계행(楷行)으로, 당대 명필 김돈희(金敦熙)의 영향을 받은 듯하다.

안병인 〈대한불교진흥원〉

23일 난치병 청소년돕기 음악회

이정현·DJ DOC등 출연

파라미타청소년협회는 23일 오후 7시30분 강북구민운동장에서 '제2회 난치병 청소년 돕기 한마음 음악회'를 연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인기가수 이정현을 비롯해 신화, 채정안, 홍경민, DJ DOC 등이 출연해 흥겨운 댄스 랩 뮤직을 선사한다. 또 서울시내 고등학생들로 구성된 청소년 록 댄스그룹도 초청된다. 입장권은 1인당 4천원이며, 강북구청 구민생활서비스 코너에서 판매한다. (02)901-6653

이병두 사무국장은 "이번 음악회는 카톨릭 평화방송과 함께 공동으로 난치병 청소년을 돕기 위해 마련한 뜻깊은 행사"라며 "행사 수익금과 당일 후원금 전액을 장애인과 난치병에 걸린 청소년들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겨울나무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싹을 틔웠지
꽃도 피웠지
단풍도 들었어

침묵으로
부서져 내리는 그 어깨 위에서
바람소리로 외쳤어

기다림이야

아직도 울 수 없는
사랑이야

『한맥 문학 7월호 시 부문 신인상으로 등단 당선 된 겨울나무 외 4편』



원장 이 영 숙

■大卒,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 대 결 혼 연 구 원

원장 이 영 숙 (법명: 無生子)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7-2호 현대 골든텔(오피스텔) 8층 811호 강남역 (2호선) 3번출구

☎ 대표전화 : 02) 522-5121
핸 드 폰 : 018) 277-5592

진아 꽃 피우는 방편의 꽃

우 담 바 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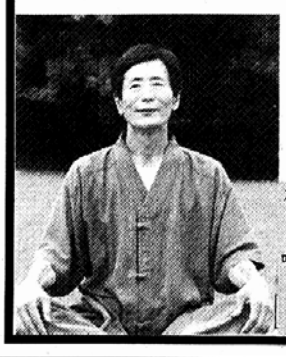
(하나한)

안은 엷어지나 밖이 두터워지는 비움 넘고
걸려들지 않으나 함께 못하는 바라봄 넘고
틈새 하늘 뿐 구름 못여는 이뭐꼬 넘어

부분에서 전체 찾아 相 집착 벗고
자연과 하나되어 담뿍퐁당 業習 벗고
자아 경계 자유로이 머뭄없이 마음내는 길

《체험소감》

"엄마 자궁 몸나 아닌 내 자궁 얼나로 부활영생 참 경지" - 신부
"먹고 싸고 보고 듣고 일함 모두를 道로 노자 소원 성취" - 교수
"아픔-我픔 나아짐- 나我짐 참나의 근원적 예방 치유 길" - 의사
"구름사이 하늘 아닌 구름여는 법 애고 가득 채워 해결" -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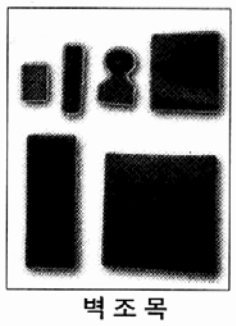
특 징

※궁극 현실 조화 좋아 겨냥
※언어 마음이전 존재 발굴
※종교 안밖 모든 방편 용해
※심각 아닌 진진 놀이 진행
※추가 과정 없이 한판 전수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천송리 517-1
031)885-1011/016)206-1001
매월 셋째 월15:00~토 15:00(55만원)
농협 111-12-336006 윤 석태
(일주일 전 예약 요망 준비 필요)

행운을 따르는 벽조목

벼락맞은대추나무의 수수께끼



벽 조 목

옛부터 벼락맞은 대추나무를 몸에 지니거나 보관하면 모든 화를 쫓고 행운을 가져오며 소원이 이루어 진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1998년 11월에 서울롯데백화점에서는 대입 수능시험을 앞두고 합격을 기원하는 행운의 나무 가지기 행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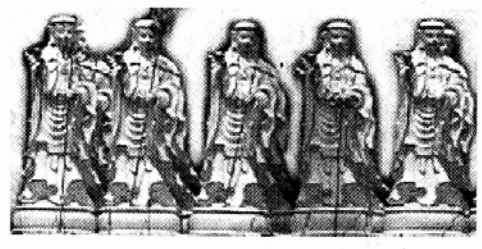
벽조목은 워낙 희귀하여 진품이 어려운데 여기에 진품이 있습니다.

옛 선사께서 좋은 물건은 인연따라 주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뜻이 있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

055)742-6044
011)554-6044

지장보살님을 모십니다



◈ 지장보살님을 조성하는 이유

불사하시면서 어려운 스님을 위해서 지장보살님을 조성해 드립니다.
불사를 하시고 싶으셔도 여력이 모자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님들을 위해서 불상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불사에 맞추어 조성해드리며 뜻이 있으신 스님 및 재가불자님의 연락 바랍니다.

◈ 금주산 약수물로 만든 약수 된장

병원에서 시한부 삶의 선고를 받은 한 보살이 금용사에 기도를 드리러 왔다. 기도드리는 중에 부처님께서 소금 10가마니, 메주10가마니, 큰통 10개를 주시면서 만인들에게 먹이도록 말씀하시면서 가셨다.
그후 병은 모두 다 낳았고 이것이 인연이 되어 된장을 만들어 보급하게 되었다. (택배가능)

금 용 사

경기도 포천군 영중면 금주리 산25-8
TEL:031)533-4405 FAX:031)532-3444

염주



- 금강주염주세트 30,000원
- 도실백팔염주(특) 40,000원
- 마노백팔염주8mm 40,000원
- 백옥백팔염주(대) 40,000원
- 백옥백팔염주(소) 30,000원
- 벽조목백팔염주 40,000원
- 보리수납작백팔염주 30,000원
- 생광석백팔염주 35,000원
- 수입옥염주세트 98,000원
- 수정백팔염주 8mm 50,000원
- 수정컷팅백팔염주 90,000원

단주



- 금강단주(특대) 11,000원
- 대추연꽃단주30mm 20,000원
- 도실단주(특) 10,000원
- 벽조목단주(소) 18,000원
- 사진단주25mm 46,000원
- 생광석단주 10,000원
- 주목단주 20mm 14,000원
- 주목단주 24mm 16,000원

합장주



- 무상합장주 14,000원
- 사금석T합장주 8mm 64,000원
- 수정주판알합장주 16,000원
- 수정컷팅합장주10mm25,000원
- 자수정마노합장주 16,000원
- 자수정커팅합장주 16,000원

산업자원부 추천 우수사이버몰

마 하 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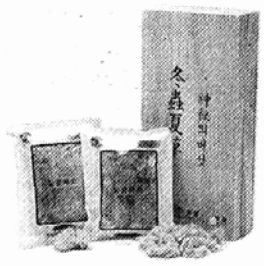
(http://www.mahamall.co.kr)

현대불교신문 인터넷 불교백화점 마하몰은 불교인의 정서에 맞는 불교 관련 제품을 다양하게 준비하여 고객 제일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쇼핑, 저렴한 가격, 마음껏 즐기는 불교문화 공간을 마하몰에서 만나십시오.

인터넷 마하몰에 오시면 더욱 많은 불교상품과 작품들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 주문전화 02-732-1522 (직통) 02-737-8881 (대표)



농장직판 – 신비의 버섯

동충하초

150g
1개월 복용분

가격 70,000원

오동나무 목침



■크기 가로 30cm 폭 13.5cm 높이 9.5cm

■가격 개 피 형 ₩20,000 무개피형 :₩15,000

정사각틀 에밀레종



신비한 걸작품, 사이버 사운드, 완벽한 종소리의 재현!

규격: 20×31cm
재질 - 청동

가격:₩210,000

경 상



전통적 경상을 현실에 맞게 간편하게 하였습니다.

· 규격: 72×34×32cm · 재질: 느름원목

■가격:₩85,000

참선명상방석



일 반 ₩30,000
숯기반 ₩35,000
황토반 ₩35,000

· 실용신안1998-025009
· 의장등록14087
· 인체공학적 설계로 척추보호

■규격: 39×43cm

청자당초 5人다기



■가격 :₩ 42,000
■요장 : 경기도여주
■재질 : 청자 토 + 재유 (천연유)

머그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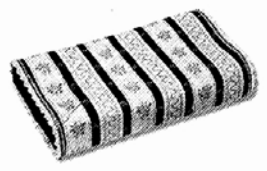
■ 2개 1세트 가격 :₩ 5,700

가마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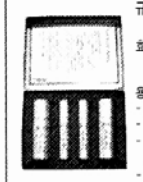
■가격 :₩30,000
■요장 : 경기도여주
■재질 : 바이오세라믹

옥베개



가격 : ₩33,000

석씨향방 오분향,생기향세트



규격 4개 1세트

효능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업기지효능이 있음

용도
- 불보살께 예불 기도 할 때
- 제사를 지낼 때
- 불결한 장소를 깨끗이 하고 싶을때
- 공포를 느낄 때
- 조상의 명복을 빌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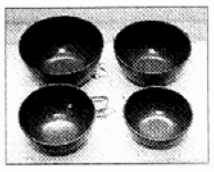
가격 : ₩60,000

눈안마기



눈의 피로 감소! 가격:₩49,000

황토로 만든 수행자의 그릇 와 발 우



가격: 4합 ₩60,000 / 무게 : 2.7kg
2합 ₩30,000 / 무게 : 1kg

백화향 선물세트

백화+신자단+천연목향+향꽃이



가격: ₩50,000

보원향 선물셋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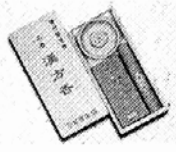
보원+만복침향+한방향+향꽃이



가격: ₩60,000

한방향 선물세트

향통+한방향+향꽃이



■가격 ₩25,000원

불자반지



재질 : 금 · 큐빅(1.5돈)

※싸이즈는 호수에 따라 제작해 드립니다.

가격:18k₩130,000/ 14k ₩120,000

순금도금 온 히란야메달



- 종도및효능 : 남녀공용 보호처럼 배당
- 재질 천연자수정,부부쪽 은테두순금도금, 루비 세팅
- 효능 정화작용에너지가 발생, 가슴(차크라) 심장에 에너지를 공급

지름 : 4.5cm 가격 :₩400,000

삼보죽염



황토가마에서 아홉번 구워낸 삼보죽염 !!
전통죽염 제조장이시며, 인간문화재이신 효산스님에서 기술고문으로 제조합니다.

- 삼보미용죽염 (250g) 가격 :₩3,500
- 삼보미용죽염 (500g) 가격 :₩6,500
- 삼보순소금 (500g) 가격 :₩6,500
- 삼보죽염 200g 가격 :₩36,000
- 삼보죽염 600g (Set) 가격 :₩105,000
- 삼보죽염비누 (110g 2개) 가격 :₩1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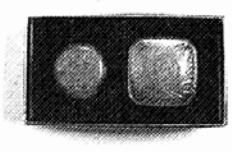
장군죽염



서해안의 청결한 국내산 천일염을 황토나무의 타이농고 산속의 오염되지 않은 참목의 소나무 장작만을 사용하여 1300℃가 넘는 고온으로 굽고 녹여 내린 제품!!

- 장군죽염-2회죽염 가격 :₩4,000
- 장군죽염-3회죽염 가격 :₩6,000
- 장군죽염-9회죽염 분말 가격 :₩36,000
- 장군죽염-9회죽염 선물세트 가격 :₩108,000
- 장군죽염-9회죽염 선물세트 (소) 가격 :₩18,000
- 장군죽염-9회죽염 알갱이 가격 :₩36,000
- 장군죽염-9회죽염 홍화씨환 가격 :₩36,000

금비누



■ 2개 1세트 가격 :₩25,000

발마사지 헬스기구



다양한 기능의 첨단고급 재료로 제작

가격: ₩39,000

수암 만다라 옥침

■가격 : 30,000원
■재질 : 천연옥, 무독성ABS수지, 황동, 24K순금도금테, 훼라이트 반영구자석 12007우스 X 4개

죠연열 건강벨트

원하는 온도조정 (36C~70C) 가능

가격: ₩105,000

마하몰 미니정보

마하몰에서는 불교상품의 선택폭을 넓히기 위해 「마하몰 미니 정보란」을 운영합니다..

제기와 제구

제사는 만물의 영장인 사람만이 지내는 것으로 인류 문화의 중요한 한요소이다. 제사는 동서 고금의 어느 사회에서나 형여져 왔다.
제사는 인류의 정신 사용에는 비롯된 것으로 사람을 다른 동물과 구별하게 하는 중요한 하나의 징대가 된다.

■ 제구의 종류

- 병풍(屛風) 제사를 지낼 장소의 뒤와 옆 등을 둘러친다. 현란한 그림이 그려졌거나 경사진치에 판련되는 내용의 글씨가 있는 것은 피한다.
- 교의(交椅) 신주나 위패를 봉안하는 의자로서 제상이 높으면 교의도 높아야 하고 제상이 낮으면 교의도 낮아야 한다. 요즈음에는 신위를 모두 제상 위에 봉안하고 있으므로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 신위판(神位板) 제사 도중 지방을 붙여 놓을 비품이다. 이는 예전의 신주를 대신하는 것이므로 신주 형태의 목패(木牌)로 제작하여 의자와 제상에 세워 놓거나 작은 사진액자 모양의 목판으로 제작하여 기제사 놓아도 무방할 것이다. 신주는 판리와 예법이 엄격하고 까다롭지만 신위판은 임시로 지방을 붙여 놓는 기구여 붙과 하므로 특별히 관리할 필요는 없다.
- 제상(祭床) 제사음식을 차리는 상이다. 120x80cm 정도가 되어야 제수진설에 적당하다.
- 향안(香案) 향상(香床)이라고 한다. 향로와 향합, 모삿그릇을 올려놓는 작은 상이다.
- 주가(酒架) 주전자,퇀주병,뇌주기 등을 올려 놓는 작은 상이다.
- 소탁(小卓) 축판을 올려 놓고 신위를 봉안하기 전에 임시로 모시는 작은 상이다.
- 소반(小盤) 제사 음식을 진설하기 위해 올릴 때 쓴다.
- 촛대(燭臺) 제상에 촛불을 밝히기 위한 도구이다.
- 향로(香爐) 향을 사르는 기구이다.
- 향합(香盒) 향을 담아놓는 그릇
- 모사기(茅沙器) 모래와 띠 묶음을 담은 그릇. 강신 때 띠수를 여기에 꽂는다. 이는 음지(땅)에 있는 신(혁魄)을 부르는 의식이다. 형태는 보통 굽이 있는 꽃봉이 수분(水盆)과 유사하며,여기에 깨끗한 모래를 담고 띠 한 줌을 한 뭄 정도로 잘라 가운데를 붉은 실로 묶어서 모래에 꽂는다. 이것은 당바닥을 상징한다. 표지에서의 제사는 땅에다 바로 띠수를 붓게 되므로 모사기를 쓰지 않는다.
- 축판(祝板) 축문을 끼워 놓는 투정이 붙은 판이다. 크기는 사방 30cm편 적당하다. 오늘날은 결제판이나 흰종이로 대체하는 것도 무방하다.
- 자리(석席) 마루나 땅에서 지낼 때는 하나면 되지만 묘제에는 바닥에 깔 만큼 준비해야 한다.
- 지필묵연합(紙筆墨硯函) 축문을 쓰거나 지방을 쓰기 위한 한지,붓,먹,벼루 등을 담아 두는 함이다.

■ 제기의 종류

- 시접(匙楪) 수저를 올려놓는 제기로 대접과 모양이 비슷하다.
- 탕기(湯器) 탕과 국을 담는 제기로 여러 모양의 것이 있다.
- 두(豆) 김치와 젓갈을 담는 그릇으로 굽이 높고 사각형이다.
- 떡그릇(병대) 떡을 담는 제기로 뒤판이 사각형이다.
- 모삿그릇(茅沙器) 모래와 띠의 묶음을 담는 그릇으로 보시기처럼 생겼으며 굽이 높다.
- 준항(준缸) 술을 담는 항아리이다.
- 준작(준勺) 주기로서 사기와 구리로 만든다. 작은 새 부리 모양으로 생겨 술을 따르는데 쓰인다.
- 변 과실과 건육을 담는 제기로 받침을 높게 하여 대나무로 엮어서 만들었다.
- 조(俎) 고기를 담는 도마 모양의 제기로 받침이 달려 있다.

음반



- 무비스님강의집(금강경 테이프 20개) 가격 :₩45,000
- 무비스님강의집(지장경 테이프 20개) 가격 :₩45,000
- 무비스님강의집(진심직설 테이프20개) 가격 :₩45,000
- 문구암스님범음범패집(테이프 20개) 가격 :₩66,000

· 관세음보살 정근 (영인스님 CD)	₩10,000	· 지장경(중)(영인스님 CD)	₩10,000
· 금강경(영인스님 CD)	₩10,000	· 지장경(하)(영인스님 CD)	₩10,000
· 부모은중경(영인스님 CD)	₩10,000	· 지장정근(영인스님 CD)	₩10,000
· 석가모니불 정근 (영인스님 CD)	₩10,000	· 천도제 의식 (영인스님 CD)	₩10,000
· 신묘장구대다라니(영인스님 CD)	₩9,500	· 천도타령염불(영인스님 CD)	₩10,000
· 약사여래불 정근 (영인스님 CD)	₩10,000	· 천수경 아미타경(영인스님 CD)	₩10,000
· 예불천수경 (영인스님 CD)	₩9,500	· 팔엉경(영인스님 CD) 승장기획	₩10,000
· 우리말 천수경(영인스님 CD)	₩10,000	· 화엄신중 정근 (영인스님 CD)	₩10,000
· 장고가락 염불(영인스님 CD)	₩10,000	· 회심곡(영인스님 CD)	₩10,000
· 장엄염불(영인스님 CD)	₩10,000	· 날개 CD	₩10,000
· 지장경(상)(영인스님 CD)	₩10,000		

향적원... 고향의 맛을 선물로

본 제품은 순창군 복흥면(해발300M) 지역에서 직접 농사지은 우리 농산물로만 제조하고 있습니다. 무농약,무방무제,무조미료 이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15도 이하에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선물세트1호 (고추장, 더덕장아찌, 각1Kg)	= 42,000원	※ 간장900ml서비스
선물세트2호 (무우, 오이, 감 장아찌 각 500g)	= 20,000원	※ 간장900ml서비스
선물세트3호 (된장, 고추장, 더덕, 마늘쫑, 무우장아찌 각500g)	= 39,000원	※ 간장900ml서비스



향적원 선물세트

- 고추장 12,000원
- 무우 장아찌 12,000원
- 된장 8,000원
- 마늘쫑 장아 12,000원
- 쌈장 8,000원
- 된장 콩잎 12,000원
- 더덕 장아찌 30,000원
- 된장 찻잎 12,000원
- 오이 장아찌 12,000원
- 산초 장아찌 30,000원
- 감 장아찌 12,000원
- 울외 장아찌 12,000원
- 냐나스키 12,000원
- 간장(1.8L) 9,000원

판매가 (본 제품은 1kg 기준임)

남원 동천목 제기



■재질 : 지리산오리목
■가격 : 172,000원

남원 동천목孝제기



■재질 : 지리산오리목
■가격 : 203,000원

성묘용 이동식(휴대용) 제기



■재질 : 지리산오리목
■가격 : 88,000원

홍화란?

국화과에 속하는 일년생 화초로써 엣날부터 잇꽃이라 불렀으며 잎이나 꽃받침에 가시가 붙어있고 씨의 크기는 해바라기와 흡사하여 홍화꽃잎은 예로부터 웃감연료, 연지, 화장품으로 이용되었으며 한방에서는 풍경제나 어혈을 풀어주는 파혈제등으로 사용되었다.



홍화씨

■원료 -볶은 홍화씨 100%
■용법-볶은 홍화씨를 물2리터에20g정도 넣고 충분히 끓인 후냉장고에 보관후 수시로 드시면 좋습니다.

■용량500g (1봉지)
■가격:25,000원



홍화정

■원료 - 홍화씨 80%, 하수오 뿌리, 마뿌리 산수유 열매, 황기, 두충껍질, 찹쌀 등의 약재를 넣어 드시기 편하게 정(환)으로 만든 제품
■용법 - 1일 3회 매회 3g(T스푼 1숟갈) 정도를 생강차를 곁들어 드시. 더욱 좋습니다.

■용량: 200g 3통 / 250g 2병
■가격:120,000원 / 77,000원



홍화분말

■원료 - 홍화씨 100%를 미세하게 갈아서 만든 제품
■용법 -1일 3회 매회 3g (T스푼 1숟갈)정도를 생강차를 곁들어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용량: 200g 3통 / 250g 2병
■가격:90,000원 / 65,000원



홍화엑기스

■원료 -홍화씨 80%, 대추, 하수오뿌리, 마뿌리, 산수유, 황기뿌리, 두충껍질 등의 약재를 4~5시간 고농축 엑기스로 드시기 편하게 만든 제품
■용법 - 1일 2회 식전에 복용하시면 됩니다.

■용량: 80ml 60포/ 80ml 48포
■가격:128,000원 / 98,000원

베지푸드

콩에는 포화지방이 적고 아미노산이 소화되기 쉬운 형태로 들어 있으며, 풍부한 비타민(비타민A,B,E,K)과 균형 잡힌 무기질(칼륨, 철, 인, 칼슘)이 함유되어 있으며, 특히 아이소플라본(제이스타인, 다이드제인)과 같은 식물성화합물로써 건강증진에 특효입니다.



콩살로만

■ 설명
콩단백과 유청단백에 천연향료를 첨가하여 담백한 햄맛을 낸 제품
ISO9002 인증획득
무방부제, NO 콜레스테롤

■수량: 1000g 2개
■가격:28,000원



콩살들이

■ 설명
콩단백과 유청단백에 천연향료를 첨가하여 담백한 햄맛을 낸 제품
ISO9002 인증획득
무방부제, NO 콜레스테롤

■수량: 1000g 3개
■가격:36,000원



콩비엔나

■ 설명
콩단백과 소맥단백으로 햄맛을 낸 제품, 도시락 반찬 및 간식용으로 많이 이용됩니다.

■수량: 500g 4봉지
■가격:3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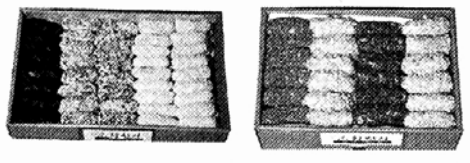


버섯말이

■ 설명
고급 표고버섯에 유청단백을 첨가하여 부드럽고 쫄깃쫄깃한 맛을 살려, 국, 볶음, 찌개용으로 다양하게 이용됩니다.

■수량: 150g 8봉지
■가격:32,000원

산촌유과 ... 한국정통의 유과



한과는 곡물 가루에 꿀, 엿, 참기름, 설탕 등을 넣고 반죽하여 꽃 모양 물고기 모양 같은 판에 박아 낸 다음 기름에 지지거나 조려서 만든 과자이다. 다른 말로 조과(造果)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천연꿀에 더하여서 만들었다는 뜻이다. 산촌한과는 사찰음식의 전문가인 김연식씨가 불교사원 요리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정통 한과이다.

산촌 들깨유과	90,000원	산촌 콩유과	30,000원
산촌 김유과	90,000원	산촌 쑥유과	30,000원
산촌 잣유과	100,000원	산촌 호박유과	30,000원
산촌 대추유과	100,000원	산촌 김치유과	90,000원
산촌 땅콩유과	100,000원	산촌 된장유과	90,000원
산촌 흑임자유과	100,000원	산촌 고추장유과	90,000원
산촌 파래유과	90,000원	산촌 감자튀김	54,000원
산촌 찹쌀유과	30,000원	산촌 감자유과	54,000원

※ 1BOX : 4kg 공통

이렇게 들었다 — 유해 농수산물

음식물 불신(Food Terror)이 위험수위에 있다. 납 꽃게, 납 복어, 납 병어…. 중국산 수산물에서 납덩이와 돌이 검출된 데 이어 한약재에서도 납 총알, 벽돌, 쇠철사 등 유해물질이 발견되면서 중국산 농·수산물에 대한 공포는 등골이 오싹할 정도다. 그 뿐인가? 서울시와 서울 YMCA 등 11개 시민단체가 추석을 앞두고 합동 조사한 결과 우통기한이 지난 쇠고기가 버젓이 백화점과 식육점에서 판매되고 있고, 발암물질이 든 묵과 황산 식용유 등 악덕업자의 상혼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남의 생명이야 어떻든 무슨 짓을 해서라도 돈만 벌면 된다는 끝 모를 황금만능주의로 인해 국민 전체의 생존까지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물을 준비하고 다루는 마음으로 음식물을 제조하고 납품하는 업자들의 자세가 요구된다.

남의 생명도 내 것처럼 소중

▨ 모든 대중은 모름지기 물을 걸러 마셔야 한다. 물을 거르고 나서 자세히 보아, 손바닥의 가는 금이 비쳐 보인 뒤에 써야 한다. 〈승기율〉

▨ 깨끗한 채소 위에 대소변을 하든가, 눈물이나 침을 떨구어서는 안된다. 또 먹는 물 속에 대소변을 하든가, 눈물이나 침을 떨구어서도 안된다. 〈비내야경〉

▨ 모든 불자들이여, 음식을 대할 때에는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하며, 좋은 것은 취하고 탓 없는 것이라고 싫어하지 말며, 마땅히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만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라. 〈불유교경〉

▨ 묵은 물을 자세히 관찰하면 작은 벌레가 생겨 있음을 보게 된다. 그러므로 이런 물은 거르지 않고는 마시지 말아야 한다. 〈정법념처경〉

▨ 풍미한 음식을 보면 마음을 경계하고, 무미한 음식을 보면 탐욕을 버려야 한다. 〈화엄경〉

▨ 음식과 옷은 향락의 수단이 아니라 소중한 몸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옷은 더위와 추위를 막아 몸을 보호하고 치부를 가리며, 음식은 깨달음과 불성을 성취하기 위해 수양할 때 양생(養生)을 목적으로 먹는다. 이런 사고에서는 속된 번뇌가 생기지 않는다. 〈일체루경〉

▨ 어떠한 생명이든지 자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마찬가지로 다른 생명도 저마다 소중히 여긴다. 〈상응부〉

▨ 모든 생명은 안락을 바라는데 폭력으로 이들을 해치는 자는 자신의 안락을 구할지라도 뒷세상의 안락을 얻지 못한다. 〈법구경〉

▨ 음식은 족한 줄 알고 또한 맛을 탐하지 않으며 몸을 길러 괴로움과 근심을 없게 할 것이다. 〈이마주경〉

▨ 의복과 음식은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있을 따름이다. 그러므로 선정에 들어 반성하여서, 족한 줄을 알아 최소한의 것을 취하도록 해야 한다. 〈법구경〉

▨ 발우를 씻은 물을 함부로 버리지 말라…. 물속에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지 말라…. 뜨거운 물을 땅에 함부로 버리거나, 아무데나 불을 피우지 말라. 〈사분율〉

▨ 보살은 온갖 고기를 부모의 피와 살로 생각해야 한다. 짐승이 고기 먹는 사람을 대하면 놀라고 두려워 하니 고기를 먹는 것은 짐승과 큰 원한을 맺는 일이 된다. 보살은 자비를 베풀고 중생을 거두어주기 위해서라도 먹지 말아야 한다. 〈능가경〉

▨ 수행자는 옷 입는 것에 대하여 세가지 옷만 가지며, 먹는 음식에 대하여 때아닌 때는 먹지 않으며, 머무는 곳에 대하여 나무 밑에 거한다. 〈불설십이두타경〉

▨ 음식을 보시하면 큰 힘을 얻고 의복을 보시하면 좋은 얼굴을 얻으며 수레를 보 시하면 안락을 얻고 등불을 보시하면 밝은 눈 얻고 집에서 손님을 기다리면 그 것 을 일러 일체 보시라 하고 법으로써 중생을 가르쳐 주면 그것을 곧 단이슬 보시라 하느니라. 〈잡아함 시하득대령경〉

▨ 몸을 절제하여 때에 맞추어 먹음으로써 깨끗하게 살아가야 한다. 〈유교경〉

▨ 다른 사문과 바라문들은 남의 신시(信施)를 받고도 다시 저축하기를 구하며 의복과 음식에 만족할 줄을 모르지만 사문 고오타마는 그러한 일이 없다. 〈범동경〉

▨ 악(惡)은 마음에서 나와 도리어 제 몸을 파괴한다. 쇠에서 녹이 생겨나 도리어 그 몸을 좀먹는 것과 같다. 〈법구경〉

▨ 독(毒) 중의 독은 삼독(三毒)보다 더한 것이 없다. 〈열반경〉

▨ 더러운 손으로 물그릇을 잡아서는 안되는 것을 응당 배워야 한다. 〈해탈계경〉

신행 캘린더

9월 21일 (목)

■ **수창정진회 오대보궁 참배**=수창정진회는 2박3일(21~23일)의 일정으로 오대보궁을 참배하러 떠난다. 영천암 주지 일허 스님을 지도법사로 통도사, 정암사, 월정사, 상원사, 백담사, 오세암 봉정암 등을 성지순례 한다. (051)866-1902

9월 22일 (금)

■ **보현불교대학 개관 9돌기념 발심법회**=대전 보현불교대학은 보현문화회관 개관 9주년을 맞아 오후7시 불교대학 큰법당에서 발심대법회를 봉행한다. (042)624-6555

■ **법장사 임원 및 자원봉사자 수련회**=법장사는 신도회 주관으로 충북 충주 월악산 미륵사지와 덕주사에서 신행단체 임원 및 자원봉사 수련회를 개최한다. 오전9시 절 앞에서 출발. (02)971-0303

9월 23일 (토)



◇음악은 너나할 것 없이 하나가 되게 한다. 파라미타는 지난해에 이어 23일 난치병 청소년돕기 음악회를 연다.

■ **난치병 청소년돕기 한마음 음악회**=파라미타 청소년협회는 오후7시30분 강북구민운동장에서 제2회 난치병 청소년돕기 한마음 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날 음악회에는 가수 신화, 이정현, 채정안, 홍경민 등과 청소년 락·댄스 그룹이 출연한다. 행사 수익금과 후원금 전액은 난치병 청소년들에게 지원된다. (02)901-6410

■ **원명사·동림사 성지순례**=조계사 신도회는 1박2일(23~24일)의 일정으로 김해 원명사와 동림사 성지순례법회를 봉행한다. 순례단은 원명사에 묵으면서 철야정진한다. (02)732-2187

요가의 모든것 100시간 강좌

한국요가연수원(원장 이태영)이 요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보급을 위해 요가지도자 양성에 나선다.

한국요가연수원은 20명의 정예 수강생을 대상으로 내년 2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2시 총 100시간에 걸쳐 요가지도자 양성을 위한 요가 이론과 실제, 수행 일반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요가사상의 기초, 수행을 위한 기초 생리학, 하타요가, 쿤다리니 요가, 라자 요가, 요가 교수법의 실제, 합숙훈련 등으로 진행된다.

요가지도자 과정을 이수하면 한국요가지도자연합회가 발급하는 요가지도자 자격증을 받게된다. 또 각 단체에서의 지도자 활동과 요가수련원 운영도 가능하다.

교육과정 등록은 연수원 이태영 원장과의 면담을 거친 뒤 결정된다. (02)888-5087

9월 24일 (일)

■ **수덕사 일대 문화답사**=조계사 문화답사단은 수덕사와 그 일대 문화답사를 실시한다. 답사단은 수덕사, 정혜사, 견성암 등을 참배하고 화전리 사면석불, 남연군묘, 삽교 석조보살입상 등을 찾아 사적(史的) 의미를 고찰한다. (02)720-1390

■ **미륵신앙지·유적답사**=광주불교교육원은 미륵신앙지 법주사 참배 및 유적답사 기행을 떠난다. 안내는 전 남도불교문화연구회 회장 이순규법사가 맡는다. (062)228-9098

■ **관수사 낙성식**=천태종 남원 관수사는 오전10시 운덕 총무원장을 비롯 종단 간부 스님과 신도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법당 낙성식을 갖는다. (063)633-3439

■ **정혜사 개원 3주년법회**=일산 정혜사는 오전11시 개원 3주년 기념 대법회를 봉행한다. (031)907-8900

■ **군법당 위문법회**=군불교진흥회는 강화 해병대 법당 무애원을 방문, 위문법회를 봉행한다. 법회 후에는 해병대 최전방 초소 제적봉을 둘러보고 선원사를 참배한다. (02)749-5135

9월 26일 (화)

■ **철도청 성북승무사무소 법회**=철도청 성북승무사무소 불교법우회는 오후 2시 월계동 기원사에서 정기법회를 봉행한다. 016-272-2386 정찬연

법회안내

'효사상과 교육' 법문



정락 용주사 주지 스님은 27일 과천 국가전문 행정연수원에서 '전통적 효사상과 학교교육'을 주제로 강연한다. (02)234-0040

'참불자의 길' 설법



혜국 제주 남국선원장 스님은 22일 오후7시 대전 보현불교대학에서 '참된 불자의 길'을 주제로 법문한다. (042)624-6555

기초교리 설법



성관 수원 포교당 주지 스님은 26일 오후2시 불교문화원 3층 만불보전에서 불교기초교리에 대해 법문한다. (031)255-2692

'지혜를 깨닫는 법' 법문



혜정 진각종 종학연구실장은 진각종 총금강회 경주포항지부가 30일 오후2시 경주 서라벌문화회관에서 개최하는 '경주·포항 밀교교리대법회'에서 '생활의 참 지혜를 깨닫는 법'이라는 주제로 법문한다. (054)772-2723

게시판

알림

▲**법화경 한문 강의**=법화삼부경 강원은 대구와 부산에서 각각 매주 토요일(오후2시30분~4시30분) 목요일(오후2~4시)에 법화경 한문 강좌를 연다. 대구 (053)952-8711 부산 (051)583-8711

▲**통일대화마당**=좋은벗들은 12월22일까지 정도회관 3층 강당에서 '통일미래를 준비하는 대화마당 143' 중 제3기 통일마당 강의를 실시한다. 이번 주제는 북한 사람들이 말하는 북한이야기'. (02)587-8996

▲**통일서예대전 작품공모**=평불협과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등 5개 단체가 공동주최하는 제4회 대한민국 통일 서예대전'의 작품을 공모한다. 공모분야는 한글·한문 글, 문인화. 고유서체, 전각이며 10월13~16일 접수한다. 원서교부는 평불협 사무국과 인사동 명신당필방에서 한다. (02)735-5558

▲**해외포교사 지망생**=자혜불교회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활동할 해외포교사 지망생을 모집한다. 만18세에서 40세 미만의 남녀로, 불교인이거나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된다. 단 사원 공동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미국 전화번호: 1-771-528-8685, E-mail :buddha@enteract.com

▲**무료직업소 개소**=자양사회복지관은 무료직업소를 개소하고 구인자와 구직자를 찾는다. 구인처는 전화접수 가능하며, 구직자는 복지관 방문접수. (02)458-1664

▲**장애아 치료 미술치료 프로그램**=청담종합사회복지관은 정신지체를 겪고 있는 초등·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개별치료와 그룹치료의 방법으로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개설한다. 개별치료는 선착순 5명으로 주2회 30분씩, 집단치료는 10명을 한 그룹으로 주1회 40분 과정으로 진행된다. (02)806-1376

▲**달마도 무료배포**=경산 효성사는 달마도를 소유하고자 하는 불자들에게 무료로 채색 달마도를 배포한다. 달마도는 주지 설봉스님이 직접 그린다. (053)857-2181

모집

▲**시민불교대학 교리반**=법장사는 시민불교대학 교리반 수강생을 모집한다. 강의는 매주 화·목요일 오후7시30분, 26회에 걸쳐 진행된다. 내용은 불교예절, 불교상식, 부처님의 일생, 불교교리, 참선하는 법, 수계교육, 불교문화 교육 등이다. (02)971-0303

▲**어산작법학교 학인**=불교의식 전문교육기관인 불교어산작법학교는 어산과(범패, 작법)와 습의(불전의식)과 학인을 모집한다. 19일 접수마감. 조계종의 비구(니), 사미(니)는 몰론 재가불자도 응시 가능하다. (02)921-3425

▲**범음·범패 교육대학생**=범음·범패 교육대학은 본과(1년), 단과(6개월), 일반부(3개월) 제1생을 모집한다. 응시자격은 스님 및 포교사 자격자 취득 희망자. 강의는 무형문화재 제9호 기능보유자 구암스님이 맡는다. (051)327-5095

▲**불교레크리에이션 수강생**=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는 25일부터 12월1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오후7시 조계종 사회복지 강의실에서 2급 전문지도자 과정 강좌를 개설한다. (02)738-7860

▲**소년소녀합창단원**=수원포교당은 가릉빈가 소년소녀합창단원과 어머니 합창단원을 모집한다. 소년소녀합창단은 초등학교 3학년~중학교1학년생을 대상으로 하고, 어머니 합창단은 만30세~45세 수원포교당 신도에 한한다. 오디션은 자유곡 1곡. (031)245-7048

▲**선체조**=조계사는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오전10시30분, 오후7시 선체조 문화강좌를 연다. (02)720-1391

▲**명상교실 이용자**=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은 19일부터 12월12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10시30분~정오 개설되는 제3기 명상교실 이용자를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20명이며, 참가비는 무료다. (02)989-4215

구인

▲**학습지도 강사**=부천 원종종합사회복지관은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학습지도를 맡아줄 강사를 구한다. (032)677-0108

한국전통민속·문화대학 설립에 즈음하여
(독지가나 투자 하실분을 모십니다.)

미래에 젊은 인재를 양성하고 우리의 전통문화를 연구, 개발, 보존해서 세계의 문화속에 우리고유의 전통민속문화를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보다 다양한 인재를 양성해 세계속에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전통문화 창달에 기여하여 국가관, 민족관이 살아있는 한국전통 민속문화 대학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1. 사업내용
- 학교 전통민속, 문화대학 설립 및 전통서당(학당) 설립

2. 교육학과
- 국악 및 전통악기, 민속한의학, 한문, 서예, 전통무예, 전통춤, 전통의복등 전통문화 관련내용

3. 예상 소요경비
- 300억원

4. 학교부지 (위치)
- 학교위치 선정은 국악의 발상지인 남원, 운봉, 구례, 곡성등으로 학교부지를 물색 중에 있으며 추후 독지가나 투자자 분들과 협의해 최종 학교부지를 선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학교 설립에 뜻이 있으신 독지가 분이나 학교설립에 투자 하실분을 모십니다」

◆가 칭: 한국 전통민속·문화대학 및 전통서당 (학당) 설립추진 준비위원회
◆설립추진준비위원장 : 이 학 수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30번지
TEL : 063)634-7283 H·P : 019)634-7283
FAX : 063)634-1237

※ 뜻있는 독지가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

■농 협 513148-52-061376
■우체국 400077-02-010610
예금주 : 이 학 수

조계종 종단사 펴낸다

불학硏 집필방향 확정…내년 10월 발간
종조 · 법통등 통일…"종단 정체성 확보"

종단 정체성과 종단관 확립의 기틀을 마련할 조계종단사가 종단역사상 처음으로 편찬된다.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소장 도원)는 2일 종단협 회의실에서 조계종단사 편찬을 위한 3차 워크숍을 갖고 편찬 방향과 집필원칙을 확정했다. 이로써 내년 10월, 조계종단사가 발간돼 종도와 일반인, 기본교육기관 학인등이 체계적인 공부를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에 발간되는 조계종단사는 종조와 중흥조, 법통 등 그동안 논란이 돼온 민감한 사안들이 어떤 형식으로든 정리되어 제시될 것으로 보여 관심을 끈다.

이번 워크숍에서 가장 논란이 된 근대이전 역사에 대해 학자들은 종단전체의 입장을 하나로 통일하여 담기가 어려운 만큼 연구사적으로 현황과 과제를 서술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하기도 했다. 그러나 종단의 역사를 바로잡는다는 입장에서 종단차원의 워크숍을 앞으로도 몇차례 더 개최해 이번 기회에 근대이전의 종단사를 부록의 형태로 정리하겠다는 것이 교육원의 방침이다.

2일 워크숍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 조계종단사 편찬방향은 종헌 · 종법에 입각하여 △연기와 동체대비의 관점 △인물 학술 문화예술 교화 역경 사상등 분야별로 폭넓게 △시대의 역사 정리 △불교적 이상과 실천 △수행자 선양등을 통해 종단의 미래비전 제시에 초점을 맞췄다.

총 4장과 부록 등 4백쪽 분량으로 발간될 조계종단사는 1장 개항 이후 조계종단사, 2장 일제강점기의 한국불교, 3장 8 · 15해방과 정화운동, 4장 조계종의 출범과 발전 등의 제목으로 기술되며, 근대이전의 조계종사는 부록으로 담는다.

주요 내용은 조계종 성립사, 종조와 중흥조, 법통설, 개화기 불교계의 자각과 현황, 도성출입금지해제와 승풍운동, 불교계의 사회활동, 원종의 성립과 의의, 불교중흥 노력과 사찰령, 불교자주화와 종단건립, 선학원 설립과 선풍진작, 총본산건설운동과 태고사, 정화운동과 한국불교전통회복, 종단의 자주성과 민주화, 개혁종단 성립과 발전등이 기술된다.

집필자는 김상영(중앙승가대 교수) 김광식(대각사상연구원 연구부장) 김경집(동국대 강사) 이재헌(정신문화연구원 강사) 박희승(조계종 총무원 기획과장) 김순석(독립기념관 자료실 위원)씨 등이다.

조계종 불학연구소장 도원스님은 "종단사의 체계적인 정리를 통해 이 시대 종단이 나아갈 수행과 교화의 길을 제시하겠다"며 "종단사는 근 · 현대 끝없는 분규로 얼룩진 종단역사의 반성속에 역사적 정통성과 사상적 정통성을 확인하여 종단위상을 쇄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는 2일 제3차 워크숍을 개최하고 조계종단사 편찬 방향과 기술내용을 확정했다. 사진은 3차 워크숍 장면.


무안 연꽃대축제 성황

'제4회 무안 연꽃 대축제'가 2~5일 전남 무안군 일로읍 연꽃방죽 일대에서 열렸다. 무안군 주최, 불교종단협의회 및 무안불교연합회 후원으로 열린 이번 축제에는 2일 법요식〈사진〉, 3일 불교문화 예술제도 거행됐다. 조윤오 목포지국장

봉림사 백고좌 법회

21~12월29일…봉림산문 중흥발원

경남 창원 봉림사(주지 운남스님)는 21일부터 12월29일까지 큰법당에서 봉림산문의 중흥과 대웅전 불사 원만회향을 위한 제1차 고승초청 백고좌 대법회를 개최한다. 백고좌법회는 신라 원광법사가 경주 황룡사에서 나라의 재난을 막고 왜적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인왕반야경〉을 설한데서 비롯됐다.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거행되는 백고좌 법회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9월21일 청화 태안사 조실(이날만 목요일) △9월29일 암도 전 조계종포교원장 △10월6일 혜인 약천사 회주 △10월13일 무진장 전 조계종포교원장 △10월20일 자광 금룡사 주지 △10월27일 금담 극락선원장 △11월3일 무비 조계종 승가대학원장 △11월10일 철웅 성전암 회주 △11월17일 성우 파계사 주지 △11월24일 고산 전 조계종총무원장 △12월1일 철우 파계사 율원장 △12월8일 종진 중앙승가대 교수 △12월15일 벽봉 전 동화사 주지 △12월22일 혜국 남국선원장 △12월29일 근일 영주 부석사 주지 등.

창원시 봉림동 봉림산에 폐사지로 남아있는 봉림사지 입구에 위치한 봉림사는 2년과정의 불교대학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대웅전 불사가 막바지에 이르는등 도량불사에도 힘을 쏟고 있다. (055)267-6336 김재경 기자

동화사 10월10일 개산재

고운 · 통도 · 금산사도 준비

조계종 제9교구 본사 동화사(주지 성덕)는 개산 1507년을 맞아 개산대재 봉행위원회(위원장 성덕)를 구성, 오는 10월 10일 개산대재를 봉행키로 확정하고 세부 일정 마련에 들어갔다. 10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대재에서는 개산조(開山祖)인 극달화상 영정이운식에 이어 봉축 법요식이 통일대불전에서 열리며 보살계 수계식, 만등불사 및 관등, 통일기원 탑돌이 등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개산재 행사 전후 1주일동안 펼쳐지는 문화행사는 팔공산의 자연과 문화재를 테마로 한 사진경연대회와 동화사의 어제와 오늘의 모습을 담는 동화사 사진공모전, 불교관화 및 불화전시회, 경관인출 시연 및 체험마당, 서각초대전 및 서각체험마당, 목장승깎기 시연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또 성보기념관 개관기념 전시회도 열어, 제9교구 본 · 말사가 소장하고 있는 불교문화재를 10월 한달동안 전시할 예정이다.

한편 고운사가 10월1일, 통도사가 10월 5~6일, 금산사가 10월7일, 은해사가 10월말경 개산대재를 봉행할 계획이며, 갑사는 11월5일 영규재를 열고 학술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금산사는 개산대재와 함께 조계종 17교구 본말사 사지 봉정식, 성보박물관 개관식, 조사전 영정 봉안식도 함께 거행할 계획이다. 김재경 기자

네팔불교 중흥 · 통일발원 천승재

용화정사 내달 카투만두서

한국의 스님이 네팔 · 티벳 스님 1000명에게 공양을 올리는 천승재(千僧齋)가 열린다.

수원 용화정사 주지 성관스님(수원불교연합회장)은 10월8일 네팔 카투만두 보트나트 불탑(세계 최대)에서 네팔 · 티벳 스님 1000명을 초청해 인도 · 네팔불교 중흥 및 남북통일기원 천승재를 거행한다.

용화정사 신도 40여명과 함께 실시하는 인도 · 네팔 성지순례를 겸한 이번 천승재는 티벳 린포체 스님의 법문과 성관스님의 답례사 및 법문, 감사장 전달, 공양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성관스님은 "목련존자가 지옥에서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스님 500명에게 공양한데서 착안한 이 법회는 천승재 공덕의 원력을 빌어 인도 · 네팔불교의 중흥과 남북 · 평화통일을 기원한 것"이라면서 "이는 한국 신도들의 승보에 대한 존경심을 환기시키고, 수원불교계가 인도 · 네팔 불교와의 교류를 시작하는 상징적인 의미도 갖는다"고 법회의 의미를 설명했다.

수원구치소교화위원 및 수원경찰서 경승이기도 한 성관스님은 4일 수원종합운동장 트레이닝장에서 수원 조원동사무소 후원으로 어르신 1000여명을 초청, 경로잔치를 베풀었다. 김재경 기자

미륵사지 아파트 익산사암련 반대

익산사암연합회(회장 지광스님)가 미륵사지부근 아파트 건설건과 관련, 시민단체와 연계해 적극적인 반대운동에 나선다.〈본지 285호 22면 기사 참조〉

익산사암련은 관계 부처의 다각적인 의견을 청취한 결과 미륵사지 주변환경 보존을 위한 대책이 전무하다 분석하고 4일 강경투쟁을 선언했다. 또 문화재를 보존해야 할 문화재청에서조차 아파트 건설을 암묵적으로 허가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따라 익산사암련은 익산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미륵사지 주변환경 보존을 위한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지광스님은 "익산시가 미륵사지 보존계획도 세워두지 않은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아파트 건설을 허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익산지역 불자들의 힘을 모아 대대적인 미륵사지 보존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시각장애인 후원의밤

화엄정사포교원(주지 보각)와 화엄정사 불교대학은 5일 화엄정사에서 부광맹인불자회(회장 최석주) 초청법회를 열었다. 부광맹인불자회 후원회 결성을 겸해 열린 이날 행사에는 부광맹인불자회 지도 법사인 통도사부산포교원 주지 심산스님, 맹인복지연합회 한영태 부회장을 비롯 회원과 가족, 후원인 등 3백 여명이 동참했다. 후원회는 차량구입, 경전 점역, 녹음도서 제작 등 지속적인 후원활동을 펼치게 된다. 부산=천미희 기자

종단소식

조계종

삼화사 재발파시험 요구

조계종 총무원과 제4교구 본사 월정사 및 말사인 삼화사는 최근 쌍용양회의 석회석 채취를 위한 발파폭음 및 진동으로 인한 삼화사 문화재 훼손과 관련, "쌍용양회측이 당초 합의한 장약량인 410kg을 지키지 않고 388kg으로 시험발파를 강행하려해 1차 합동시험발파(8월30일)를 거부한다"고 주장하고, 재발파시험을 요구했다.

가야산 도로관통 반대

해인사(주지 보광)는 최근 조계종중앙종회 사회분과위원회 앞으로 보낸 공문을 통해 "해인사는 국가지원지방도로 59호선(가야-봉산구간)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편입보상문제 등을 정부와 협의한 바나 통보받은 적이 없다"면서 "그러나 지난 98년 2월 정기 임회에서 선정한 지방도로 59호선 개설 저지 상임대책위원회의 활동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태고종

통일기원 수륙재

제주종무원(원장 수암)은 23일 오후 2시 제주 함덕해수욕장에서 평화통일 기원 및 환경보존실천을 위한 수륙방생 영산대법회를 갖는다. 1부 기원법회 2부 수륙영산재 3부 방생의 순으로 진행될 이번 법회는 괘불이운, 신중작법 대령 관욕 천수바라 등 전통불교의식으로 봉행된다. (064)752-2810

천태종

금강불교학원 사무처 현판

금강대학교 설립을 위한 금강불교학원 사무처 현판식이 7일 관문사 2층 법인 사무실에서 봉행됐다. 총무원장 운덕스님과 박형철 참의원장, 총무부장 덕수스님 교육부장 도원스님과 이재창 천태불교문화연구원장 등 종단 스님들과 연구원 교수등 1백여명이 동참했다〈사진〉.



관수사 24일 법당 낙성

남원 관수사(주지 갈웅)는 24일 오전 10시 종정 도용스님 총무원장 운덕스님 등 종단스님들과 신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법당 낙성식을 봉행한다.

진각종

불우이웃에 자비쌀 전달

진각복지재단(대표이사 성초)은 추석을 맞아 6일 성동구청에 10kg들이 100포, 7일 성북구청에 10kg들이 300포 전달 등 서울 시내 각 구청 가정복지과 및 사회복지과를 통해 불우이웃돕기 자비의 쌀 총 700포를 전달했다.

총화종

원찰건립위장 청해스님

8월 26일 대전 대덕사에서 종단 간부스님 8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원찰건립을 위한 상임위원회를 열고 원찰건립불사 추진위원회 위원장에 포교원장 청해스님(만경사 주지)을 선출했다. 또 부위원장은 각 교구종무원장스님들이 맡기로 했다. 총무원은 원찰건립을 위한 기공식을 오는 2003년 5월에 하기로 했다.

무량종

청송감호소 떡 · 우유 전달

보명 경북종무원장(도선사 주지)은 신도회와 함께 6일 경북 청송 제1감호소에서 5백여 감호인들에게 떡과 우유 등을 전달하고 추석맞이 위안법회를 봉행했다.

아봐타 코스는 자기 자신이 온전한 주인이 되어 뜻대로 사는 길입니다.

아봐타 코스

당신이 원한다면, 당신이 선택하기만 한다면 당신의 삶 전반이 바뀔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아봐타 코스는 7~9일이 정리며 비용은 180만원입니다.
·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밝은길 아봐타 센터
마스터/위저드 김회군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 bukba@kornet.net
☎ 02) 396-2736 H·P 016)228-2358
FAX 02) 396-2735

위빠싸나수행센터 보리수선원 경전강의

보리수선원에서는 팔리어 원본을 번역한 완역본의 초전법륜경과 대념처경을 4개월에 걸쳐 강의할 예정입니다.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처음으로 금구를 열어 다섯 비구들을 성인의 경지까지 이끈 법문 초전법륜경(담마쌔까:dhammacakka)은 깨달음의 과정과 중도, 사성제, 팔정도 등이 주요 내용이며, 이것이 바로 불교의 핵심입니다.
불자라면 부처님이 처음으로 중생들을 위해 설법한 초전법륜경과 올바른 수행을 위한 지침서인 대념처경은 원전을 통해 꼭 알아야할 경전입니다.

경전강의 시간
● 초전법륜경 : 2000년 10월 7일 ~ 11월 25일 - 매주 토요일 오후 7:00 ~ 9:00
● 대 념 처 경 : 2001년 1월 6일 ~ 2월 24일 - 매주 토요일 오후 7:00 ~ 9:00

경전 강의
● 붓다락키타 비구

수 강 료
● 50,000원(4개월 강의료)
● 예금주 : 보리수선원 / 외환은행 : 287-18-09222-3

신청방법
보리수선원 종무소에서 강의 일주일 전까지 미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2) 928-2844 / e-mail : borisu01@hananet.net
홈페이지 : www.borisu.or.kr

위빠싸나수행센터 보리수선원 BODHI MEDITATION CENTER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32-1 어반하우스빌딩 3층

佛教儀式 (범음 · 범패) 학인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범음 · 범패> 교육에서는 권위 있는 연구 원장<선파 큰스님>과 교수진 <해암스님등>을 모시고 체계적인 교육으로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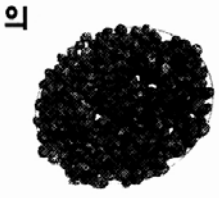
◆ 과 정

· 기본과정	일반 사부대중의 의식교육을 체계적으로 재교육에 노력함 도량석 각단에불 천수경 행선축원 사물(기초)다루는 법
· 중급과정	기존의식과 대승적 교육에 필요함을 필수적 동참 의식에 미비함을 절대적으로 공부를 하고자 하는분들! 상주권공, 대령관욕, 권공, 영반, 지장청, 제반의식등(천수북, 법성게, 요잡등)
· 연 구 반	기존 사찰 소임에 여타 여법한 중임에 일반적 위기의식에 결여로 고민하는 분들(신중작법, 다게작법, 천수바라, 나비춤, 오공양작법등, 연불선의 경지를 추구하는 분)
· 특 별 반	내년 불기 2545년(2001년)에 윤달의식인 예수재를 준비하는 각 사찰 및 재가, 신도, 승의 여법한 준비 자세에 임하는 사부대중의 공부에 충실코저 금번 특별 신설에 종력을 경주 하였음.

◆ 개강일시 : 수시접수함 (매주 목요일 오후 금요일 오전, 오후 강의함)
◆ 제출서류 : 입학원서(소정양식)1통, 주민등록등본1통, 반명함판 사진3매
※ 본대학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 수료후 수료증을 수여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 제공
※ 초심자 승려 재가 법사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성심껏 지도함
※ 야간반을 계획하오니 많은 동참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843번지
대한불교 원효종 총본산 금수사 대학 사무국
☎ (051) 442-5952, 467-3316
海東元曉佛教魚山儀式大學

각종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력이 있는
약사여래원 거룡 범주스님의
선식 검정콩 '金단花'





"왜 콩을 통째로 삼키느냐, 한번 보세요. 염소 배설물처럼 자그마하죠? 그런데 이게 항문을 통해 나오는 것을 보면, 4~5배 불어나 어른 손톱만큼 불어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분석해본 것은 아니지만, 위 대장 소장을 거치는 동안 각종 노폐물과 세균을 흡착하는 것 같아요. 내가 대변으로 배출된 콩을 씻어서 썹어보았더니 아이고! 소태보다 더 쓰더라니까"

지극정성 93일 인간의 건강이 금쾌처럼 차곡차곡 쌓여 꽃처럼 만개하라는 범주스님의 소망이 담겨 지어진 검정콩의 이름이다. 선식콩 금단화를 만드는 방법은 스님의 비방으로 만든 액즙에 검정콩을 깨끗이 씻어 말린뒤 액즙에 20여일간 담그어 두었다가 꺼내어 10여일을 말린다. 이 과정을 거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달. 이렇게 3번 반복해 검정콩 금단화가 완성되기까지 무려 93일이나 소요된다. 콩은 '속피랭이콩'이라 부르기도 하는 서리태콩을 사용한다. 이 모든 과정들이 정성을 다해야만 하는 고달픈 작업이지만 그 과정자체가 죽어가는 생명을 되살릴 수 있는 희망을 품게 한다는 신념때문에 힘든 줄 몰랐다고 범주 스님은 말했다.

"선식 검정콩은 특히 변비, 다이어트에는 빠른 효과를 보이며"
3개월 복용한 "분당"의 한 주부는 4kg이 빠지고
더부룩하던 증세가 1달만에 깨끗이 없어졌다고 자랑이 대단하다.
7월 29일 MBC TV 「고향은 지금」 오전 8시 30분 방영!
"꾸준한 금단화 복용은 어떤 병이라도 치유해 낼 수 있는 인체의 자생력을 길러 주어 병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시켜 준다."

효능 당뇨병, 간장병, 부인과, 피부과, 변비, 치질, 다이어트용, 위장병, 정력, 장청소, 혈압, 치매, 관절염, 신경통, 혈액순환, 체질개선

◐ 상담문의 ☎ (02) 3437-8282 ◑

"봉화 각화사 그대로 두라"

정부 문화유산 복원 빌미 관광지화 추진

전국선원수좌회, 개발반대 결의

이생의 목숨 없다손 치고 참선 정진허 부처를 이루겠다는 수좌들이 "수행도량을 관광지로 내줄 수 없다"고 나섰다.

조계종 수좌들의 모임인 전국선원수좌회는 5일 경북 봉화 각화사 인근 관광지 개발계획과 관련해 중앙종회에 개발반대 결의문 채택을 요청했다. 선원수좌회는 요청서를 통해 "각화사 경내지에 있는 태백산 사고지(史庫址)를 개발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려는 행정당국의 처사에 분노를 느낀다"며 "순교정신으로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좌회에서 각화사 문제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수행처로서의 각화사가 갖는 의미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각화사는 수좌라면 반드시 한철 정진해야 하는 사찰로 꼽힌다. 동·하안거 때는 물론 산철결재 때도 하루 잠자는 시간 4시간을 빼놓고는 치열하게 정진하는 선방이어서 수좌들도 쉽게 방부를 들이기 어려운 곳이다. 안거 때는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것도 여느 사찰과 다르다. 수좌회에서 각화사 '수호'에 나선 이유는 각화사 뒤편에 있는 사고지를 복원, 인근을 관광지화 하겠다는 계획을 정부와 경북도, 봉화군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봉화군은 지난 해 5억원 예산을 확보하고 각화사에서 사고지까지의 진입로를 개설하고 선원각, 실록각, 근천각 등 주요시설과 주변 지역을 연차적으로 복원하기로 했다.

봉화군의 사고지 복원 및 인근 지역 개발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경북북부 유교문화권 개발계획의 일환이다. 정부는 2010년까지 2조4천억원을 들여 경북북부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집중 개발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각화사 주지 정진스님은 "경북 문경 봉암사가 일년에 한 번 부처님오신날에 즈음해 산문을 일반인에게 열 듯이 각화사도 사람들의 발길로 어지러워진 사찰과는 다르다는 것이 수좌들의 인식"이라고 전하고 "봉암사와 함께 각화사 같은 참선수행도량 하나 더 있는 것이 불교는 물론 우리 문화를 더욱 풍부하게 하는 길이다"고 말했다.

각화사는 신라 때(686년) 원효스님이 창건한 사찰로 전해지며, 조선 말 중건한 이후 선찰로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동선원과 서선원 등 2개의 선방은 안거 때마다 30여명의 수좌들이 정진하는 곳이다. 인근의 동암, 서암, 남암, 북암 등 4개의 암자가 각화사를 빙 두르고 있어 수행처로서의 품격을 높여준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문화재 수사대 발족

경북경찰청, 52명 구성

경찰이 문화재 수사대를 발족하고 문화재지킴이를 본격적으로 선언하고 나섰다.

이로써 비지정문화재 도난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지난 8월 입법예고된 문화재법개정안과 함께 문화재 보호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경북지방경찰청은 7일 문화재 도굴 및 도난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문화재사범 전담 수사대를 발족했다. 문화재 수사대는 경북경찰청 수사2계장 김광수 경감을 대장으로 전문수사요원 4명과 도내 각 경찰서 형사 2명씩 모두 52명으로 구성됐다.

수사대는 앞으로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국보와 보물 등 중요 문화재 현황을 파악하고 소유자 및 관리자와 협조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문화재 관련 전과자와 매매업소, 중개상 등의 실태를 파악해 도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초동조치와 감식, 탐문수사 등의 활동을 펼치게 된다.

수사대장 김광수 경감은 "경북지역은 불교문화의 중심지로 곳곳에 문화유산이 흩어져 있다"며 "예술적·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문화재를 보호하고 전문범들에 의해 이뤄지는 문화재 도난 사건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수사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지역은 99년 7월 기준으로 국보 12점을 비롯해 192점이 국가 및 시도 문화재로 지정돼 있으며 전체 불교문화재 도난 사건의 약 30%가 경북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경북 청도 용천사 후불탱화 등 올해만 벌써 4건의 문화재 도난사건이 발생했다.

권형진 기자

승가원 보각스님 공금유용

5억여원 추산

복지법인 승가원 상임이사이자 소쩍새마을 원장인 보각스님이 승가원 법인설립 당시 중앙승가대가 출연했던 기본재산 중 5억여원을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6일 총무원 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승가대 이사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중앙승가대 이사장)이 이와 관련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드러났다. 중앙승가대는 지난 7월18일부터 26일까지 8일간 승가원에 대한 감사를 벌였었다.

정대스님은 이날 이사회에서 "승가원에서 보각스님 공금유용 사건이 있었다"고 말하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 책임부서의 직원들에게도 일괄사표를 받아 문제를 수습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정확한 액수와 배경, 공금유용 시기는 중앙승가대측이 밝히지 않아 드러나지 않고 있다. 다만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올 1월 보각스님이 강원도 원주 인화병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없이 5억여원을 유용했다가 다시 돌려놓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인화병원은 현재 폐업결정이 내려져 제3자 인수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각스님은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지난 8월11일 상임이사직과 소쩍새마을 원장직을 사퇴했다.

한명우 기자

한불연, 유마정사 기공

한국불교연구원(이사장 정병조)의 근본도량이 경기도 광주에 세워진다.

한국불교연구원은 17일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연곡리에서 연구원 구도회원들의 불교연구와 수행의 장이 될 유마정사의 기공식을 갖는다. 연구원이 창립된 지 25년만에 있는 불사다. 구도회원들이 보시한 벽돌로 건립될 유마정사는 건평 1백평 규모의 법당과 지상2층 120평 규모의 연수원, 6백평 규모의 부도터 등으로 조성된다. 부도터에는 초대 연구원장 이기영 박사와 연구원 창립 주역 서경수 교수(동국대)의 부도탑이 세워진다. 연구원은 향후 부도터를 영탑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도필선 기자

룸비니 동산에 수련장 만든다

부산불교신도회

부산불교신도회(회장 강선태)가 인도와 중국 수련장을 마련, 해외 성지에서 보다 적극적인 수련활동을 갖게 되었다. 부산불교신도회는 인도 룸비니가 내다보이는 곳에 위치한 부다호텔과 중국 용성시에 수련장 및 부지를 마련했다.

인도의 부다호텔은 부산불교신도회의 전이사인 노종백씨가 인도 정부와 15년 장기임대계약을 체결 이곳을 신도회의 수련시설로 제공하게 되었다. 5천평 대지에 2인 1실 20개, 4인 1실 5개와 사무실, 식당을 갖춘 부다호텔에 법당을 신축할 예정이다.

또한 중국에는 이갑상 이사가 용성시에 부지를 매입해 민족문화원 설립을 추진중이며 이곳 또한 신도회 수련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10월경 본격화되는 민족문화원은 중국의 조선족들을 위한 포교 거점으로 선방, 세미나실 등을 갖추고 불교문화, 한국문화를 중국에 전하게 된다.

부산=천미희 기자

"조계사 신협사건 책임소재 밝혀라"

불교인권위등 성명

불교인권위, 불교자원봉사연합회, 사시대 불교포럼, 우리는 선우, 한국불교청년회, 대불련 서울지부, 수원 팔달사 청년회 등 7개 단체는 조계사 신협사건과 관련해 7일 성명을 내고 책임자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7개 단체는 성명에서 "조계사 신협 횡령사건과 총무원 직원의 공금유용 사건 등 일련의 금융사고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고 "사건에 관한 최종 책임은 총무원에 있으며, 따라서 총무원은 불자와 국민 앞에 공개 사과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7개 단체는 또 "현재 종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익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명우 기자



◇서울지역신도회는 2일 창립법회를 갖고 불교홍포 및 사회봉사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서울지역 신도회 '창립'

초대회장 정인악씨

조계종 중앙신도회 첫 지역조직이 탄생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서울지역신도회 창립법회가 2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정련(조계종포교원장)스님, 김근태 민주당 최고위원, 백창기 중앙신도회장등 2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초대회장에 정인악씨(주식회사 남양사 회장), 부회장에 강경구(선재마을의사회장), 감사 김익석(서울불교청년회장) 전준호(조계사청년회장)씨가 선출됐다. <회장 인터뷰 4면>

서울지역 조계종단 소속사찰 신도회 150여곳을 비롯하여 신행단체를 관할하게 될 서울신도회는 △불교홍포 △사회봉사 △전통문화 계승 △지역발전 사업 등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김원우 기자

火葬인식 좋아졌다

"본인 유언따라 화장" 43%
"화장후 납골당 안치" 55%

본인 유언에 의한 화장과 노인층의 화장이 증가하고 중산층의 화장률이 절반을 넘어서는 등 화장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6월부터 한달간 시립화장장에서 친척이나 가족을 화장했던 시민 1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지난 5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본인 유언에 따라 화장을 했다'는 응답이 43.4%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94년 조사 때 본인 유언에 의한 화장은 29%에 불과했다.

또 65세 이상이 94년의 37.7%에서 올해 48.8%로 증가했으며, 중산층의 화장률 역시 94년 46.3%에서 올해 57.7%로 절반을 넘었다.

이와 함께 화장 후 납골당에 안치하는 비율도 94년 11.1%에서 55%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화장자의 납골당 이용이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명우 기자

뉴스 & 뉴스

김해·청송서 문화재 도난

지난 8월 대구 달성군 도성암에서 대웅전 후불탱화를 도난 당한데 이어 1일과 5일에는 경남 김해시 해은사와 경북 청송군 대전사에서도 각각 도난사건이 발생했다.

대전사 주지 법은 스님에 따르면 5일 새벽 1~2시 사이 보광전(경북도유형문화재 제202호)에 봉안된 후불탱화와 신중탱화, 시왕탱화 등 탱화 3점이 없어졌다.

또 지난 1일에는 해은사(주지 정야) 법당 옆 대원각에 액자 속에 넣어 보관 중이던 김수로왕 및 왕후 영정(19세기초 조성)이 도난당했다.

권형진 기자

"소백산 공원확대 반대"

환경부의 국립공원 확대계획으로 소백산 구인사 일대가 국립공원으로 편입될 위기에 놓이자 천태종이 단양군민과 더불어 대대적인 반대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천태종은 본산인 구인사 일대가 국립공원으로 편입될 경우 신도들의 불편은 물론 물공급과 사찰 정비계획 등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서울 관문사 등 주요 사찰에서 구인사 국립공원 편입 반대서명을 벌여 9월 8일 현재 1만7천여명의 신도가 서명을 마쳤다. 구인사는 환경부 원안대로 국립공원 지역 변경안이 통과될 경우 2백만 종도들의 힘을 모아 소백산 국립공원 전면해제운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경숙 기자

인드라망, 불교귀농학교

인드라망생명공동체(상임대표 도법)는 20일부터 11월18일까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강의실에서 제7기 불교귀농학교를 개설한다.

귀농희망자와 생태적 삶으로의 변화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불교귀농학교는 매주 수(오후 7시)·토요일(오후 3시) 모두 16회의 강좌로 이뤄지며, 남원 실상사에서 현장교육도 실시한다.

김재경 기자

백두산부대 도솔사 기공

강원도 양구군 동면 비아리 도솔산에 위치한 육군 백두산부대는 지난 3일 군법당 도솔사(주지법사 정행) 기공식을 봉행했다.

청평 원흥사의 후원으로 이뤄지는 군법당은 36평 규모의 개량한식 건물로 지어지며 오는 12월 완공된다. (033)481-5806

김두식 기자

JTS 실직노숙자 수련

한국JTS(이사장 법륜)는 9월27일~10월1일, 10월 24~28, 11월 22~26일 문경 정토수련원에서 '실업자 및 실직 노숙자 집단상담(수련)'을 실시한다. 매회 노숙자 쉼터 거주자 2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수련회는 집단상담프로그램인 '나눔의 장'으로 진행된다. 수련비 20만원 및 왕복 차비 지원. (02)587-8995

김재경 기자

지리산 청학동 대나무 숲으로 만든
차량용 공기정화 탈취제 대숲 쿠션



■ 대숲 대나무숲의 효과

지리산 대숲 대나무숲의 우수한 공기정화 작용과 음이온 및 원적외선 효과가 운전수의 심신을 안정시키면서 몸을 편안하게 하고 혈액순환 및 신진대사를 촉진하며 대나무숲이 내뿜는 알파(a)파가 운전자의 각종 스트레스를 말끔히 해소 합니다.

지리산 대숲 대나무숲의 탁월한 흡착작용이 차(車)안의 각종 냄새를 말끔히 제거하며 살균력을 지닌 죽초액을 첨가하므로 세균번식을 억제하는 항균력이 매우 우수하고 습도조절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또한 전기 전도성이 우수하여 정전기의 발생을 방지하며 유해 전자파의 공해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합니다.

■ 대숲 쿠션의 특징및 용도

· 100% 국산 대나무숲 사용 탁월한 효과, 효능 체험
· 자연 염색천을 사용
· 건강과 안전, 그리고 기(에너지)관련 부적 및 문양을 채택하여 사용자의 소망을 실현시키는 신비함
· 대숲 쿠션은 실내 공기정화용 및 탈취용 제품으로써 일반 쿠션용도와는 다르게 비비거나 몸을 기대지 마세요.
· 실내용, 차량용, 신생아용, 명상용
· 자매품 : 대나무 숯 다수
자연염색 의류(100% 대나무 숯, 황토염색)

구 분	사 양	가 격
차량용 (공기정화탈취제)	쿠션형태	27,000
실내용 (공기정화탈취제)	피라밋형태	35,000
신발 (냄새제거제)		2,000

▶ 사찰 행사용 등으로 다량 구입시 할인하여 드립니다.
▶ 현재 불교방송에 협찬 광고 중입니다.
▶ 소중한 분들께 드리는 추석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2000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 출품 ※
(행사기간 9월 1일 ~ 11월 10일)
※ 2000무안 연꽃 축제 출품 ※
(행사기간 9월 1일 ~ 9월 4일)

대숲
■ 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중이리 1056
■ TEL : 055)883-4380 FAX : 055)883-4380 H·P : 017)242-6976
■ Website:http://www.daesup.com E-mail : daesup2000@hanmir.com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⑩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의 신비
⑪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⑫ 이장의 문제점과 그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 처방비법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4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태아영가의 천도는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수 있는 기도방법
⑫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주부신행담

미국서 겪은 기도의 힘



그림 · 이준석

백일기도를 생각하며 관음정근을 하니
덤벼들던 불길이 반대로 방향을 바꿨다
믿음의 힘이 그렇게 큰 줄 정말 몰랐다

미국으로 떠나기 전 딸애한테서 전화가 왔다. 딸이 있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랄리라는 곳은 절도 없거니와 불교를 믿는다면 무조건 마귀로 본다는 것이었다. 딸은 어미인 내가 실망할 것 같아 무척이나 걱정이 되었던 모양이다.

목적지 랄리는 중소도시로서 학교가 유난히 많고, 집은 시내에서 10분거리에 있는 안온한 숲속의 빌라같은 아파트였다. 도착해보니 온 천지가 잔디밭이고 온통 나무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나무 자체가 모두 몇 백년은 되어 보이는 거목들이었고, 녹색으로 물들어진 자연환경에 나는 나도 모르게 "아 너무 좋다"고 외쳤다.

하루 또 이틀이 지나자 순복음교회 목사, 힘 례교의 집사 라는 분들이 찾아왔다. 자연히 소개를 받고 내 소개도 하는 일이 생겼다. 그때마다 나는 불교신자라고 당당히 말했다. 그런 일들 때문에 곤란한 입장에 놓이게 되는 것은 딸 내외였다. 하지만 나로서도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다.

한 달이나 지났을까. 학교 관계로 온 사위가 다시 서울 본교로 돌아가게 되었다.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에 남게 된 딸이 걱정되었다. 여기서도 교회에 나가지 않는 아이들이 대견스럽게 보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왠지 쓸쓸해 보였기 때문이다. 이런 곳에 절이라도 있다면 하는 아쉬운 마음이 간절했고 우리 스님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 하는 불평이 절로 나왔다.

사위가 서울로 올라간 뒤 아이들의 생활이 왠지 불안해 보였다. 그래도 내가 옆에 있으니 다소 위안은 되었겠지만 같은 동포인데도 전부가 기독교도여서 유독 우리 아이들이 쓸쓸해 보였다. 사람들의 발길도 뜸해지고 해서, 나는 매일 혼자 있는 시간을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나는 매일 혼자 있는 시간을 깊은 산중에 있는 암자에 와 있는 것으로 마음을 바꾸고 부처님께 기도로서 의지할 것을 결심했다. 아울러 이어린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묘법인 실증을 보여주고 싶었고 부처님의 가피가 어떤 것인가를 느낄 수 있게 하자는 원이 있었다. 딸은 어려서부터 누구보다 내 옆에서 나의 불심을 지켜본 아이였기 때문에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투철했다. 그러나 미국이라는 타지에서 너무 의지할 곳이 없으니 언제나 긴장 속에서 사는 모습이 나에게는 정말 안스럽게 느껴졌다. 사위가 2월5일 떠나자 나는 2월7일부터 5월21일까지 100일 기도를 시작했다. 이 기간 동안 먼 여행은 물론 바깥 구경도 삼가고 기도에 임했다. 한국서 가지고 간 관세음보살님 달력을 벽에 걸고 꽃 화분 하나 사 놓은 것을 공양으로 향을 올리고 시작했다.

100일 기도를 시작한 나에게 힘이 된 것은 거실에서 유리창 밖 정면에 보이는 오래된 고목한 그루였다. 처음 여기 왔을 때 겨울이라 눈이 많았는데, 그 눈 속에서도 어느 나무보다 나뭇잎이 우거져 푸렷한 초록색을 보이며 싱싱해 보였다. 그 나무의 모습이 묘하게도 나에게는 부처님께서 가부좌하고 계시는 모습으로 느껴졌다. 이렇게 나는 자연스럽게 내 마음으로 꾸민 법당에서 오랜 시간 기도를 할 수 있었다.

하루에 만 번 관세음보살 정근을 했고 오전 10시에 향을 올리고 예불하는 것을 시작으로 독경을 하고 108배를 했다. 마지막에는 회엄경 약찬게 광명진언으로 믿음의 길을 더듬어 갔다. 3개월하고 10일 동안은 가까운 곳 이외는 구경도 못하고 기도에만 전력했다. 마침내 회향일인 5월 21일이 돌아왔다.

그 날은 일요일이라 식구가 녹장을 부릴 것이라 생각하여 새벽 3시에 일어나 만 번의 정근을 마치고 바로 예불 독경으로 백일 동안의 어려웠던 기도를 끝마쳤다. 그래서 모처럼 푸근한 마음으로 별식이나 해서 애들하고 아침을 먹으려고 부엌으로 갔다. 채소를 씻고 있는데, 딸이 와서 "엄마 연기가 자욱해요"하는 것이었다.

딸은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더니 불이 났다며 큰소리로 외쳤다. 벌써 불길은 불이 난 집 창 밖으로 내비치며 하늘로 치솟고 있었다. 내가 살고 있는 딸 집에서 한 집 건너에서 불이 났는데, 목조로 된 이 아파트에 전부 카펫이 깔려 있어 순식간에 불길이 번져왔다. 당황한 나는 뒤돌아볼 여유없이 딸과 손자들을 붙들고 집을 빠져 나왔다. 엉겁결에 나오느라 작은 손자는 옷도 못 입고 팬티바람에 신도 못신은 채였다.

한 동에 36가구가 살고 있고, 지하까지 3층인 이 아파트를 어느새 불길은 금방이라도 한꺼번에 삼켜버릴 듯이 번져가고 있었다. 소방차가 오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도 불길은 무섭게 번져만 갔다. 멀리서 쳐다보니 불이 난 집 한 집 건너에 있는 딸의 집도 불이 붙는 것처럼 보였다. 내 옆에 있던 딸은 잔디에 엎드려 하염없이 울고만 있었다. 특히 이 아파트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살아 마치 외국인종들의 집합소 같은 곳이었는데, 모두들 걱정스런 눈빛으로 보고 있었다. 이른 아침 시간인데다 일요일이라 피해가 더 심했다.

그렇지만 나는 백일기도를 생각하며 절대로 부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아이들과 울고 있는 딸애에게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찾아라"며 여기가 미국이라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합장하고 눈을 감고는 소리내어 관세음보살 정근을 했다. 바로 오늘이 100일 기도의 회향일이라는 것이 더욱더 신기했고 관세음보살님이 살펴주실 거라는 마음에, 불을 처음 봤을 때보다는 그렇게 걱정되지는 않았다.

불길이 위낙 거세어서 불길을 잡지 못하는 소방대원들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였다. 99%는 딸의 집도 불이 붙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딸의 집 쪽으로 덤벼들던 불길이 반대쪽으로 쏠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고맙습니다, 부처님"을 연발했다. 그리고 옆에서 계속 울고 있는 딸의 귀에다 "절대 너의 집은 타지 않는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 믿음이라는 힘이 이렇게 든든하고 장할 줄은 정말 몰랐다.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나오는 "관세음보살님을 일심으로 찾으면 고통에서 벗어나고 불 속에 있어도 타지 않느니라" 하신 말씀이 떠올랐고 그 말이 나에게 이때처럼 힘을 준 일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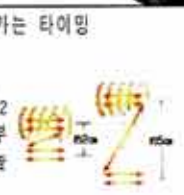
어느 정도 화재가 진화되고 오후 3시쯤이 되어서야 집으로 들아가도 좋다고 해서 집으로 들어갔다. 현관을 마주보고 있는 건너편 집은 완전히 타버려 흑삭 주저앉아 있었지만 딸의 집은 물 한 방울 흐른 자국없이 빠져 나올 때 그대로였다. 기도를 마치고 회향하는 날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화재 때문에 아파트 전체가 가스와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우리는 그 집에 더 있을 수가 없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정해준 집도 깨끗하고 좋아 다시 부처님의 가피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하지만 너무나 가슴이 아픈 일은 미국 땅에서는 교회에 안 나오면 동료들도 찾아오지 않고 따돌림당하는 것이다. 인정사정 없는 이 종교전쟁에서 언제 우리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이 퍼져나갈 수 있을지 답답하기만 하다. 미국에서 부처님의 실증과 가피를 받고 나는 더욱더 단단해지는 성불에의 길을 다짐해 본다.

이해숙(서울시 노원구 하계1동)

SANYO
인간과 지구■ 사랑합니다.
스트레스로 지친 업무를 마치고자기만의 RELAX타임 -
피곤함을 말기면 온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편안함으로 인도합니다.
수입원 산리전자 주식회사
SUNNY ELECTRONICS CO.,LTD.
제조원 三洋電機株式會社
家族의 椅子 wellday
●가족형 안마의자

●프로의 손놀림 시스템
2개의 모타라서 가능하다
사람의 손으로는 느낄수 없을정도의 기분
두드리며 주무름
「두드림」과 「주무름」이 동시에 동작 2개의 모타 4개의 맛사지봉이 「두드리며 주무름」복합 맛사지는 사람의 손으로는 느낄수 없을 정도의 기분이 실현됩니다.

절묘한 「주무름」과 올라가고 내려가는 타이밍
신 · 더블Z안마
SANYO독자의 2주무름을 한층더 진화시켜 동작은 2회씩 반복합니다. 또한, 머리, 어깨부와 등, 허리부의 2통로 주무름 수법으로 맛사지효과를 한층더 높였습니다.

SANYO안의
2모타 - 4개봉은 프로의 손놀림에 한정하지 않고 가깝고 빨리!& 편안한 맛사지
맛사지의 부품은 신개발의 2개모타. 사람의 손으로 느낄수 없을 정도의 기분을 실현했습니다. 또한 주무름봉의 평행각도가 50도까지 움직여서, 주무름 봉이 전하는 어깨나 허리에도 꼭 맞습니다.SANYO의 2모타 4개의 봉은 빠르고 편안함의 이상적인 주무름 기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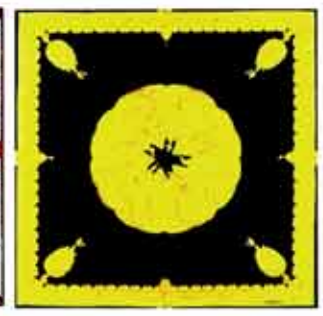

■상담전화 02)2281-483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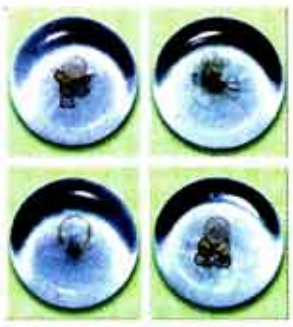
「우리 곁에 다녀간 부처」
성철 대선사 기념메달 보급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 참 뜻만 깨쳐도 우리는 이미
큰스님과 함께 삼법인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소재 : 황동(순금도금) ■직경 : 80mm ■가격 : 5만원

성철 대선사 기념 메달

성철 대선사 기념 메달 후면
■판매 : 인터넷 ■교 백화점 마하■ ■제조 한국조폐공사
•전화:02-732-1522 / 737-8881 •팩스:02-737-0697 •인터넷:http://www.mahamall.co.kr

비색 스카프
고구려 벽화무덤 가운데 무용총 벽화, 부여에서 출토된 용봉 대향로 등을 토대로 디자인하여 상품화한 스카프

▶ 무용총스카프

▶ 백제향로스카프
전통비색 스카프의 작업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과정을 100% 수작업으로 온갖 정성을 기울여 제작하였며, 제품의 격조를 좌우하는 최고의 핵심인 나염작업도 수작업으로 처리함으로써 장인정신을 견지하였다.
▶ 규 격 가로 36" × 세로 23"
▶ 재 질 실크100% Twill
▶ 가 격 : 80,000원

불교 캐릭터 무공해 투명 한방 미용 비누

천연, 한방원료를 사용하여 피부의 노폐물 및 메이커 업 잔여물 까지도 깨끗이 한불의 투명 미용비누는 키토산, 죽염, 홍삼 황토, 프로 폴리스 등 천연원료를 과학적으로 배합하여 세정 마사지 효과, 피부노화방지 효과, 잔주름예방 효과, 미백효과 등 평상시 피부관리에 많은 도움을 주는 무공해 미용비누 입니다. 투명한 비누 속에 귀여운 동자승의 모습은 마음이 맑으면 몸도 맑아진다는 선조들의 임상을 증명해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가격 ?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것 입니다!
■1개 당 : 3,000 원(구입가격 50,000원 이하 시 발송료 별도)
■6개 1세트 : 16,000원 (구입가격 50,000원 이하 시 발송료 별도)
■500개 이상 : 개당 20%할인
■1000개 이상 : 주문자 디자인 투명비누 속에 첨가
•전화:02-732-1522 / 737-8881 •팩스:02-737-0697 •인터넷:http://www.mahamall.co.kr